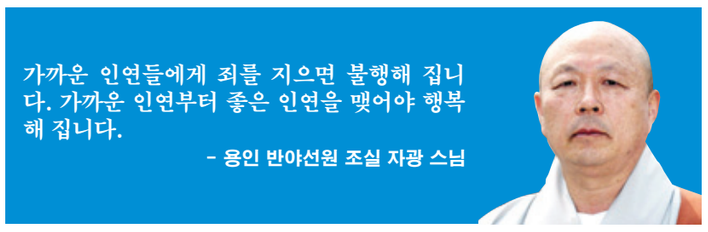
Buddhanews.com

현대불교



제823호 | 2011년 2월 16일 수요일 (음력 1월 14일 · 불기 2555년 · 주간)



용감한 등록금 인상에 간절한 삼보일배 동국대 학생들이 2월 10일 교정에서 등록금 4.9% 인상에 항의하는 뜻에서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정과 조계사 앞에서 학교 측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여 왔다. 동국대의 4.9% 등록금 인상율은 전국 대학 중 가장 높은 인상율이다. 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최대 22만원이 인상된 금액이 고지됐다. 학교 측은 "지난 2년간 등록금 동결로 적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적립금을 모두 썼다. 교원 확보 등으로 올해에는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전통문화 훼손·은폐 더 이상 좌시 않겠다"

조계종, 낙단보 마애불 파문 법적 대응 시사

조계종이 낙단보 마애불 사태와 관련해 4대강 사업 강행에 따른 의도적 훼손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당국의 적절한 해명이 없으면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2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낙단보 마애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낙단보 마애불은 2010년 10월 4대강 사업 공사구간에서 훼손된 채 발견돼 전 불교계를 경악케 했다. 최근에는 정부가 불교계에 통보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은폐 시도를 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효탄 스님은 "정부가 보물급 문화재의 의도적 훼손 의혹을 방치하고 문화재 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 사실을 인지하고 10월에 발견한 것처럼 발표해 국민과 종교지도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문화재청과 4대강 사업 경남지역 본부가 10월 6일 통합관리센터 부지 조성 공사에서 마애불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지만 종단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의성군청은 이미 8월에 마애불의 존재를 확인하고 현장을 통제했다. 조계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이 경과한 뒤 훼손된 채 발견된 것이 의문이라며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한 의도적 훼손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마애불에 대해 관련학계가 보물급 문화재로 평가했음에도 문화재청이 지방문화재로 심의·결정한 것도 이런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보물급 문화재로 지정되면 발굴 구간 일대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계종은 기자회견 후 문화재청과 관계 당국에 종단의 입장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고 2월 16일까지 납득할 만한 해명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단은 또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2월 18일 낙단보 공사현장을 방문해 마애불 훼손과 은폐의혹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은 1080배를 올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필요하다면 조계종과 협의와 해명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사공 없어 멈춰선 불교환경연대

수경 스님 빈자리 극복 못하고 사업 공전… 존폐 위기설까지 나와

2월 10일 조계사 신도회관 4층 불교환경연대 사무실을 찾았을 때 4개월 여 홀로 사무실을 지키던 명계환 조직국장은 사직하고 없었다. 대신 2월부터 근무를 시작한 前 대한불교청년회 김두환 종평위원장이 업무파악 중이었다. 옆 자리에는 부설기관 숲명상 유아학교 연구소 김주연 실장이 있었다.

2010년 6월 14일 불교환경연대 수경 스님 은적 이후, 7월 회원사업팀 김중행 간사 · 8월 유은주 홍보팀장 · 심보람 총무간사 · 9월 장재원 교육국장이 연이어 사직했다. 4개월간 표류하던 환경연대는 10월 11일 임시총회에서 현고 스님을 상임대표로 어렵게 선출했다. 현고 스님은 '2010년 12월까지 적임자가 선출 될 때까지 조건부로 맡겠다'며 조건부 승락했다.

현고 스님이 상임대표로 있는 2개월 간 불교환경연대의 행보는 부자연스러웠다. 현안마다 입장표명을 아꼈다. 총무원과 정부 눈치 보기에 바빴다는 비난이 그치지 않았다. 당시 명계환 조직국장은 "활동가는 (농성) 현장에 있어야 하는데…"라며 자신과 연대의 정체성에 늘 고심하는 모습이었다.

환경문제에 대한 비판을 대신해 불교환경연대는 생소한 사업들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부설기관으로 출범시킨 한국형 숲명상 유아학교 연구소 '아이숲'이 그 예이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무슨 일을 하는 거냐'는 수근거림도 있었다. 신규 사업을 통해 조직을 되살려 보겠다는 역발상의 강한 의지였으나 대중은 외면했다.

1월 13일 명계환 조직국장은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어 17일 현고 스님도 사의를 표명했다.

현고 스님은 전화통화에서 "수경 스님의 정신과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TF팀을 구성해 조직을 안정화하고 환경연대의 방향을 논의하는 일도 재정과 인력이 부족해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슈퍼스타'(수경 스님)의 빈자리를 잠시 떠맡으며 늘 조심스럽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명계환 조직국장은 "환경연대의 정체성이 사라졌다"며 "논의 구조와 절차, 집행위 회의 및 공유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불교환경연대의 공동대표와 상임대표는 집행위원회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집행위에서는 2월 예정된 총회는 물론 대표 선출에 관해서도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몇몇 집행위원은 현고 스님 사의표명 소식도 모를 정도로 무관심한 것이 불교환경연대의 현실이다.

당연직 집행위원인 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지부대표 법일 스님은 "지부는 지부의 역할에 충실히 할 뿐"이라며 "회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 없이 상임대표가 재정까지 맡아야 하는 조직에 쉽게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지회 대표 주경 스님은 "집행위원 회의를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 이메일 주소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도위원인 법응 스님도 환경연대의 움직임에 대해 갑갑한 심경을 토로했다. 스님은 "내부적으로 쓴소리도 안하고, 외부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위원장인 김포지회 대표 지관 스님은 "숲유치원으로 지도자를 양성하며 내부역량을 모으고 결집하는데 열의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 때 새만금 살리기 삼보일배, 청성산 살리기 단식 등을 통해 불교시민사회의 환경운동은 환경운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었다. 불교시민사회의 대표격이던 불교환경연대가 창립 10년 만에 해체 위기설까지 도는 이유는 뭘까?

불교환경연대는 여전히 수경 스님과 같은 막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누군가가 아미타불처럼 화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경 스님은 재정까지 책임지며 모든 것을 진두지휘했다.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 독단적인 시스템을 문제 삼아야 할 단체가 전근대적인 1인 체제 구조에 익숙해져 있었다.

법응 스님은 "불교환경연대의 문제는 곧 변화가 없는 조계종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불교환경연대의 존폐 위기는 결국 사회 변화를 도모하면서도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해 비롯된 문제이다. 자성과 쇄신만이 불교환경연대를 살릴 수 있다. **이상언 기자** kenichino@gmail.com

탐욕에 빛바랜 부다가야 고려사의 꿈

2200평 중 1400평 前 주지가 사기 매각

부처님 성지인 인도 부다가야에서 한국불교를 상징해 온 고려사 땅 70%가 사기 매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는 2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인의 사문서 위조에 의해 2200평 고려사 부지 가운데 1400평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밝혔다.

고려사는 1991년부터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을 중심으로 사부대중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일궈온 사찰이다. 1994년 조계종 총무원에 등록된 이후 원공 스님(속명 김종철, 현재 분한미필로 승적말소)이 주지를 맡아 운영해 왔다. 고려사는 인도 법률에 의해 현지법인인 '한국불교회(회장 현동화)' 소속사찰로 등기됐지만 원공 스님은 이사들의 싸인을 위조해 두차례에 걸쳐 땅을 처분했다.

정우 스님은 "1월 중순 성지순례차 신도들과 고려사를 방문했다가 고려사 땅 70%가 제3자에게 매각됐고, 고려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현재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사기행각으로 더 이상의 삼보정재가 유실되지 않도록 추가 매각 등을 막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개인의 사문서 위조로 고려사 부지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만큼 이를 되찾기 위해 호법부 · 인도 대사관 · 경찰청 등 진정서를 접수시켰다"며 "총무원이 새로운 재산관리인(도웅 스님)을 위촉한 만큼 고려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려사 주지였던 원공 스님은 고려사 부지 매각 외에도 불사 명목으로 통도사로부터 3500만원을 받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우 스님은 "원공 스님은 2008년부터 불사 명목으로 통도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왔다"며 "불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입금된 통장은 고려사 명의로 위장된 개인통장으로 불사금을 착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해외사찰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알리게 됐다"며 "한국불교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사기 매각된 부지를 되찾는 것 뿐만 아니라 미진했던 고려사 불사를 전격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823호 CONTENTS

▶5 인터뷰
동국대 17대 총장 김희옥



▶9 현장속으로
스리랑카 답사기



▶12 새연재
박재완기자의 사찰풍경 Ⅱ



▶20 정찬주의 행복한 선 여행



사령

수습해제



천 진 영 명) 편집국 취재부 기자

2011년 2월 7일 부







조계종 최초 초기불교 전문교육기관 설립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장 재 연 스님… "우리 교학·수행 체계에서 잃었던 고리 채운 것"

초기불교 전문교육기관인 불학승가대학원이 조계종 최초로 고창 선운사에 설립돼, 3월부터 학사행정을 시작한다.

불학승가대학원은 초기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의 승가교육기관 개선 일환으로 설립이 준비돼 왔다. 교육원은 설립을 원하는 사찰이 없을 경우 직영시설을 세워 운영하겠다고 밝혔을 만큼 불학승가대학원이 승가교육 개선사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컸다.

고창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장 재연 스님(사진)은 2월 7일 인사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학승가대학원 설립 취지와 운영 방침 등을 설명했다.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장 재연 스님은 실상사 주지 등을 역임하며 화엄학림을 이끌어 왔다. 스님은 화엄학림에서 초기·부파불교의 교과목을 운영해 학인스님들로부터 큰 반향과 성과를 얻은 바 있다.



재연 스님은 "불학승가대학원 설립은 우리 교학과 수행 체계 가운데 잃었던 고리를 찾아 채운 것과 같다"고 설립 의의를 밝혔다.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은 기존 4년제 승가대학(강원)을 대신해 설립됐다. 2년간 석사과정으로 운영되며 빨리어 삼장(경·율·론)을 교재로 수업이 진행된다. 국내 초기불교 트리오라 불리는 재연(율장)·환성(경장)·각묵(논장) 스님이 직접 교수한다. 또, 중앙승가대 미산 스님, 김포 용화사 지관 스님을 비롯한 국내 초기불교 연구자들이 교수진으로 참여한다. 실수는 불학승가대학원 학감 도정 스님이 담당한다.

재연 스님은 "불교를 바로 아는데 있어 초기불교 교학이 확고해야 대승불교·선불교에 대한 이해가 쉬워진다"며 "동북아 불교는 대승불교를 중시하지만 이로 인해 불교사 전체에 대한 이해는 물론 부처님 근본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불교를 바로 알려면 꽃과 열매라 할 수 있는 대승·선불교만 배울 것이 아니라, 뿌리인 초기불교 연구에도 소홀히 하면 안된다는 설명이다.

스님은 "우리는 그간 중국인의 시각을 거친 한문불전으로만 공부하거나 서양인이 기독교의 눈으로 빨리어 원전 등을 해석한 불교를 접해왔다"면서 "불학승가대학원은 우리의 눈으로 불교를 보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연 스님은 "27일까지 입학원서를 접수 받아 3월 중 10여 학인스님을 선발할 예정이다. 설립 초기라 보다 많은 인원, 특히 비구니스님이 함께 수학하지 못하는 것은 차후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부대중이 안거가 끝난 산철기간에 2~3주 과정으로 〈안반수의경〉 등을 선택해 오전 경전 공부, 오후 수행을 하는 프로그램 등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불학승가대학원 정규 과정과 부설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면 차츰 정규과정에 사부대중의 참가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초기불교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은 3월 4일 전형을 거쳐 17일 입학식을 봉행한다.

조동섭 기자

자승 스님 담화문 연속진단①-수행결사

알맹이 빠진 수행결사 열매 맺을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신년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한국 불교의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를 제시했다. 그러나 수행·문화·생명·나눔·평화의 5대 결사가 근본적 고민 없는 피상적 접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매주 각각 결사의 문제점과 한계를 조명해 본다.

근본 고민 없는 지엽적 접근… 수행 참 의미 되새겨야

조계종은 수행결사의 주요 내용으로 '본사별 결계 포살 시행', '승가복지 시행(수행기반 구축)',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불교계에서는 종단이 수행결사의 방향이 잘못됐고, 근본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본사별 결계 포살 시행'은 승려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이미 시행되고 있어 새로운 의제로 보기 어렵다. '승가복지'는 승려들의 수행 정진을 위해 필요하나 종헌·종규에서 강화해도 충분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토론회'는 토론회 범위가 광범위하고 참 수행을 위한 중요한 과제들이 있음에도 '수행결사'에 포함된 것은 종단의 의제 빈곤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불교환경연대 지도위원 법응 스님은 "진정한 수행결사를 위해서는 기복신앙 등 비불교적인 요소부터 삭제해야 한다. 현대인에게 맞는 수행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국 연경사회문화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위원도 현재 한국불교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반성없이 제시된 수행 결사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은 "수행결사라면 도덕성을 회복하고 대중을 위한 헌신의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 앞으로라도 계율을 잘 지키고 그렇지 못하면 환속시키는 엄격한 불교가 돼야 한다. 과오는 덮어버리고 도덕성 회복이라는 근본 문제를 외면한 수행결사에는 진정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결계포살은 수행의 첫 출발점이라는 중요성을 가진다. 이미 시행 중이지만 더욱 신장하기 위해 포함됐다. 승가복지는 수행과 포교에 있어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했다. 대토론회는 불교가 교리에 맞춰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다. 선방의 틀에서 벗어나 넓은 의미의 수행결사다"라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자정과 쇄신 결사는 시대적 소명

조계종 원로의원 진 제 스님, "적절하고 요긴한 선언"



"먼저 스님들이 철저히 수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조계종은 수행 정진과 선행에 소홀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수행을 게을리 하지 말아 화합과 수행의 불교로 거듭나야 한다."

조계종 원로의원 진제 스님(사진)은 2월 8일 대구 동화사 설법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자성과 쇄신 결사'에 관한 입장 발표 및 실천 방안을 제안했다.

진제 스님은 수행자로서 출가 본분으로 돌아가는 자세가 자성과 쇄신의 첫 걸음임을 강조했다.

스님은 조계종의 자정과 쇄신은 "타성에 젖어 출가정신을 망각하고 퇴굴심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대오견성(大悟見性)하기 위해 신명(身命)을 돌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국민 계몽과 홍보, 교육을 통한 민족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제 스님은 "민족문화유산 속 불교문화재에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관심과 지원을 다해 왔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제 스님은 불자들 스스로의 자성도 촉구했다. 스님은 "우리 스스로 문화재의 소중함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반성하고 자립적인 민족문화수호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고, 현행의 불리한 제반 제도와 관련 법안 등을 개선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조계종 5대 결사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요긴한 선언이었다"며 "안으로는 자성과 쇄신 결사가 밖으로는 소통과 화합이 돼 마치 두 수레바퀴처럼 굴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5대 결사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제시했다.

▷수행결사는 종단적인 정책 아래 재가자를 위한 시민선원을 활성화해 '생활선' '대중선'으로 국민 참선운동을 할 것을 제안했다. ▷문화결사에는 학문, 예술, 놀이 등 무형의 전통문화와 자연, 건축, 조각 등의 유형의 전통 문화유산을 잘 보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상언 기자

조·태 "선암사 연내 타결 하자"

9일 첫 협상 시작, 대면식 가져

58년간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규사찰로 남아있는 순천 선암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종단이 협상을 시작했다.

조계종과 태고종 협상대표들은 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순천 선암사 문제해결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대면식을 가졌다.

조계종 측에서는 선암사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일문 스님, 조계종 선암사 주지 덕문 스님, 총무원 재무부장 성월 스님, 총무원장 종책특보 정범 스님이 참석했으며, 태고종 측에서는 태고종 총무원 부원장 화경 스님과 총무부장 상하 스님, 태고종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 원로의원 지암 스님, 선암사 대중대표 청하 스님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이번엔 목사들의 조계사 땅밟기?

기독교인 4명 경찰 연행

목사를 포함한 개신교인들이 한국불교 총본산 조계사에 난입해 땅밟기를 시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공동대표를 자처한 이태근 목사 등 개신교인 4명은 2월 11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 긴급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정월 조상천도재가 한창이던 시간 조계사 대중들 앞에서 휴대용 확성기를 들고 '예수를 믿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들은 조계사 종무원들과 20여 분 가량 몸싸움을 벌이다 조계사 측의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노덕현 기자



이태근 목사(사진 오른쪽) 등 4명은 이날 조계사에서 진행된 천도재 중 망언을 일삼아 경찰에 연행됐다.

박구원 만평





4대강 공사현장
낙동강 낙단보 마애불

우리는 공존과 조화의 세상을 희망합니다.

낙단보 마애불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우리의 얼과 **민족혼**에,
더불어 살아가는
화합과 **나눔**의 가치에,
뭇 **생명**의 존엄성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반만년 우리 **민족의 젖줄**과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

오만과
독선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종교편향 정책과
오만과 독선으로 뭇 생명을 죽이는 死大江 사업을 결사 반대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사부대중 일동

민족문화 선양 앞장설 이 사람에 주목을…

불자로서 역사학자로 활동해 온 최광식 前 국립박물관장이 신임 문화재청장에 임명됐다. 불교미술에 푹 빠져있는 김영나 서울대 고고미술 사학과 교수도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활동폭을 넓혔다.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두 사람의 앞으로의 행보가 불교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나은 기자

학창 시절 월정사서 3000배 정진

최 광 식 신임 문화재청장



최광식 前 국립중앙박물관장이 2월 8일 문화재청장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광식 신임 문화재청장(58 · 사진)은 한국고대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로 국립중앙박물관 역사상 첫 역사학자 출신 관장으로도 유명하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임명된 최 신임 청장은 3년간 관장직을 역임했다.

그는 또 박물관장 재직시절인 지난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만찬장을 유치해 행정력을 인정받았다.

최 신임 청장은 역사학자 답게 국립중앙박물관을 유물 전시관에서 종합역사박물관으로 바꾸는 작업을 이끌었으며,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특별전' '고려불화대전' 등 크고 굵직한 기획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고려대학교 박물관장을 재직할 시절인 2000 ~2008년에 최 신임 청장은 북한 유물을 최초로 가져와 고구려전을 열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 인사가 수강한 '문화예술 최고위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전시, 기획을 열어 대학박물관의 이미지를 격상시켰다.

중국의 동북공정 사태가 터졌을 당시에는 이에 대항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의 전신 격인 고구려연구재단을 설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다.

최 신임 청장은 독실한 불자로도 유명하다. 최광식 청장은 고려대 재학 시절 학보사 기자로 월정사 취재를 나갔다가 그곳에서 3000배를 한 일을 계기로 독실한 불자가 됐으며, 그의 아들과 딸도 동국대 불교대학에 진학했을 정도로 신심이 깊다.

"재밌고 편안한 박물관 만들고 싶다"

김 영 나 신임 국립중앙박물관장



"어떻게하면 관람객들을 위해 편안한 박물관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나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가 지난 8일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임명됐다. 김영나 신임 관장(60 · 사진)은 11일 전화 인터뷰에서 "선친이 25년간 지켰던 박물관을 41년만에 막내딸이 맡게 돼 막중한 책임과 부담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신인 국립박물관의 초대 관장을 역임한 김재원 박사(1909~1990)의 셋째딸이다. 그의 언니는 불교 조각 연구 권위자로 평가받는 김리나 홍익대 명예교수(69)다.

1969년 경기여고를 졸업한 그는 울렌버그대에서 미술과를 전공, 오하이오주립대 대학원에서 미술사학 석 · 박사 과정을 마치고 서양미술사학회 회장, 한국미술사교육연구회 회장, 서울대 박물관장 등을 역임했다.

서양미술사를 전공한 김영나 관장은 불교미술의 우수성을 극찬했다. 김 관장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1970년대에 경주 석굴암을 가서 보았다. 석굴암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미술사를 배우고 난 후에 보니 '이게 참 대단한 조각이구나' 하면서 감명을 받았다"며 "우리나라 불교미술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느낀다. 첫째 언니를 통해 열심히 불교미술을 배웠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김 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획했던 '고려불화대전'이 너무 좋았다. 불교 미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교미술과 관련한 전시들을 연구 · 기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체적 난국 불교시민사회단체 '길을 잃다'

불교시민운동은 80년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통해 형성된 의식을 통해 교단의 전근대성과 비민주성을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종단개혁 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남북평화, 사회복지, 국제구호사업, 외국인 노동자 등 소수자를 위한 시민운동까지 확대하면서 대중적 관심을 받았다. 불교시민운동의 성장기에는 종단과 정부에 강력한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하는 것만으로도 대중의 호응을 얻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10년 이상 이어진 운동방식은 불교시민운동을 관성과 타성에 빠지게 했다. 현실 이해와 인식 부족, 시민운동 내부의 관료주의와 매너리즘 심화, 사회적 이슈 선점 실패,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축소로 인한 지도력 상실 등이 실패의 원인이 아니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사이 활동가들은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성장했고, 인터넷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이슈화하며 새로운 시민사회운동을 펼쳐가고 있다.

불교시민사회의 이런 현상은 최근 홍역을 앓고 있는 불교환경연대 뿐만 아니라 50여 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단체들의 공통된 고민이다.

과거 수경 스님과 지율 스님이 환경운동에 나서면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는 시늉이라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시민사회 운동의 영향력은 급감했다.

변화없는 운동 시스템 메아리 없는 외침
사회 실질적 변화와 흐름 대처 역량 요구

차명제 녹색재단 부대표는 "현재 시민운동의 위기는 헤게모니 창출의 실패이거나 현 정부의 성공적인 헤게모니 창출에 외로운 비명소리가 될 때도 많다.

조직과 활동가들의 역량 소진으로 집중도가 떨어진 것도 무시할 수 없다. 前불교환경연대 장재원 교육국장은 "천성산 살리기 운동, 새만금, 4대강 반대 운동 등 모두 목숨 걸고 한 일이지만 결국 정부의 추진안으로 실행돼 패배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고 밝혔다.

불교시민사회단체도 이웃종교 시민단체들의 이슈선점, 여론 주도권 상실에 대한 조급함과 강박관념이 조직과 활동가들의 힘을 다 빼놓은 결과다.

장재원 교육국장은 "사회 변화의 흐름을 읽고, 비판 및 견제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교육이나 캠페인 등의 사업을 함께 펼쳐 나가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일상생활과 신행활동, 시민운동이 전혀 다른 분야가 아니다. 교리와 신앙에 투철하면서 시민운동의 저변확대, 지속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 특히 이슈나 아젠다 이외에도 지구화, 정보화, 다문화, 지식사회, 저출산, 노령화 등을 연구해 운동의 내용과 형식, 조직운영과 회원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이 요구된다.

이상언 기자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대중이 민족문화 향유할 문화센터 만들자"

유대인 문화센터 벤치마킹 제안



뉴욕 맨해튼 92번가에는 연간 30만 명이 찾는 문화센터가 있다. 이곳에서는 매일 교육, 공연, 강좌, 춤, 음악, 예술, 문학, 영화, 체육 등 200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소위 지성인들이 모인다는 이 곳은 예술 공연과 저명인사의 강연으로 늘 북적댄다.

이곳은 1874년 독일계 유대인 사업가에 의해 설립됐다. 비영리기관인 '92가 청년유대인 연합회'가 설립했다고 해서 Y문화센터(92nd Street Y · 사진)라 불리기도 한다.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이 같은 유대인이 설립한 문화센터를 불교에서 벤치마킹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글을 게재한 B씨는 "'92nd Street Y센터'는 맨해튼에서 제일가는 문화센터이다. 이곳은 종합대학을 방불케 한다. 교육, 공연, 강좌, 문화, 운동, 청소년, 유아를 통합한 종합교육시설이다"며 "Y문화센터는 예술공연과 저명인사의 강연은 늘 매진이고 티비나 신문에서 자주보는 인물들이다. 정규대학은 아니지만 사회교육기관으로서는 최고임을 자부하는 곳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어 "특히 유대교 활동은 전체 프로그램의 10% 안팎이다. 이것이 주류의 문화센터라면 비주류들의 센터는 인종별로 분산돼 있다. 인종을 넘어선 곳은 오픈센터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주로 정신, 치유, 요가, 명상 등 영적 계발을 위한 강좌들이 많다. 이곳은 사설기관이지만 불교강좌에 대한 인기가 대단하다"고 말했다.

B씨는 조계종에서 불교를 앞세우지 않고 문화관을 운영하는 것이 포교의 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가톨릭과 개신교가 하고 있지만 그들을 제외한 국민들이 부담 없이 방문해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도 좋은 포교라고 본다"며 "이미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을 것도 없다.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연속성이다. 종단의 수장이 바뀌어도 흔들림없이 운영할 주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불교진흥원이 가장 적합하다"며 "92nd Street Y를 벤치마킹해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센터가 탄생하길 발원해 본다"고 했다.

B씨의 의견 제안에 누리꾼들은 공감을 표시했다. 한 누리꾼은 "문화를 통한 불교 메시지 전달은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전적으로 공감하나, 이러한 문화센터는 수익성 차원에서 어렵기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과 보조금 대책이 선행되야 한다"며 "카톨릭의 투명한 재정 운영 시스템을 불교계도 심도 있게 연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나은 기자

2011년 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 공고

3월 11일까지 접수…
5대 결사 관련 프로그램 가산점

2011년 불교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이 2월 14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공모사업은 불교시민사회단체 지원 및 활성화를 통한 사회발전과 불교의 사회참여 종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공모분야는 통일, 국제, 환경, 종교평화, 사회통합 분야에 적합한 내용이면 가능하고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5대 결사(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선정은 분야별 대상과 차상을 뽑아 지원비를 차등 지원하며 선정된 사업 중 우수 프로그램은 종단 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신청은 대사회 공익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비영리 불교시민사회단체면 가능하다. 2개 단체 이상의 컨소시엄도 지원 가능하다. 이주민 및 다문화 관련 사업은 마하 이주민 지원단체 협의회에서 주관한다.

올해 지원 예산은 총 4500만원이며 접수기간은 2월 14일~3월 11일까지다. (02) 2011-1829

박기범 기자



불화 수월 관세음 보살圖

중생의 고(苦)를 다 해결하신후에 열반에 들겠노라 원을 세우신 관세음보살님은
언제 어디에나 여러 모습으로 중생들 속에 나투시고 계십니다.

10점이상 구입시
10% 할인해 드립니다.

불자들은 고통이 있을때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염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불자가운데 많은 분들이 관음보살 그림을 가정에 두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상이나 그림상 속에 불보살님의 마음이 있는줄 잘 못 알고 사찰이 아닌 곳에 있는 불상이나 그림상에 기도, 염불, 절 또는 예물을 올려 잘못되는 불자가 있지나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일부 스님들이 가정에 상을 두고 모시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마음에 관한 것이지 물질이나 상은 허망하여 공하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보살님의 마음이 물질로 된 돌, 나무, 철 이나 그림으로 된 상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불보살님께 크나큰 불경이되며 염불을 하더라도 공염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보살님의 마음은 살아 숨쉬며 믿고 생각할 줄 아는 중생의 마음안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이 곧 부처임을 배워 알면서도 우리들 중생이 어리석어 믿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불상이나 그림상을 보며 마음속에 불보살님의 마음이 같이 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마음속의 불보살님께 기도, 염불, 절을 하면 그 즉시 전달이 됩니다.

불자라면 관세음보살 그림상 1점 정도는 눈이 자주 가는 곳(좋은 자리가 아님)에 두고 볼 때마다 염송을 한다던지 기도 등을 하고 모든일이 잘되면 감사한 마음으로, 잘되지 않을 때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것이라 믿고 관하는 것을 생활화 한다면 이것이 곧 생활선이 되어 자연 고는 사라지고 망념이 끊어져 성불에 다가설수 있을 것 입니다. 그동안 본인은 많은 사찰의 탱화를 조성하며 공부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으나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불자의 한사람이지만 불자 가정에 불화 1점 없는 것이 항상 안타깝게 생각되어 본인의 재현 작품중 고려불화 가운데 설화를 바탕으로 그려진 수월관음도의 작품성이 뛰어나 이를 축소 하여 벽에 걸거나 탁자에 둘수 있도록 고급으로 제작 권하고저 합니다.

불자님들의 가정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고 하루 빨리 성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불모 민한식 합장

대불성지공원건립 발원

불법을 배울 수 있고! 인성을 바로 할 수 있으며! 심신의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성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세계적 규모의 삼존대불(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좌상을 테마로 한 공원 건립을 추진하려 합니다. 불사에 뜻을 두고 계신분이나 불사목적으로 토지 (실소요면적 약 6만평)을 소유하고 계신분이 있다면 본사업 추진을 위하여 모시기를 원합니다.

작품규격 : 28cm × 43.5cm
재 질 : 원낫원목 / 아크릴(표면) (벽걸이 탁상용 겸용)
가 액 : 12만원 (택배비 포함)

일심공예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77-10 301호
031)421-1040 |
010-2284-7395 | 010-7158-0004
계좌번호 : 농협 356-0413-3251-63 (예금주 : 민한식)

불모 민환식 대표작 ▼

조계사 대웅전 신중탱화 3.3×4.84m
조계사 덕왕정 극락탱화 8.8×2.7m
조계사 대웅전 영단탱화 13×2.1m
조계사 2만불 조성 (석가아미타사불, 관음지장보살) 17×15×24cm

일 주 문



생명나눔실천본부 생명나눔 떡 나누기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안국역에서 2월 11일 장기기증희망안내소 개원 1주년 및 설맞이 생명나눔 떡나누기를 진행했다. (02)734-8050



능인학원 제 70회 졸업식
능인학원 이사장 종광 스님은 2월 9일 능인고등학교 대강당에서 능인학원 제 70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고운사 구제역 가축 천도재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1월 31일 본말사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희생 가축 천도재를 봉행했다.



탄허대종사 99주기 탄신다례제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2월 17일 월정사 적광전에서 탄허대종사 99주기 탄신다례제를 봉행한다. (033) 339-6621



대구 용궁사 원각 스님, 법무부장관표창
대한불교서각종총무원 대구 용궁사 총무원장 원각 스님은 구랍 30일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10년 간의 교정교화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청룡사 논산훈련소 법당 건립 지정 기탁
서울 청룡사 주지 진우 스님은 2월 9일 논산훈련소 법당건립과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자비나눔 기금 1500만원을 2월 9일 아름다운동행에 지정 기탁했다.



연우와함께, 민족문화수호기금 전달
이상근 연우와함께 대표는 2월 7일 조계종 총무원에 설맞이 상품 판매 수익의 5%인 1000만원을 민족문화수호기금으로 전달했다.



포교사단 좋은인연 정기총회
임희웅 포교사단장은 2월 14일 서울 포교사단 교육관에서 좋은인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인사〉 조계종 사서실장 심경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11일 사서실장으로 심경 스님을 임명했다.
심경 스님은 정무 스님을 은사로 1969년 용화사에서 영신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했다. 봉림사 주지, 만기사 주지, 반야사 주지, 영월암 주지, 총무원 재무부장, 총무원 사서실장을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석굴암 복원했던 한국 미술사학계 큰 별 지다

前 동국대 총장 초우 황 수 영 박사 타계



한국 미술사학계의 거목인 초우(蕉雨) 황수영(黃壽永 · 93) 박사가 2월 1일 별세했다.

황수영 박사는 한국전쟁 동란의 폐허속에서 평생을 미술사학 발전과 문화재 발굴에 헌신해 한국문화 전반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절터에서 숱한 문화재를 찾아내고 복원했으며, 또 현재 불교미술을 이끄는 수많은 연구자를 길러내 불교의 문화유산이 황수영 박사를 통해 보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평가를 받는다.

1918년 태어난 고인은 식민지시대 경복중학교와 일본 마쓰야마(松山) 고등학교를 거쳐 1941년 도쿄제국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다. 이곳에서 우현 고유섭(1904~1944) 선생을 만난 고인은 광복 후 한국으로 돌아와 개성상업중학교 교감으로 일했으며, 1847년 국립박물관 박물감을 지내며 미술사학자의 길을 걸었다. 1956년 동국대 교수로 임용돼 박물관장과 대학원장을 거쳐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이 대학 총장을 역임했다.

1959년 서산마애삼존불상을 발견했으며 1962년에는 석굴암 보수공사의 총책임자로서 진두지휘했다. 1966년에는 익산 왕궁리 석탑 발굴, 1967년에는 문무대왕의 해중릉 대왕암 발견 등 수많은 문화재를 발굴해냈다.

황수영 박사가 미술사학에 매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스승에 대한 존경과 그 가르침에서 비롯됐다. 우현 고유섭(高裕燮:1905~1944) 선생으로부터 미술사를 배운 황수영 박사는 1944년 스승의 임종 때 '스승의 뒤를 잇겠다고 맹세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지난해 타계한 동갑내기 진홍섭 박사, 그리고 최순우(1916~1984) 전 국립박물관장과 같은 북한 개성 출신으로 한 문하로 '개성 3인방'으로 불렸다.

고인의 족적은 단순히 문화재 및 미술사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문화와 교육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했다. 1962년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1981년에는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오랫동안 활동했다. 이 기간 한 · 일 국교정상화회담에서 문화재 반환협상의 실무대표로 활약하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85년에는 하성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아 동국대 총장을 지낸 저명한 역사학자 이선근 박사 추모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1996년에는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 선정에 대한 합동조사단장을 맡아 경주 외곽노선을 관철시켰다.

고인이 발표한 논문은 400여 편, 저술은 50여 권에 달한다. 대한민국 홍조근정훈장 · 국민훈장동백장, 5 · 16 민족상, 자랑스러운 박물관인상 등을 받았으며, 제자로 정영호 단국대 석주선박물관장, 김동현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이호관 前 국립박물관 미술부장 등이 있다.

고인은 평소 "우리 문화재는 하나하나가 저마다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불교미술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어찌 현장을 소홀히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영호 단국대 석좌교수는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학문의 정확성과 현장 조사의 중요성은 후학들이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02)3410-3151 노덕현 기자

이규택 경서원 대표 지병으로 타계

불자지식인 양성에 앞장 불교계 애도 줄이어



불교출판계의 버팀목이던 이규택 경서원 대표(사진)가 지병으로 2월 4일 타계했다. 발인은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2월 8일 을지로 백병원에서 진행됐다.

1965년부터 출판일을 시작한 이 대표는 1978년부터 30년 이상 현 견지동 55-2번지를 지켜왔다. 조계사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5~6평 규모의 경서원은 책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찾는 불자들의 고향이었다.

이규택 대표가 경서원을 설립해 맨 처음 펴낸 책은 지금은 절판돼 구할 수 없는 〈반야심경 강의〉(한길로 지음, 1965)였다. 또한 오경웅(John C.H.Woo)이 엮고 류시화가 번역한 〈선(禪)의 황금시대〉는 경서원의 대표적 베스트셀러다. 이 책은 1986년 초판 발행돼 2005년 재간행되며 10만부의 판매고를 올렸다.

경서원은 대중적인 서적보다는 일본 · 인도 · 티벳 불교 서적 번역본에서부터 학술서적을 주로 출판해 왔다. 2008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규택 대표는 "불교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불자 지식인들을 많이 키워야겠다 싶어서 학술 서적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규택 대표는 또 생전에 "조용하게 책방과 출판사를 지켜가겠다"고 말해왔다. 불교 출판 활성화를 위해 흘린 그의 구슬땀은 이제 며느리 김현희씨가 이어간다. 이 대표는 2007년 말부터 며느리 김현희씨에게 경서원의 업무를 전수해 왔다.

이규택 경서원 대표의 타계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교계는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2월 6일 이 대표에게 조의를 표하며 "이규혁 대표의 출판 정신을 기리고 그 공로를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는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던 분이었다.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분이었는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학번 · 취미 · 지역 모임별 소모임 활성화"

창립 53주년 맞은 서울대 총불교학생회 이 희 세 회장

"소모임 그룹을 활용해 53주년을 맞는 서울대총불교학생회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대총불교학생회동문회장으로 선출된 이희세 회장(55 · 사범대 국어교육과 76학번)은 이 같이 신년계획의 포부를 밝혔다.

서울대총불교학생회동문회(이하 총불) 1958년 법대 불교학생회로 출발해 초기 한국청년불교의 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공헌을 했다. 1960년대 총불은 한국 대학생 불교연합회를 조직하여 출범시켰으며 1970년대에는 불교계에서는 최초로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 동시에 학교 내에서는 1990년대까지 중앙동아리에 속하는 유일한 불교학생회로서 서울대내 불자학생들이 단합하고 결속할 수 있게끔 기여했다.



현재 총불은 상반기에는 재학생과 체육대회를, 하반기에는 재학생 후배들과 창립제에 참가를 하며 연말에 송년회행사를 하고 있다. 또한 격월로 1회씩 독서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비정기적으로 사찰 방문모임을 가지며 동문 간의 결속을 다지고 있다.

여기에 이희세 회장은 각종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학번 · 취미 · 지역별 소그룹모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활동의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며 "이를 위해서 총불 회원들의 연락망을 업데이트 하고 홈페이지(www.seoulbuddha.net/)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불은 재학생들에게 장학금과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후배를 양성하고 재학생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 회장은 "매년 여름 · 겨울방학 수련대회와 기타 활동 경비를 지원하고 창립50주년을 맞던 해인 2008년부터 단과대학별로 활동 중인 불교학생회 회장들에게 동문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불은 지난 2008년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서울대총불교학생회동문회 관악센터 건립을 선포했다. 이 회장은 자신의 임기동안 발전기금 3억원 적립을 완수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이나은 기자

제9회 유심작품상 수상자 발표



강은교



홍영희



김일연

제9회 2011 유심작품상 시부문에 강은교 씨의 '희명' 시조부문에 김일연 씨의 '묵매(墨梅)' 평론부문에 홍영희 씨의 평론집 〈통일시대와 북한문학〉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부문 수상자인 강은교 씨는 1945년 출생으로 43년 째 활동하고 있는 중진 시인이다. 연세대 영문과 및 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아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시조부문 수상자인 김일연 씨는 1955년 출생으로 1980년 〈시조문학〉으로 등단했다.

평론부분 수상자인 홍용희 씨는 1966년 출생,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석 · 박사, 1995년 중앙일보로 등단했다.

시상식은 2011년 8월 만해축전 기간 중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각 1000만원의 상금이 전달된다. 이상언 기자

한국불교예술대학 학인모집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제9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범패 · 소리과정 :** 기본 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 (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1년과정 – 매주 화요일)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 **작법 · 무용과정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1년과정 – 매주 목요일)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강 사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일 초 스 님

● **개강일시** : 2011년 3월 15일 (화요일) 오후 3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 요일 :** 화요일, 목요일 – 오후 3시 ~ 5시
● **접수기간 :** 2011년 2월 ~ 2011년 3월 10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 (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 국 불 교 예 술 대 학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1-10호 인해빌딩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동소정사거리 부평6동 우체국 옆)
전 화 : 032)529-6708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본 대학 http://www.bumpae.org /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제2건학 통해 동국대 중흥 이루겠다”

모교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신 총장직 택한 동국대 제17대 김 희 옥 총장



“동국대의 전 부분을 105년 전 개교 당시의 건학이념과 목적에 비추어 재검토해 제2의 건학을 통한 학교 중흥을 이루겠습니다.”

동국대 제17대 총장으로 2월 22일 취임을 앞둔 김희옥 총장(前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0일 동국대 만해관 총장직무준비단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소회와 학교 운영기조 등을 밝혔다.

동국대의 건학이념은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 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 사회의 구현”이다.

김희옥 총장이 강조하는 ‘제2건학’은 교육과 연구의 인적 · 물적 인프라 확충을 통한 글로벌 엘리트 육성과 대학 위상 제고를 통한 명문 사학으로서의 입지 확립을 골자로 한다.

대학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학교 홍보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희옥 총장은 “교수들이 언론접촉을 넓혀야 한다”면서 “홍보팀 신설 등 전략홍보실을 확대 개편해 학교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동국대가 육성할 글로벌 엘리트는 진취적 지도자 · 창조적 지식인 · 도덕적 현대인을 뜻한다”며 ▷학문구조 혁신 ▷교육방법 선진화 ▷국제화 수준 제고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취임 후인 3월 15일경 동국대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동국대는 나의 모교”

김희옥 총장은 “불교계 한 인사의 요청으로 동국대 총장 후보에 나설 것을 제의받았다. 임기제 공직자인 헌법재판관직을 자의로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러움도 컸지만, 모교에서의 총장직 수행이 다른 공직에 못지않은 가치와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장은 “인생에 있어 가장 큰 고민을 했던 시기가 총장 후보 출마를 고민했던 지난해 11월일 것이다. 고심 끝에 나의 경험과 남은 힘을 불법 홍포와 교육, 모교인 동국대 발전에 바치기로 결심했다”며 헌법재판소를 그만두고 동국대를 선택한 계기를 설명했다.

#“집안 대대로 불자”

김희옥 총장의 고향은 경북 청도이다. 불교집안에서 운문사와 대비사, 옥련암 등 절을 다니며 자랐다. 사법시험 준비도 해인사 홍제암, 청계사, 회암사 등 절에서 주로 했다.

김 총장은 “산사에서 자고 새벽에 일어났을 때 느끼는 그 고요함과 평화, 엄숙함과 자비로운 분위기는 잊을 수 없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희옥 총장은 큰스님과의 인연도 깊었다. 대학 재학 시절 대학선원장(現 정각원장)이던 탄허 스님의 〈금강경〉 법회와 청담 스님의 삼보법회 등을 다니며 법문을 들었다. 회광 승찬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고 ‘불이’라는 법명을 받았고, 혜암 스님으로부터 ‘태허’라는 법명을 받았다. ‘당래’라는 법명은 1997년 설악산 신흥사 회주 오현 스님에게서 받았다.

김 총장은 1995년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사법연수생을 모아 신행단체 ‘다르마 법우회’를 만들었을 만큼 신심 깊은 불자이다.

김희옥 총장은 공직 시절 동안에도 부인과 도선사를 다녀오면서 동국대에 들를만큼 애교심도 남달랐다.

#“재정문제 해결 시급”

김희옥 총장은 지난해 12월말 헌법재판관 직에서 퇴임한 후 금년 1월 초부터 매일 총장직무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현황 파악과 대학운영을 구상 중이다.

김 총장이 1개월 여의 학교 현황 파악 끝에 내린 동국대의 문제는 열악한 재정상태였다.

김희옥 총장은 “학교 운영시스템은 잘 갖춰진 것으로 판단되나 시급한 부분은 교지 매입과 건축공사에 따른 재정문제이다. 그동안 동국대의 발전을 저해한 것은 교지, 교사의 부족문제”라고 진단했다. 우수한 교수를 초빙해도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원에 우수한 학생이 입학을 꺼려하게 됐고 결국 낮은 연구성과를 낳는 악순환이 거듭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동국대는 서울캠퍼스에 12월 완공을 목표로 1.5만평 규모의 신공학관과 기숙사가 건설 중이다. 일산캠퍼스에는 미래성장동력분야인 바이오메디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이미 산학협력관이 준공됐고 약학관과 종합강의동이 건설 중이다.

김 총장은 “재정문제에도 불구하고 동국대가 유수의 대학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업과 운동장 및 수영장 매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희옥 총장은 “제2건학 차원에서 운동장 · 수영장 땅 한평 사기 운동 등 다양한 모금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조계종과 불자, 동문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재 동국대 운동장과 수영장은 서울시 소유이다. 김 총장은 2만여 평 규모의 동국대 운동장과 수영장을 매입해 서울캠퍼스를 변모시킬 계획이다.

#“로스쿨 유치 준비하겠다”

김희옥 총장은 후보시절 소견 발표에서 로스쿨 재추진 의사를 시사한 바 있다. 당시 이를 두고 교계 안팎에서는 현실적으로 동국대의 로스쿨 재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론이 대세였다.

김 총장은 “유일한 불교종립 종합대학인 동국대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매우 불균형적인 결과”라며 “언젠가는 있을 기회와 가능성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동국대 발전이 불교계 발전”

김희옥 총장은 “조계종 유일의 종합대학이 동국대이다. 동국대의 발전이 불교계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종단은 종단 운영을, 재단은 산하학교 운영을, 동국대는 우수 연구성과 창출 및 우수인재 배출의 역할을 갖고 있다. 각각의 역할에 충실할 때 불교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며 “종립대 총장으로서 사부대중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 동국대의 재정확충과 교육, 연구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불교학 연구 중심으로 육성”

김희옥 총장은 “동국대를 세계 불교학 연구의 중심으로 육성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불교학술원’을 세계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성장시키고, 불교대학은 불교사관학교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김 총장은 “학인스님 기숙사인 백상원이 완공되면 승가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불교학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총장 사업 일정부분 계승하겠다”

김희옥 총장은 오영교 현 총장이 추진해온 사업을 대부분 계승할 방침이다.

김 총장은 “어느 국가, 사회, 조직이든 하루아침에 무언가를 뒤집고 급격하게 바꾼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나는 동국대 105년 역사 중에 4년 임기를 지낼 뿐이다. 총장 바뀐다는 것 별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희옥 총장은 “지금까지의 제도는 승계하되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 · 수정할 것은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국대가 ‘재단전입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 대학’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인연·연기가 내 인생관의 핵심”

김희옥 총장은 “나는 동국대에서 배워서 법조인이 됐고, 최고의 자리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지냈다. 그보다도 대학 재학 시절 스님들을 많이 만나고 불교학개론을 배우고 법회에 참여하면서 세상을 바로 보는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라고 말했다.

동국대를 졸업하고 불자로서 생활하며 얻은 인생관을 묻는 질문에 김 총장은 무인도에 떨어진 로빈스 크루소를 이야기했다.

김희옥 총장은 “무인도에 혼자 사는 로빈슨 크루소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진정한 사람은 언제나 이웃과, 주변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인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총장은 “나의 행위가 남에게 도움이 되고 배려가 됐을 때 사는 보람을 느낀다. 거기에 집중하자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인된 자세로 진정한 소통 이루겠다”

김희옥 총장은 소통을 강조했다. 소통은 대화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도 말했다.

김 총장은 “내 의견을 듣는 상대가 100% 내 의견을 수용해줘야 한다는 것은 진정한 소통이라고 할 수 없다. ‘듣는 척하고 수용 않았다고 해서 소통 않는다’는 말도 맞지 않는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듣는 것조차도 소통”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희옥 총장은 “〈화엄경〉 〈금강경〉 등 경전을 비롯해 의상조사의 법성게는 읽을 때마다 많은 영감을 준다”고 소개했다.

김 총장은 “특히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머문 곳 마다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마다 진리가 되라)’이 쓰인 족자를 사무실에 줄곧 걸어두고 되새기며 살아왔다”고 말해, 임기 4년의 동국대 총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주인된 자세로 동국대 중흥을 위해 힘쓸 것임을 밝혔다.

김희옥 총장의 취임식은 22일 오전 11시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봉행된다.

글=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사진=박재완 기자

이 생에 깨달아 성불하는 활인참선
삼매체험 안성맞춤 활인선원 참선수련회
정진대중 모집 동·하안거 – 산철 참선 재가자
개인 점검 지도
단식 · 참선
다이어트 1일 최고 3kg
면역력 강화
청소년 · 대학생 · 일반
*수 련 회 : 5일
*단기출가 :
30일, 50일, 100일
· 2월 21일 ~ 25일
· 3월 25일 ~ 29일
• 물만 마시고도 당뇨병 · 고혈압 · 성인병 · 난치병을 퇴치 예방 가능
• 면역성 노화방지 · 아토피 · 생리관계 · 요요현상 없음
• 공부힘을 얻어 대자유인이 되어 주인의 삶을 살 수 있음
• 장애에서 벗어나게 됨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667번지
☎ 1644-5266, 070-7519-9929
참선전문도량 행복제작소
활 인 선 원
네이버카페 활인선원

깨달음은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밍규르 린포체 방한해 강연

"종교가 있든 없든, 불자이든 아니든, 명상은 특별한 사람만이 배울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다. 명상을 통한 자신의 불성을 찾는 일은 어두컴컴한 방의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다."

달라이 라마 이후 티베트 불교의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별칭을 얻은 욘게이 밍규르 린포체(36 · 사진)가 한국을 방문했다.

용수 스님 등 제자들의 초청으로 방한한 욘게이 밍규르 린포체는 2월 9일 인사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티베트 불교도 한국 불교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본성을 찾는 수행을 한다. 수행을 하면 자신의 불성(佛性)을 알아차려 행복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인도-홍콩-일본 일정을 거쳐 한국을 방문한 밍규르 린포체는 14일까지 백담사와 봉녕사를 찾았다. 12일에는 수원 공소사, 13일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중 법문을 했다.

욘게이 밍규르 린포체는 1975년 네팔 누브리 계곡에서 출생했다. 3세 때 17세기 명상 수행자이며 대학자인 욘게이 밍규르 도르제의 7대 환생자로 밝혀졌다. 동시에 1950년대 중국의 침략으로 고향에서 추방된 위대한 티베트 스승 캉규르 린포체의 환생으로도 인정됐다. 뛰어난 두 스승이 밍규르 린포체의 육체로 동시 환생한 것이다.

밍규르 린포체의 아버지 툴쿠 우르겐은 '위대한 완성'이라 불리는 티베트 불교의 족첸 수행을 세상에 알린 스승이다.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한 밍규르는 아무런 가르침을 받지 않았음에도 어려서부터 혼자서 집 뒤 히말라야의 동굴로 올라가 명상을 하곤 했다.

밍규르는 극도로 예민한 감성을 지닌 탓에 유년시절 공황장애와 소심증, 대인공포증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수행으로 이를 극복했다.

밍규르는 "까규파에서는 '내가 누구인가' '마음이 누구인가' 등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마음의 불성을 찾는 수행을 하고 있다"며 "마음의 불성과 인연을 맺고 그럼으로써 본성을 이루고 모든 중생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깨달음에 대해 밍규르는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어두운 방의 스위치를 찾으려면 '알아차림'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깨달음은 매우 단순하다. 어느 어두운 방을 습관적으로 지나다니면서 탁자, 의자, 그 밖의 가구에 부딪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하루는 운 좋게 혹은 우연히 전등을 켜는 스위치나 버튼을 건드리고 지나간다. 그 순간 갑자기 방 전체와 그 방에 있는 모든 가구들을 보게 되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 '여기 이 많은 물건들 좀 봐! 내가 이 물건들에 부딪힌 건 당연한 일이야!' 그리고 그 물건들을 보면서 아마 최초로 그것들을 본 놀라움과 더불어 전등 스위치가 늘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가 단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다. 혹은 방이 어둡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깨달음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어둠 속을 더듬고 지나다니면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방에 불을 켜는 것이다."

밍규르 린포체는 "수행을 하면 나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스스로 유연해지고, 변화할 수 있다. 부처님 말씀처럼 뇌도 변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며 "뇌신경과학자들도 수행하면 면역성도 높아져 건강이 좋아지고, 특히 심장병에 좋은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욘게이 밍규르 린포체의 저서 〈Joyful Wisdom〉은 2009년 뉴욕타임스와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전 세계 13개국의 언어로 출간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티베트의 즐거운 지혜〉(문학의 숲 刊)이름으로 출간됐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특별기고〉

내가 꿈꾸는 불교수목원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숲에 대한 관심이 확산됐다. 한국도 1990년대 이후 산림관리 차원을 넘어 휴양 및 치유의 숲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돼 수목원과 휴양림이 속속 설립 운영되고 있다. 불교도 수목원 설립에 뜻을 모아야 한다.

불교는 삼보가 숲과 함께 해온 숲의 종교다. 불교의 정체성과 포교강화를 위해서도 불교수목원은 있어야 한다. 경전에는 많은 식물들이 등장하는데, 한국불교가 불교수목원을 설립해 멸종 위기의 불교식물을 보전하는 것은 당연한 사명이다. 일부 사찰의 대형불사로 숲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수목원 조성을 통해 '숲을 살리고 생태를 보전하는 종교'로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놓을 수 있다. 현재 사찰림 관리와 사찰 조경식생에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는 바, 수목원을 조성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

불교수목원 설립의 주체는 현실적으로 조계종이 가장 적임자이다. 재원은 불교계 재원과 정부 보조로 한다. 불교계 재원이란 재무구조가 튼실한 조계종 대형사찰과 천태종 등 각 종단이 투자 형식으로 협연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불교법인체나 불자들의 정성이 보태지면 더욱 좋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수목원의 사업성에 의문을 갖지만, 불교는 비교적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넓은 사찰림이 전국에 산재해 있어 수목원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도 절반은 줄일 수 있다. 또, 조성 후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비롯해 묘목 판매, 기술과 연구용역 등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 조성 후 5년이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목원 개방은 완공 후에 일시에 개방하는 것보다 쉬운 것부터 3단계로 나누어 개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수목원의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수익창출이 빠른 것부터 개방을 시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치유 · 휴양 · 명상의 숲 · 수목장 조성이나 숲생태교육원 운영 등은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먼저 개방해 수익을 앞당겨 창출할 수 있다.

불교 수목원은 소규모의 테마 수목원이 아니라 1600만㎡(약 50만평) 이상의 '수목원+휴양림' 형태의 다목적 종합수목원이 바람직하다. 불교수목원 조성은 적지 선정이 중요하다. 아열대식물원과 편백 삼나무 숲 조성이 가능한 충남과 호남 지역이 무난하다.

필자는 불교의 주체성을 살리고 시대적 역할을 다 하려면 상징적 사업으로 불교수목원이 특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종단의 결단력과 사부대중의 의식전환이다.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 대표)



오대산 월정사 숲길

불교경전연구회, 통광 스님 강의 회향

3월 17일, 설우 스님 〈금강경오가해〉 강의 진행



"경전 연구를 잘 해도 수행하지 않으면 약 지어놓고 먹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2년 8개월 동안 불조의 조상어록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견성해서 인천의 스승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시작한 스님의 공부모임인 불교경전연구회(회장 무각)의 2년 결사 경전강좌가 1월 26일 회향했다.

불교경전연구회는 2년 8개월간 통광 스님(하동 칠불사 주지)을 강주로 〈진심직설〉 〈몽산법어〉 〈이입사행론〉 〈증도가〉 〈간화결의론〉 등을 진행했다.

2년 여 동안 서울 · 경기와 아산 · 강릉 지역 등 각지에서 서울 옥수동 미타사로 모인 50여 명의 스님들은 3시간 동안 진행된 마지막강의에 끝까지 집중을 다해 수강했다.

〈증도가〉를 마지막 강의 주제로 진행한 통광 스님은 "이곳에 모여 수강하는 스님들은 한 지역의 스승인 일방사로서 포교일선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먼 곳까지 와서 경전 어록을 공부한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라며 "배우는 것도 좋지만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수행해 참된 것을 깨닫고 의지해 나간다면 견성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지도하는 법력이 생긴다. 그러니 말에 그치지 말고 부처님 진리를 깨치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경전연구회는 3월 17일 목요일 오후3시 미타사에서 청주 법인정사 선원장 설우 스님을 강주로 제8회 경전강좌를 진행한다. 경전강좌는 매달 3째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되며 설우 스님은 1년간 〈금강경오가해〉를 강의할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불교 역경지원 사업이 종교 편향?

서울신학대 박명수 교수 망언

박 교수는 크리스천투데이 2월 3일자에 '성경 번역은 자비량으로, 불교 경전은 정부 돈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기고문에서 박명수 교수는 "불교의 역경사업이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며 동국대 불교역경원을 예로 들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특정종교 지원을 부담스러워하던 정부가 학교법인인 동국대에 불교역경원을 설치해 정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정부 도움을 힘입어 역경원은 2001년 318권에 이르는 팔만대장경을 한글로 번역했다. 기독교의 성경번역사업이 내부 재원으로 진행된 것과 다르다"며 불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치켜세웠다.

이와 관련 불교계 관계자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종교 편향적, 불교 폄훼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이들이 불교에 대한 몰이해와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학창 시절 마지막 추억마저 종교자유 박탈

경기 고양 정발중 졸업식서

고양시 정발중학교가 졸업식을 지역 내 교회 부설 공간에서 진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정발중은 제16회 졸업식을 2월 10일 지역 내 예담교회 부속 예담아트홀에서 가졌다.

종교적 색채가 뚜렷한 교회에서 졸업식이 진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관할 관청인 고양교육지원청도 학교 측에 졸업식 장소 선정 경위와 사유를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강당이 없는 정발중은 졸업식을 위해 지역 내 공연장 등 여러 시설을 알아봤지만 대관료가 비싸 무료 대관이 가능한 예담아트홀을 선정했다.

국선자 정발중 교감은 "아트홀 내부에 십자가나 종교를 상징하는 시설물이 전혀 없었다. 조회 · 종례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졸업식 장소 선정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2011학년도 안정불교대학(전통강원/범패학과) 신입생 모집



본 대학의 설립목표는 부처님의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심오한 불교의 진리를 체득케 하고 원만광대한 원력으로 보살도를 실천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학문과 수행을 겸비한 올바른 승가상 확립과 지혜와 자비를 갖춘 자아완성이 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본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실한 법음을 받아 지니고 한국불교의 전통을 이어 수행코자 하는 참된 불제자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도량으로써 신라 천년고찰인 청련사(안정사) 대가람에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진을 모시고 기존의 범패학과와 더불어 전통강원의 전 교과 과정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출가자와 재가자를 막론하고 교육과 수행풍토의 진작을 통해 참다운 부처님 나라를 건설할 불교인재를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니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입학 응시를 바랍니다.

1. 교육과정 : 범패학과 (범음 · 범패)

학년 / 학기	1학기	2학기
1학년	-기초 과정-	
	기 초 : 목탁 잡고 치는법, 요령흔드는법, 삼귀의례, 사홍서원, 천수경, 도량석, 종송(전통범음)	상주권공 : 초할향, 등게, 정례, 합장게, 고향게, 개계, 쇄수게, 복청게, 사방찬, 도량게, 참회게
	예 불 : 향수해례, 사성례(육성례), 오분향례, 칠정례, 각단 조석 예불	작 법 : 천수바라, 도량게(나비춤), 요잡바라(막바라) 태징치는 법, 북치는 법
	불 공 : 삼보통청 외 각단 불공의식	
	시 식 : 상용영반, 관음시식, 화음시식, 구병시식	
	송경의식 : 입관, 발인, 화장의식, 매장의식, 반혼재의식 등	
2학년	-천도의식 본 과정-	-시연회준비-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옹호게, 봉청, 39위), 지장청(상단),신중퇴공, 관음시식, 공덕게, 봉송, 회향	(재채비, 사물다루는 과정 및 법주, 바라지)
	※헌좌게소리, 다게작법, 인성이소리, 관욕태징(관욕바라), 화의재바라, 거불, 욕건이(소리춤), 특사가지, 사다라니바라, 운심게(소리춤), 가지게(태징), 화청, 축원화청	1.실전행사에 대비한 유기적인 의식진행 (법주, 바라지, 목탁, 요령, 태징, 북) 2.작법 고급과정 (사방유신, 귀경이, 향화게, 법고무, 옴남 등 작법실습) 3.특강 : 점안의식, 생전예수생칠일재 기타 의식 등에 관한 실기 및 설명

2. 교육과정 : 전통강원

학년 / 학기	1학기	2학기
1학년(치문반)	사미율의, 초발심자경문	치문
2학년(사집반)	도서, 서장	절요, 선요

※자세한 사항은 교학처로 문의하세요.

3. 전통강원과 범패학과는 각 학년 공통과목이며 전통강원과정이나 범패학과의 별도(단독) 수강도 가능함.

4. 입학 안내

⊙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가능함
⊙ 개강일시 : 2011년 3월 7일(월) 오후 3시~6시
⊙ 입 학 식 : 2011년 3월 14일
⊙ 강 주 : 전통강원-운범스님
범패학과-상진스님 / 범패학과강사-일원스님
⊙ 수업시간 : 범패학과-① 매주 월요일 오후3시~ 6시까지(기초과정)
② 매주 화요일 오후3시~ 8시까지(전문과정)
전통강원-매주 수요일 오후2시~ 5시까지(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강의장소 : 본 대학 강의실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1부, 반명함판 사진3매, 입학원서(본교 교학처에서 교부, 작성), 태고종승려 승적증명서 1부
⊙ 강의과정 : 2년 과정(4학기) (전통강원 · 범패학과)
⊙ 접수기간 : 수시접수(편입생은 시험 결과에 따라 등록 가능)
⊙ 접 수 처 : 안정불교대학 교학처≪천년고찰 청련사(안정사)≫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산 180번지
⊙ 문 의 처 : ☎ 031-836-0827

안정불교대학 학장 이백우

한국불교학회 동계 워크숍

"불교명상이 요가와 다른 점은 사회적 영향력"

임승택 경북대 교수, 요가수행과 불교명상 차이 밝혀

"요가 명상의 '몸'에 대한 집중은 '나'에 대한 집중으로 이어져 개인적인 실천 차원을 벗어나기 힘들다. 반면에 초기불교 명상은 관찰자적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사회 전반을 고려하게 된다."

임승택 경북대 철학과 교수(사진)는 '요가수행과 불교명상'을 주제로 개최한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 동계워크숍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임 교수는 2월 9일 동국대 대각전에서 '불교명상의 독특성에 관한 소고'에 대한 주제발제에 나섰다. 임승택 교수는 요가수행과 초기불교 명상의 특징을 비교·연구해 불교의 선정과 요가의 삼매에 대해 고찰했다.

"명상은 영어 메디테이션(meditation)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현대 영어 사전에서는 '깊이 생각하는 것'과 '특정한 대상에 주의를 고정하고 유지 시키는 것' 두 가지로 설명된다. 눈감을 명 '瞑'에 생각 상 '想'을 쓰는 명상의 한자어 번역은 메디테이션의 원뜻이 모두 포함돼 잘된 번역이다"라고 말했다.


임승택 교수

고대 요가의 사마타 명상은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고 마음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마타는 선정과 모든 산란함이 멈춘 경지인 삼매(三昧, samādhi)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일정한 집중상태를 말하는 선(禪, 禪定, jhanān)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위빠사나는 붓다가 새로 고안해 보급시킨 명상법이다. 임승택 교수는 위빠사나를 사마타에서 좀 더 구체화·전문화 시킨 것으로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관찰한다는 의미'라고 정의했다. 그는 "부처님도 처음 수행은 사마타 명상으로 시작했고 지혜의 계발을 통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명상법인 위빠사나를 탄생시켰다"고 덧붙였다.

4세기 무렵에 요가학파가 사마타 중심에서 통찰중심으로 옮겨 간 것을 두고 임 교수는 요가에서 출발한 불교가 다시 정통 요가학파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 이런 면에서 초기 불교는 요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 임승택 교수는 "불교 명상은 요가를 뛰어넘는 측면이 있다. 실재(reality)에 대한 통찰만이 내면을 다스리는 궁극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요가계 전반에 확산 시켰다"고 설명했다.


한국불교학회 회원들이 2월 9일 동국대 대각전에서 열린 동계 워크숍에서 요가 수행을 하고 있다.

임승택 교수는 초기불교의 명상관련 가르침을 대표하는 경전인 〈대념처경(大念處經)〉의 알아차림[知]과 마음지킴[念]을 위빠사나 명상을 가능케 하는 두 가지 원리라고 보았다.

임 교수는 초기불교 명상의 가장 큰 특징으로 육체적인 수련을 완전히 배제하고 정신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급진적인 명상법을 꼽았다. 반면에 요가학파의 명상은 육체적 수련단계를 거쳐 선정이나 삼매로 구성된 심리적 단계로 넘어가는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김용표 회장을 비롯해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최용훈 등 요가와 불교 관련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임승택 원광대 교수는 '불교명상의 독특성에 관한 소고' △김순금 원광대 교수는 '요가와 인도인의 정신세계' △도창원 왕십리 요가명상센터원장은 '요가의 실천원리와 실수'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이어갔다.

김순금 교수는 종교적 정서와 그것에 따른 축제나 가족 공동체 전통은 단순한 문화적 반영이 아닌 고대 경전과 요가샤스뜨라의 가르침이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돼 형성 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요가샤스뜨라로 본 요가와 인도인의 정신세계'에 대해 고찰 했다.

도창원 원장은 '요가의 실천 원리와 실수'에서 시대에 따라 요가의 방법은 변하고 있지만 삼매에 이르러 해탈을 얻는다는 요가의 최종 목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발표했다.

천진영 기자

"사이버 공간 활용해 포교 선도를"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 '선문화연구'서 강조

정보화로 표상되는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동은 새로운 사회환경을 구축하며 그에 상응하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은 이런 변화가 발현되는 대표적 공간으로 자리했다.

사이버 공간이 생활 속 종교활동에도 활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종교활동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는 최근 발간된 〈선문화연구〉 제9집에서 정보사회에서 포교전략과 사이버공간의 활용방안을 고찰했다.

박 교수는 △불교정보의 집적과 유통(데이터베이스 활용) △의사소통구조 구축(미디어 활용) △불자공동체 건설 및 내실화(네트워크 활용) △종합신행공간 구축(생활세계 활용)으로 사이버 공간 활용법을 세분화해 그 관련성을 기술했다.

박 교수는 "사이버 공간은 현실공간과 달리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불교계에서는 정보화라는 환경변화에 대해 인식이나 대응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불교발전과 중흥을 위해 사이버 공간 활용의 구체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대부분 불교계가 포교와 관련해 개신교에 비해 뒤처지는 부분은 콘텐츠의 양과 질, 불교사이트의 수 등을 꼽지만 단순히 그 양과 수를 늘리는 것이 문제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페이스북을 이용한 불자네트워크의 확장, 트위터를 이용한 불교계 뉴스 전달 시스템 구축, 스마트폰을 위한 다양한 불교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선 불교 논쟁 시발된 문제작 완역

선운사 백파사상硏, '선문수경' 초역·발간

백파 스님과 다성(茶聖)으로 불리던 초의 스님, 실학자 추사 김정희 선생과의 선논쟁(禪論爭)을 격발시켰던 〈선문수경(禪文手鏡)〉이 초역·발간됐다.

백파사상연구소(소장 선일)는 조선 후기 선문(禪門)의 대종사로 추앙받은 백파긍선(白坡亘璇) 스님의 〈선문수경〉을 펴냈다.

〈선문수경〉은 조선 후기의 백파긍선(白坡亘璇: 1767~1852)의 대표적인 저술로, 〈선가귀감〉 이후 250여 년 만에 서산 대사의 선불교 정신이 유전된 전문 선서이다. 백파 스님은 책에서 임제종 사상을 강령화한 〈선문강요(禪門綱要)〉에 의거해 임제삼구(臨濟三句)를 기준으로 선문의 여러 견해를 논변했다.

초의의순(1786~1866) 스님은 〈선문사변만어(禪門四辨漫語)〉를 통해 백파 스님의 견해에 반론을 제기했다. 김정희 선생(1786~1856) 백파 스님과 의견을 달리했다. 이같은 논쟁에 우담홍기(優曇洪基, 1822~1881) 스님이 〈선문증정록(禪門證正錄)〉을 저술해 초의 스님을 옹호하고, 설두유형(雪竇有炯:1824~1889) 스님이 〈선원소류(禪源溯流)〉를 통해 백파 스님을 옹호했다. 그러자 다시 법주사의 축원진하(竺願震河:1861~1926) 스님이 〈선문재정록(禪門再正錄)〉을 지어 백파·설두 스님을 비판했다. 〈선문수경〉을 계기로 100여 년에 걸쳐 이어졌던 선논쟁은 잠들어 있던 한국불교의 지성을 일깨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동섭 기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주민 의사 반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반경 500m 토지 개발 제한 민원

앞으로 문화재 주변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와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월 3일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문화재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 반경 500m 내의 해당 토지 개발 및 건축물의 증·개축 등이 제한받는다. 이로 인해 해당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한 받지만 현재는 사전조사 및 의견 수렴없이 조례로 획일적으로 지정돼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권익위는 권고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에 앞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절차에 준해 사전예고 절차를 거치도록했다. 또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 시 문화재 영향검토를 담당한 전문가의 업무상 과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무원 기준의 벌칙을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현상변경허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는 구체적인 판단 사유와 근거를 알려주고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했다.

노덕현 기자

백제불교 문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문화재청, 세계유산 등재 우선 추진 유산 선정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2월 8일 공주·부여역사유적지구와 익산역사유적지구를 통합한 (가칭)백제역사유적지구와 남한산성 2건, 자연유산으로 서남해 안갯벌 1건을 세계유산 등재 우선 추진 문화유산으로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회의에서 선정했다.

이번에 우선 등재 추진 대상으로 선정된 유산은 우리나라 세계유산 잠정목록 유산(11건) 및 잠정목록 등재 예정 유산(2건) 중에서 선정한 것으로 향후 2~3년 이내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예비목록으로, 최소 1년 전까지 등재된 유산만 세계유산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무분별한 세계유산 신청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각 국가별 등재 신청서 제출을 2건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충남도는 9일 공주·부여 등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효율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백제문화연구소'를 설립 운영키로 했다.

천진영 기자
조동제 전북지사장

'천태학연구' 제13집 발간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 권기종)이 발간하는 〈천태학연구〉 제13집이 나왔다. 13집에는 △천태지관과 관음주송(지창규 동국대 교수) △관음 주송과 신행적 위치(김영태 동국대 명예교수)등 천태불교학술대회 발표논문과 △현대 사회와 불교 관리제도 학술 토론회의 의의(인러스님, 중국 허난성 낙양 백마사 방장) 등 제13회 천태국제학술대회와 3차 한중포럼 발표논문이 수록됐다.

공모논문으로 △원효의 교판인식에 대한 연구(노채숙 동국대 강사) △조선시대 천태교학의 이해와 그 불교사적 의미(김용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통일신라 〈법화경〉의 유포와 그 특징(박광연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원여불교의식(법음,범패)교육원모집

교직자(포교사,전법사) 전문교육원

본 원여불교 전법포교사단 부속 원여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스님, 법사, 포교사, 교양대학 수료자를 위한 대법사 양성 **제 1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강 주** | 보광스님 : 전등사 (구 보타원) 회주 부산불교연합회 고문
자인스님 : 길상사주지,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성각스님 : 홍은사주지 (은사스님에게 범음범패 20년 이수)
성림스님 : 관음사주지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보존회 사무국장 이사 및 범패 전수 조교)

◐ **입학자격** | 본 원여불교 전법포교사단 부속 원여불교의식 교육원은 종단을 초월하여 불교의식을 여법하게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스님 포교사전법사 불교교양대학 수료자를 대상으로 함

◐ **특 전** | ○본 교육원수료후 성적우수자는 부산영산보존회 범패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함
○각 종단에서 불교의식을 주관하도록 함
○본 교육원 승려후보생 종단등록 및 포교원(사찰) 창건의 자문에 응함

◐ **모집학과** | 기본과정(6개월) : 사물(요령목탁) 다루는 법, 송, 상단, 각단 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중급과정 (1 년) : 제반의식(불공,범음,범패) 사물다루는 법, (광쇠 징 법고) 대령 관욕 각종시식 실전(實傳)위주
작법과정 (1 년) : 바라작법 오공양작법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원서대 및 전형료** | 십이만원정 (120,000원)
◑ **수 강 료** | 무료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 **모집기간** | 불기 2555년 2월 10일 (음 1월 8일) ~ 3월 10일 (음 2월 6일)
◑ **입 학 식** | 불기 2555년 3월 12일 (음 2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 **강의장소** | 전등사 (구 보타원) 큰법당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4시
◑ **원서접수처** | 전등사 (구 보타원 1층)
◑ **원서배부처** | 부산지역 : 전등사(구 보타원) (051) 243-0048
부산불교연합회 (051) 867-0501
현대불교신문부산지사 (051) 632-0064
불교TV부산지사 (051) 852-9309
경남지역 : 세심정사(합천) 011-822-6946
경북지역 : 미타사(대구수성) (053) 767-7900
울산지역 : 쌍암사(울산야음동) (052) 275-7875

원여불교 전법포교사단 불교의식 교육원
주소 : 부산 서대신동 3가 578번지 전등사 (구 보타원) 051)243-0048 H·P 011-822-6946

명예총재 : **암도**(여산) **보광**(석성)
총재 : **향과**(도림), 단장 : **법민**, 부단장 : **자인**, 사무총장 : **성월**(혜명), 사무국장 : **진효**(박도환), 재무국장 : **성덕**(정상만)
자문 : **현광**(보리), **신풍**(정허당), **설적운**, **만청**, **달오**, **태일**, 운영 : **법연**(혜연), **지산**(진성태), **해봉**(강경중), **무심**(현익채)

탄허기념박물관 명사초청 보살사상 선양법회 ④



현실을 직시하는 뜻있는 수행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부처님 가르침이 대중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뜻과 마음이 모여 천명된 것이 보살의 대승불교 선언이다.

김규칠 BBS불교방송 상임이사는 1월 27일 금강선원(원장 혜거)이 탄허기념박물관에서 개최한 '명사초청 보살사상 선양법회'에서 "매순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자아와 피아를 넘어선 실천을 펼치는 것이 진정한 보살도"라고 강조했다.

김규칠 BBS불교방송 상임이사는 서울대 법대와 신문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1971년 외무고시 합격 후 주 스리랑카 참사관과 KBS 심야토론 사회 등을 거쳐 제5대 불교방송 사장을 역임했다. 또 진흥원 감사를 거쳐 현재 상임이사직을 맡고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정리=노덕현 기자



도움을 줘도·받아도 범부, 범부처럼 살아도 깨달으면 보살

김규칠 BBS 상임이사 '현대 상황에서의 보살도적 문제 의식' 주제 강연서 열린 생각 강조

먼저 말씀드리면 현대 우리가 처한 상황은 2500년 전 상황, 일제시대, 조선시대 상황이 아닙니다.

산업화 민주화 근대화가 상당히 진전된 상황입니다. 근대화도 상당히 진전되고 탈근대화, 포스트 모던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2500년 전과 달리 지금은 인도 설산 밑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한국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변화 앞에 불교도 변화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불교의 형상을 띄고 담겨 있는 원래 뜻은 변화가 없을 지라도 그 형상은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 전에는 새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옛 말과 법도로는 안된다는 것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 뜻을 살리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오늘 강연의 주제입니다.

보살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2500년 전 생각됐던 보살도와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하는 보살도가 과연 같은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보살이라고 하면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살을 설명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 맞는 말이지만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살이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상구보리 하화중생', 바꿔 생각하면 보살이 어찌 위가 있으며 아래가 있겠습니까.

마치 기독교 사상처럼, 보살이 어떠한 진리와 미혹 사이에 일종의 계급처럼 있는 것, 또 중생보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중생을 주계한다는 것이 과연 보살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그 더러운 것들을 치우면서 어떤 마음을 기져야 할까요. 쓰레기를 싫어해야 할까요. 좋아해야 할까요. 아니면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아야 할까요.

저는 좋아하면서 싫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이 쓰레기

> 상구보리 하화중생이
> 보살도의 전부 아냐
> 속세에서 범부들과
> 성스러움 추구가 보살

를 싫어한다면 그것을 치우려 하지 않고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좋지도 싫지도 않는다면 목석과 같이 활기가 없을 것입니다. 참선에서는 활구와 사구를 말합니다. 사람이 목석과 같다면 그 자체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활달 자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희로애락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살도를 얘기함에 앞서 무언가 수행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그 고통이 싫어집니다. 그 고통을 싫어하지 않고, 그 대상을 벗어나지 않고 초탈할 수 있는가.

보살도는 바로 이런 문제의식을 스스로 만들어 고민하는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살하면 남을 위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각 개인의 모든 이해와 감정이 담겨있습니다. 돌아보면 자신이 남을 돕는다는 감정을 즐기고 있으며 또 그 자체로 무형의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봉사활동을 하면서 겉으로 내세우기는 다른 이를 위한다. 그 내용은 적당히 도우며 자신의 소일거리를 찾고, 그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임종이 다 돼가면 '아, 내가 진심으로 봉사해서 쌓은 공덕이 없구나'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이 보살도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씀을, 또 무의식까지를 항상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씀을 형형하게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1700년대 유학자인 이언진을 소개한 〈나는 골목길 부처다〉란 책이 있습니다.

이언진은 "우리는 속(俗)에 있으면서도 성(聖)을 지향한다. 하지만 속에 있으니 그것을 가로지르는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언진은 우리 모두는 속에 속해 성스러운 세계를 위해 정진하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브레지어 박사는 서양철학계에서 범부 패러다임을 일으켰습니다. 범부 패러다임은 남을 돕는 것이나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나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이 모두 범부라는 것입니다. 범부가 범부의 사정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보살이 어떤 지도자나 우위에 선자가 돼서 누구를 돕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살은 어떤 사람일까요. 범부들과 섞여 범부처럼 행동하지만 깨달은 사람이 보살입니다.

그 깨달음은 매순간 문제의식에서 나옵니다. 모든 일에 앞서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이고, 나중에 해결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또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사회체제를 얘기하고 토론하며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합니다. 학문연구를 하며 실천적인 활동을 겸하는 사람이 보살인 것입니다.

사회는 냉혹합니다. 우리는 1등 주의입니다. 1등이 아닌 자들은 살아남기 힘듭니다. 1등 주의는 효율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양극화의 문제를 낳습니다.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뿐 생태환경적인 면에서는 비효율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불교의 보살이라면 열린 생각으로 모든 대중이 머리를 맞댈 수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남북문제를 예로 들어봅시다.

흡수통일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한반도의 문제가 굳이 흡수통일의 방식으로 1800만 북한 주민을 남한 국민이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은 갇힌 생각입니다.

범부 패러다임을 갖고, 보살도 정신을 갖고 진정으로 북한 주민의 사정을 이해하면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노력만이 비로소 한반도 문제를 지구촌 아젠다로 끌어올리고 모든 세계인들의 노력을 모아 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해답은 누가 얻습니까. 바로 문제의식을 가장 철저히 느끼는 사람입니다. 보살도를 걷는 사람입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제작년부터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사회 변화의 양상에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불교의 문화주의적 접근이 모색됐습니다. 기독교 사상과 같이 절대 진리를 표방하고 대중에게 믿음을 강요하기 보다 이 세상을 함께 사는 세상, 조화와 공영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데

> 고통 벗어나려 할수록
> 고통스럽고 싫어진다
> 싫어함 벗어남 없이
> 초월한 이가 바로 보살

불교사상이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정토 사상입니다.

지금 우리 불교도 중에서도 은연 중에 교조주의를 띈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방식대로, 또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서는 안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는 넓은 생각으로 관용하고 포용하는데서 시작합니다. 흑백논리로 불의와 진리, 적과 동지로 나누는 것이야 말로 불교정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 확장시켜 세계인의 철학이 되도록 하는 것은 불자로서의 사명입니다. 현재 유네스코는 인류보편윤리를 마련 중이며, 유엔은 세계 빈곤 및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철학적 기반을 찾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의 문제 해결 철학을 한국에서 일으켜 준다면 유엔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프리카 난민 등을 구제하는 일에 앞서 그 밑바탕이 되는 철학이 마련돼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외교의 귀재 헨리 키신저도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외교도 철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키신저는 "부분적인 이익에 의해 입장이 계속 변한다면 그 원동력이 사라져 외교적 노력이 결국 수포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불교계가 현재 처한 상황과도 매우 밀접합니다. 철학이 있다면 여러 종교와의 관계, 정부와의 관계에서 굳이 소신공양을 하고 강경한 어조로 발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불교의 저런 분들이 일갈을 한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겠구나. 잘 모셔야 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게 해야 합니다.

불교 내부적으로 시대를 내다보는 긴 기조를 가지고 밖으로는 사회에 철학적 뒷받침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불교사상과 현대 사회현상을 결부시켜 새로운 논리와 이론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보살도입니다.

부처님은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전체 생명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모든 행위에 앞서 이 행위가 나를 위함과 동시에 우리 이웃을 위하고 또 모든 생명을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즉 공심(共心)을 가진다면 그 자체로 활달자재해 질 것입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대아(大我) 조차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보살도가 우리사회의 산적한 여러 문제들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2011학년도 동학사승가대학
추가 신입 • 편입생 모집

동학사승가대학에서는 2011학년도 추가 신입 •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사미니계 수지자 (40기 수계자 포함, 비구니 가능)
타 승가대학인 경우 1년이상 휴학한 스님

◐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1통
(2) 주민등록증 양면복사 1통
(3) 은사스님 추천서 1통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5) 증명사진 2매

◐ 입방날짜 : 2011년 3월 10일 4시까지

◐ 문 의 처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89번지 동학사 종무소
전 화 : 042) 825-2570, 팩 스 : 042) 825-6068

◐ 교 통 편
고속버스 이용 시 : 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107번 버스 이용 → 종점 하차.
기차 이용 시 : 대전역에서 107번 버스 이용 → 종점 하차.
동학사 입구 차량통제소 앞에서 오후 2시부터 운행하는 동학사 차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동학사승가대학 주지 견성 • 선덕 해주 • 학장 법성

대반열반경 강의안내
(大般涅槃經)

원조 각성 강백 큰스님 직강
40권. 북량(北凉) 시대(A.D. 414~421) 번역. [역] 담무참(曇無讖)



부처님의 열반에 대해서 기록하고 여래의 법신은 상주 불변하는 것이며, 일체 모든 중생이 다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다는 대승 사상의 정수가 들어 있는 경으로서 가장 널리 읽히는 경전 중의 하나이다. 특히 대승 5대 부문으로 꼽히는 화엄부, 방등부, 반야부, 법화부, 열반부 중에서 열반부를 대표하는 경전이 바로 북본 열반경이다.

각성큰스님께서는 이번 열반경 강의가 일생 마지막 마무리 한다는 소신의 뜻이 담겨져 있어 더욱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 대중스님들에게 마지막 좋은 기해라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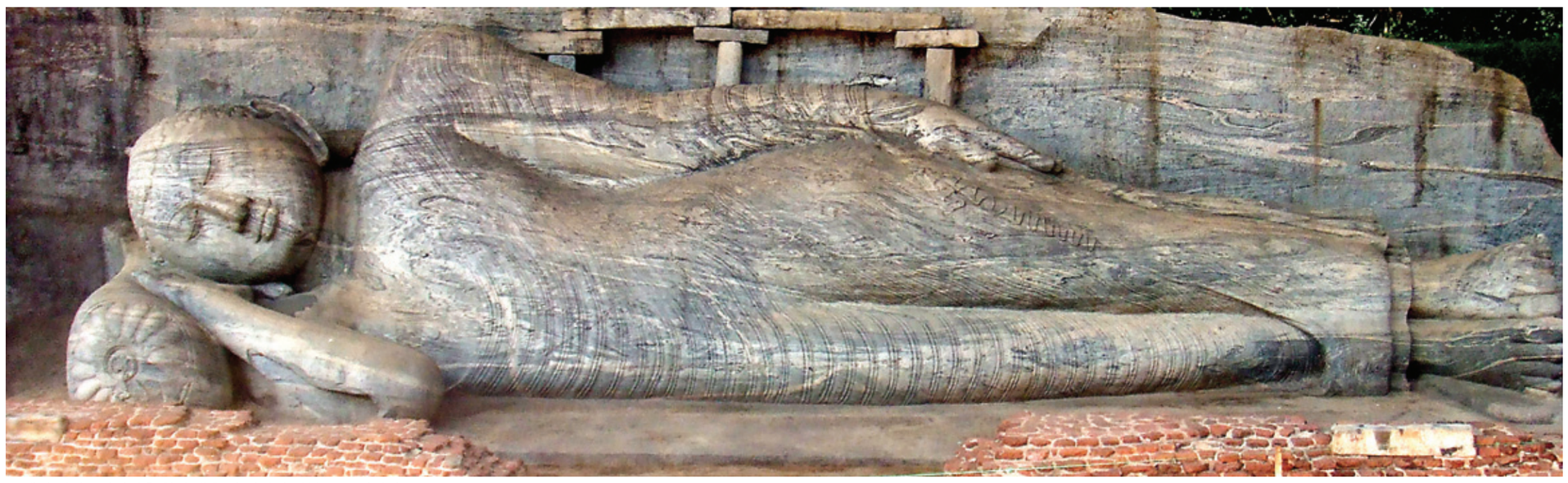
그동안 10년여 동안 각성큰스님의 경전강좌를 통해서 전강생 23명 스님을 배출하였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교육의 기회를 갖을 예정입니다.

수행과 포교현장에서 치열하게 노력하시는 스님과 불교학자들에게는 자기완성과 대중교화에 커다란 지침이 될 것입니다.

강의일시 | 2011년 3월 15일(화)부터 ~
강의시간 |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 오후 2시
강의장소 | 동국대학교 학명 세미나실
수 강 료 | 무료
기 간 | 2년간
경 비 | 1년간 백이십만원
내용(열반경40권, 운영비, 해외학술세미나 1회 포함)
대 상 | 비구, 비구니
자 격 | 법납 15년이상 동국대 재학생 및 졸업자스님
서울불교전문강당 졸업자 및 재학생스님
승가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 그 외 동등한 스님에 한함.
구비서류 | 수행이력서 1부
접수기간 | 2011년 2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금계좌 | 국민은행 390401-04-043930(예금주:최재동)
문 의 | 010-4242-7070(연구소장 법경)
010-5497-8018(연구위원 용화)
011-520-9350(연구위원 도행)
접 수 처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20-26번지 좋은절

주최 | 동국대학교 정각원 주관 | 통화불교 전강원

스리랑카 학술답사기


12세기 파라크라마바후 왕이 세운 갈 비하라 석불군 중 열반상.



글 · 사진=원영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인도의 눈물 스리랑카, 사람들 마음에는 佛陀의 후손이란 자부심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 중점연구소에서는 1월 22~29일 스리랑카로 불교유적지와 근대불교문화를 중심으로 학술답사를 다녀왔다. 일본 불교 전공자로서 서남아시아 불교권에 첫발을 내딛는 필자의 감동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비로소 일본의 종단불교가 큰 법요행사 때마다 스리랑카 스님들을 모시고 빨리어로 시작하는 연유를 알게 되었다. 쇠퇴한 인도불교의 대리자로서, 살아있는 초기불교로부터의 정통성을 스리랑카 불교에서 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의 스리랑카 불교에 대한 연구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교미술을 비롯해서 민속학 또는 문화인류학적 측면, 정치권력과의 관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의 연구단계는 아직 걸음마에 불과했다.

콜롬보에 도착한 우리는 다음날 스리랑카 최초의 왕도였던 아누라다푸라로 갔다. 불교의 역사를 시대의 흐름은 물론 지리적으로도 내려오면서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이곳은 북인도로부터 이주한 싱할라인들이 기원전 5세기 무렵에 수립한 고대도시로 기원전 380년 판두카바야 왕이 수도로 삼은 곳이다. 하지만 역사서인 〈소사(小史)〉나 〈대사(大史)〉에 신화와 전설로 전해지는 건국의 역사를 부처님 열반의 해인 543년으로 보는 것은 스리랑카인들의 심상(心相)에 새겨진 불타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드러냄이며, 불국건설에 대한 염원을 강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이 스리랑카를 3회 방문했다는 전설에서는 살아 있는 불타의 숨결을 온전히 느끼고 싶어하는 스리랑카인들의 열망이 담겨 있음을 본다.

스리랑카의 불교전래는 기원전 3세기 전륜성왕 아쇼카 왕의 자녀들에 의해서이다. 아쇼카 왕은 인도 통일 후 무력에 의한 정복을 그만두고 불교의 전파에 노력했다. 총 9차례 중 마지막으로 스리랑카에 파견된 아들 마힌다 장로는 기원전 247년 데와남피아 티샤왕에게 불교를 전했다. 마힌다의 언덕이라는 뜻의 마힌탈레 유적이 그곳이다. 또한 딸인 상가미타 비구니는 인도 붓다가야에서 보리수를 가져왔다. 스리 마하 보디라고 불리는 이 보리수의 원줄기는 잎이 무성한 후손들과는 달리 2000여 년의 수령에도 불구하고 가는 줄기를 지니고 있어 금박의 받침대로 지지되고 있었다. 주위에 병자를 둔 사람들이 경을 외우며 불력의 가피를 기원하는 눈빛이 선량했다. 이러한 민중의 소박한 기원 위에, 기원전 2세기 국난을 극복하고 건립한 55m의 하얀 루안웰리 세야 대탑이 상징하듯 불교는 이제 국가의 이상과 불가분의 관계가 됐음을 목격했다.

다음날, 중세에 남인도 촐라 족의 침입을 막고 수도를 옮겨 이룬 번영의 도시 폴론나루와로 향했다. 고대불교는 4세기까지 마힌다 장로에 의한 대사파(大寺派)를 비롯해 무외산사파(無畏山寺派) 및 기타 림사파와 함께 3개의 종파를 형성했다. 기원전 1세기에는 대사파 스님들에 의해 상좌부 불교의 소의 경전인 빨리어 삼장을 완성했다. 훗날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불교의 쇠퇴 후, 11세기 외세를 물리친 위자바야후 1세가 미얀마 스님들을 초청해 다시 스리랑카 불교를 부흥시키고, 12세기 파라크라마바후 1세에 의해 계파간 갈등을 청산, 대사파의 계율을 정통으로 하는 상좌부 불교의 통합을 이뤘다. 이는 주변 국가인 미얀마, 태국 등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후 쇠퇴했다가 18~20세기 태국과 미얀마로부터 회귀한 샴파, 라만냐파, 아마라푸라파 모두가 상좌부 불교의 전통을 지닌 것도 이러한 폴론나루와 시대의 개혁에 연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은 어딘지 모르게 동아시아의 불토인 서안, 경주, 교토와 시공을 초월해 불교를 통한 문화적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담불라의 석굴사원은 아잔타 석굴이 그렇듯 동아시아 석굴의 원초적인 느낌을 강렬히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스리랑카 영욕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캔디다. 1815년 싱할라 왕조 2000년의 역사가 영국군에 의해 끝난 곳이기 때문이다. 캔디는 1505년부터 시작된 포루투갈, 네덜란드, 영국으로 이어진 4세기 반 동안 식민 통치의 슬픔과 회한을 끌어안은 도시이다. 무엇보다도 부처님의 진신 치아사리를 모신 불치사는 캔디 속의 캔디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와 국민, 축제와 열광, 소우주와 대우주의 파노라마가 이 불치를 통해 전개되고 있다는 것에 한 동안 마음이 떠나지 않았다. 텔레비전 속에서 보는 스리랑카의 대축제인 에사라 페라헤라가 이 불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페라헤라는 행렬이라는 뜻이다. 코끼리 위에 황금으로 치장한 불치를 올려놓고 양력 7~8월경에 해당하는 스리랑카력의 에사라월 약 2주 동안 열리는 축제는 그야말로 종교와 정치가 견고하게 결합한 권력의 상징이 거리를 누비며, 삶의 현장 속에서 보란듯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 국가적 축제이다.

이 불치는 362년 인도 남부 칼링가 왕국에서 보내온 것으로 아누라다푸라에 모셔졌다. 매년 무외산사에서 불치제를 올려오다가 1590년 다르마 수라야 1세 왕 때 캔디로 옮겨졌다. 불치는 곧 왕권의 상징으로 불치가 있는 곳이 바로 스리랑카의 수도였다. 저녁 무렵, 불치를 보관한 사원의 깊은 중심으로 초대됐다. 악사들의 악기 연주가 요란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하고 특별공개를 선물 받았다. 외경의 마음으로 가슴이 떨리기도 한다. 성현이 사자(死者)가 되어서도 갖는 그 권위는 세속의 권력마저도 승인하는 살아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상상력에 바탕한 권력이 이처럼 성스러움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에 절묘한 그 무엇을 느끼게 한다.

사실 정치적 권력은 욕망을 감추거나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교를 대상으로 거래를 하기도 한다. 그 종교적 자발성을 잘 발휘한 것으로는 일본 근대의 국체불교(國體佛教)가 그랬다. 현대국가에서 여전히 정치와 종교의 야망이 결합함으로써 세속에서 촉발된 정교분리의 이념에 장애가 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다. 1970년대 스리랑카 스님들이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사실에 다소 마음이 편치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다. 아시아에서 불교, 나아가 근 · 현대불교가 처한 상황이 이러한 국가와의 관계에 있음을 스리랑카에서도 확인하게 된다. 왕정에서 민주정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그 상징성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역시 역사와 문화의 지속성에 연유하기 때문일 것이다.

캔디에서 샴파의 총본산 아스기리야 대정사의 붓다랏키타 대승정을 친견했다. 승려수와 사원수는 아마프라파 9000여 명에 2300여 곳, 라만냐파 5000여 명에 1200여 곳에 비하면 샴파는 2만6000여 명에 8000여 곳을 헤아리니 가장 큰 종단의 수장인 셈이다. 대승정은 남북문제에 대해 학자들이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우리를 향해 불교를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이 순례하며 직접 공부하는 일에 새로운 희망이 있다고도 말했다. 또한 기독교, 이슬람과 공존하는 스리랑카의 현실을 염두에 둔 것처럼 한국 불교와 기독교와의 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다종교 사회 한국처럼 전도, 포교, 교화라고 하는 이름 아래 종교의 영역을 확장하는 일이야말로 스리랑카에 비하면 소리 없는 종교 전쟁이지 않을까. 소박한 곳에 거주하는 대승정의 모습은 법문을 듣지 않아도 친견하는 것만으로 감동을 준다. 온유하고 순수하고 맑은 스님의 얼굴과 음성이 스리랑카인들을 닮았다. 한국에 온 많은 스리랑카 노동자들의 모습이 스님과 겹치는 것은 왜일까?

유서 깊은 페라데니야 대학의 케라웰라 교수의 강연은 스리랑카의 어제와 오늘을 보여주었다. 2년 전 종결된 내전이지만 수많은 생명이 살상될 때, 불교계는 어떤 일을 했느냐는 질문을 하고 나서 아차했다. 타밀족과 싱할라족의 전쟁이 종교적인 분쟁으로 비춰진 외신의 전달을 곧이곧대로 믿은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중에 문헌을 보고서야 스리랑카 불교계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음을 알았다.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천 곳 중 1위에 등극한 인도의 눈물 스리랑카와의 만남은 자신의 좁은 학문적 폐쇄성으로부터 시야를 무한대로 트게 했다.


기원전 1세기 아누라다푸라에서 쫓겨난 바타가마니 왕이 수도 수복 후 감사의 뜻으로 건립한 담불라 석굴사원.


담블라 석불사원.


시기리아 바위궁전.


시기리아 바위궁전 암벽 천상계의 여자.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판매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新 제품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아토피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벌집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 고 · 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탱화 등에 침법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공예양초

① 밀납 야광 연꽃 양초 7.0ϕ×33cm
② 밀납 1호 그림 양초 5.9ϕ×18cm
③ 밀납 PC컵 초 5.5ϕ×4cm(연소시간 약 8시간)
④ 약쑥 야광 연꽃 양초 7.0ϕ×33cm
⑤
⑥
한밀납 양초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① 밀납초 90cm ×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③ 밀납초 돈타레 5.6ϕ×27cm
④ 밀납초 밀대 4.7ϕ×25cm
⑤ 밀납초 1호 5.9ϕ×18cm
⑥ 밀납초 2호 5.9ϕ×14cm
⑦ 밀납초 3호 4.7ϕ×13cm
⑧ 밀납초 4호 4.7ϕ×10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성철 스님 친필 문화재 등록 난항

사찰측 "전담위원 2명, 이웃종교인으로 불교 관한 공감 힘들다"

허남식 부산시장 문화재 등록 제안, '친필문화재 전부 등록하라' 주장

성철 스님이 주석했던 부산 해월정사(회주 천제)가 성철 스님의 유품 중 친필 10점을 부산광역시문화재로 등록 신청했으나, 분과위원회 개최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문화재 등록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해월정사는 성철 스님의 맏상좌 천제 스님이 지은 가람으로 성철 스님의 생전 논문, 메모, 친필 유고 등을 경내 봉훈관에 전시 · 보관하고 있다.

전시작 가운데 대표작 10점을 지난해 11월 3일 부산광역시문화재로 신청했으나 부산시는 "해월정사에 보관 중인 스님의 친필 전부를 문화재로 등록하라"며 문화재 등록을 미루고 있다.

부산시는 시지정 문화재 신청이 들어올 경우, 문화재 전담위원 2명이 현장실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해 해당 문화재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고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분과위원회에서 시지정문화재 자질 심사를 통과하면 전체위원회에서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케 된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친필 10점은 문화재 전담위원 실사 과정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천제 스님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도 총 7권의 친필일기지만 국보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듯이, 스님의 친필 유고 속에 담긴 말씀과 불교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님은 "전문위원들이 성철 스님 친필 유고의 가치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 데에는 종교적 견해차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철 스님 친필 유고 10점에 대한 부산시문화재 등록을 처음 제안한 이는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이다. 허 시장은 2008년 9월 봉훈관 준공법회에 참석해, 부산시민들이 경남 합천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성철 스님을 기릴 수 있음을 반가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 후 봉훈관 운영이 안정화에 접어들어 부산시문화재로 등록 신청을 했으나, 시작과 동시에 사전실사 단계에서 발목이 잡힌 셈이다.

천제 스님은 "불교문화재다 보니 이웃종교인 실무자와 견해차가 있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종교를 떠나 부산시 입장에서도 훌륭한 문화관광자원이 탄생할 수 있으니 객관적 기준과 가치로 평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반야유치원(원장 지원) 원생들이 1월 28일 남구 문예회관에서 열린 '반야유치원 작은발표회'에서 소고춤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 비전사, 자비의 쌀 2000kg, 반야유치원 '사랑의저금통' 전달

나눔, 올해도 쭈욱 이어갑니다

광주 비전사(주지 보혜)는 2월 4일 입춘을 맞아 신도들이 입춘기도에 올린 '자비의 쌀' 공양미 2000kg을 지역 사회복지시설 6곳에 전달했다.

보혜 스님은 "예로부터 우리는 쌀을 삶의 근원으로 생각했다. 여기에 자비의 마음을 담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야 말로, 참다운 봄을 맞이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자비의 쌀'을 전달받은 단체는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 하남농협노인복지센터, 월곡2동주민센터, 두암동지역아동보호센터, 광산구협의회 등이다.

광주 주월동 소재 반야유치원(원장 지원)도 1월 28일 남구 문예회관에서 '반야유치원 작은발표회'를 개최하고, '사랑의 저금통' 100만원을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사랑의 저금통'은 유치원생들이 저금통에 십시일반 모은 기금으로 소아백혈병 어린이 치료기금으로 전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박물관 사찰 새롭게 조명한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원복)이 광주전남지역 대표 사찰의 문화재를 새롭게 소개한다. 또 1920~1930년대 유리건판 속 사진을 통해 당시 사찰의 모습도 확인하는 전시회를 마련했다.

전시주제는 1부 고려시대의 사리장엄, 2부 불교의식구, 3부 고려시대 사찰, 4부 조선시대 사찰로 나뉜다.

1부에서는 광주공원에 위치한 보물 제109호 광주 성거사지오층석탑에서 출토된 사리기를 탑의 도면과 발견된 위치를 함께 표기하여 전시한다.

2부에서는 태안 2년(1086) 장생사가 새겨진 범종을 비롯해 정병, 금강령, 금강저 등 청동 소재의 다양한 불교 의식구를 소개한다.

3부에서는 1980년 국립광주박물관 발굴조사 1호인 무등산 원효사 대웅전에서 출토된 동경 · 청동불상 · 소조불상 등의 유물이 새롭게 전시된다.

4부에서는 조선시대 사찰 출토품 중 현재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발굴유물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나주 불회사에서는 총 200여 점의 석조불상을 수습하였는데 이 가운데 개성 가득한 제각각의 얼굴 표정이 인상적인 나한상을 소개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전함 '껌조심' 하세요

상습 불전함 털이범 검거

완주 송광사(주지 도영) 대웅전과 지장전 불전함에서 상습적으로 시줏돈을 훔쳐온 허모(56세)씨가 2월 6일 경찰에 붙잡혔다.

허씨는 대나무 끝에 씹던 껌을 붙여 불전함의 시줏돈을 훔치던 중 CCTV화면을 통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사찰관계자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불전함을 수거할 때마다 돈에 껌이 묻어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릿대와 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유사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의 사찰에 주의를 요청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문빈정사 석산 스님 열반 30주기 추모재 봉행

광주 문빈정사(주지 법선)는 1월 30일 대웅전에서 석산 대종사 진영 점안식과 열반 30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운 스님(부산 미륵사), 지선 스님(前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용흥사 주지)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지선 스님은 "그동안 못 모셨던 스님의 진영을 모시게 돼서 마음이 가볍다" 며 "스님께서 후학들을 위해 정진했듯이 후손들이 다함께 수행정진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석산 스님(1898~1981)은 강원도 고성 금강산 신계사에서 출가해, 부산 범어사, 백양사 등에서 후학양성에 매진했으며, 문빈정사에서 입적했다.



석산 스님 진영에 차공양을 올리는 지선 스님.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호남 대표 고찰의 전통 '한 눈에'

2월 25일~3월 1일 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

호남 최대의 불교문화잔치인 불교문화박람회가 열린다.

엑스퍼트는 광주불교방송과 공동으로 2월 25일~3월 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1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 2회째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템플스테이, 불교생활용품, 사찰음식 등 다양한 불교 상품들을 전시하며 영산재, 수륙재, 법고 시연, 법문강연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백양사, 송광사, 금산사, 화엄사, 대흥사, 선운사 등 호남지역 6대 본사를 비롯해 선암사, 광주불교사암연합회 등 지역사찰과 신행단체 등이 후원하고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산업 축제로 치러진다.

행사를 주관하는 박철희 위원장은 "이번 불교박람회는 국내외 불교문화를 소개하는 한편 불교관련 상품들을 전시 · 판매하는 문화산업전시박람회이다. 한국불교의 역사, 특히 호남지역 대표 고찰의 전통 불교문화와 현재 모습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행사에서는 호남지역 6대 본사의 체험관을 설치하고 사찰홍보 및 템플스테이, 불교의 과거와 미래를 직접 소개한다. 상설 전시관에서는 불화소품전시회와 천연염색 의상전시회 등을 선보이며, 상설 무대에서는 개막 축하공연, 법고 시연, 찬불가 공연 등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사용품	조각, 불상, 범종, 범고, 탱화 등
불교용품	서적, 음반, 연등, 염주, 향꽂이 등
생활용품	법복, 방석, 다포, 기도포 등
차, 식품	자연식품 및 가공식품, 건강한방용품
사찰건축	사찰리모델링, 녹색에너지, 석재, 기와
전 시	사찰 및 템플스테이 홍보관 지자체 관광 및 특산품 홍보관, 국제불교문화전
문화행사	매일 오후 2시 선암사 영산제 법고 시연, 불교무예, 차례시연, 사찰음식 전시
법 문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마음은 하나님께, 손발은 이웃에게'가 표시된 앞치마를 두룬 사진을 표지로 한 김영진 의원의 2010년 의정보고서.

김영진 의원, '마음은 하나님께?'

광주 서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김영진 의원이 2010년 의정보고서 표지에 '마음은 하나님께, 손발은 이웃에게'가 표시된 앞치마를 두룬 사진을 게재해 눈총을 사고 있다.

광주 법륜사 월인 스님은 "특정 종교를 위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냐"며 "김 의원의 종교편향적 행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항의의 뜻을 밝혔다.

최근 종교편향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에 이어, 국회의원이 특정 종교의 문구가 적힌 옷을 입고, 의정보고서 표지에 표지에 실어 지역주민들에게 발송한 것은 분명한 '정교분리 위배 행위'로 비춰지고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이와 유사한 관련자료를 모아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부처님이 봉안된 법륜대 만년 등으로 활기 ...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빚 해탈을 위한 황금 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넣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천년의 숨결로 살아온 상감청자!

그 전통과 자연으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사찰경제 발원과 불제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청다향의 마음입니다.
정갈하고 청정한 부처님의 공양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달마사 청오 합장





실용신안 특허의 기술

· 제품명 : 순금 상감청자 법륜대
· 높 이 : 120cm
· 원통폭 : 45cm
· 밑바닥폭 : 30cm
· 무 게 : 25kg

• 문의 :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010-4595-0017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제1기 다라니 명상 100일 수련 안내

명상은 단연 부처님 명상이요, 그중에서도 이 시대에는 다라니명상이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명상연구원에서는 다라니명상(108독) 100일 수련회 제1기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일 시** _ 2011년 **2**월 **19**일(음1.17)~**5**월 **29**일(음4.27) 매일 오후 2시~5시
- **장 소** _ 남산 명상연구원 수련실
- **내 용** _ 명상요가(남산걷기명상)+호흡명상(수식관)+다라니108독+명상요가
- **모집인원** _ 선착순100명 ▮ **수 련 비** _ 100일간 20만원 (카드. 분납 가능)

특히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다른 수행(참선등)이나 기도를 해보았으나 별 효험이 없었던 분. ★참되고 빠른 수행에 대하여 알고 체험해 보고 싶은 분. ★대승적 신심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진실한 수행정진을 통해 관세음 보살님을 친견하고 소원이나 문제해결을 성취해보고 싶은 분. ★몸이 아픈 분. 등은 한가지 소원을 들고 꼭 한번 참석하여 정진해 보십시오.

※ **(사)명상연구원**은 지식정보화와 무한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苦=고)가 범람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각종 병고가 많은 이 시대에 **명상을 통해 경쟁력을 기르고 대중들의 이고득락**(고통을 여의고 안락함을 얻음)**을 선도**하고자 설립되었으며 명상수련 및 연구보급을 하고있는 명상 포교원입니다.

명상연구원
www.MEDITATIONRND.org
1577-0373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88 대원정사 신관 302호

스트레스해소 및 심신치유명상 상설 운영 프로그램

• **K-MBSR**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한 스트레스감소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
지도 장현갑 교수 | 서울대학교 ·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역임), 한국심리학회 회장(역임), 한국명상치유학회 명예회장

• **아우토겐(자가이완법)**
심신을 이완시켜 생체리듬을 회복시키는 명상기법
지도 이주희 박사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의사, 임상심리사, 한국 아우토겐협회 회장(현), 아주대학교 통합의학센터 연구교수

권 선 문

삼보에 귀의하옵고
저희 대한불교고승연합회 복지 지원단에서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에 부처님과 불자를 위해 한생을 바치신 노스님들의 귀의처가 될 고승복지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하여 귀사찰, 암자 기도원에서 불필요한 폐초 및 불기를 수거하고 있사오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수거품 : 폐초, 파불상, 촛대, 향로, 제기, 불화, 공양미 등

복지 기금마련을 위하여 양초 판매하고 있사오니 협조바랍니다.

예금주 : 대한불교고승연합회 / 농협 1124-01-138620

= 자 비 실 천 =

■ 수거품이 있으실 때 연락주시면 방문 또는 택배업체 보내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복지단에서 부담합니다)
■ 보내실곳 :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삼리 227번지 고승복지단(앞) **전화 031)764-3511 / 팩스 031)764-4711**
■ 복지지원단에서는 스님 수행하시는데 불편한 각종 애로 사항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 한 불 교 고 승 연 합 회 복 지 지 원 단
단장 경 천 배 상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 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1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송등
■ 예 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청, 상단 • 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달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김법운 스님, 상운 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11년 3월 3일(목요일) 오전 11시**
■ **개 강 : 2011년 3월 10일(목요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승려, 전법사, 포교사, 재가불자등 종단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함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강의장소 : 경북 경산시 계양동 685-2 안평사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소에서 교부)
7. 접 수 처 : 경북 경산시 계양동 685-2 안평사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818-2546, 팩스 054)974-2605



영 남 전 통 범 음 · 범 패 교 육 원

역학 수강생 모집

(서라벌대학 풍수명리학과 교수들이 직접강의)

■ **육 임 학 과 정** • 초중급 완성반 : 5개월 과정 (주1회) • 담당교수 : 이우산 교수
▷약 력 : 서라벌대학교 풍수명리과 육임학 교수,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육임학 교수, 원광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 육임학 교수
▷주요저서 : 『육임입문』, 『육임실전』, 『대육임필법부평주』, 『육임책력』 등
※공개강의 및 개강일 3월 5일(매주 토요일) 저녁7시~9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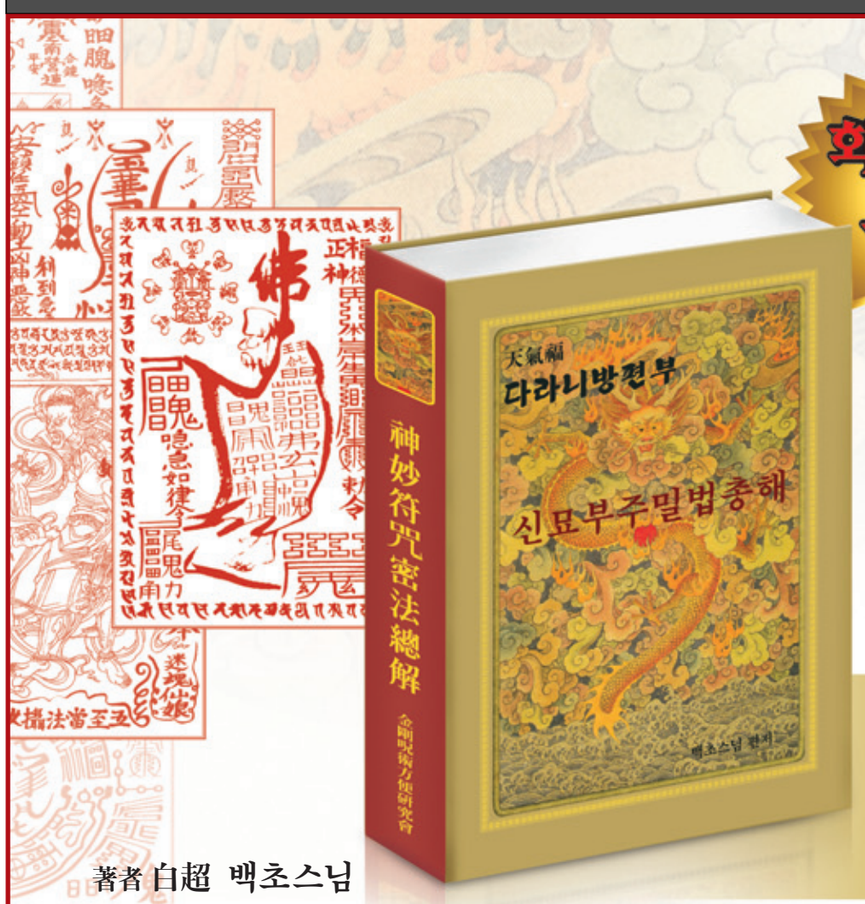
■ **기문둔갑 과정** • 초중급 완성반 : 5개월 과정 (주1회) • 담당교수 : 조영택 교수
▷약 력 : 서라벌대학교 풍수명리과 기문둔갑 교수,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기문둔갑 교수,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기문둔갑 교수
▷주요저서 : 『기문병방론』, 『기문초급강의』, 『기문중급 고급강의』, 『실전기문』 등
※공개강의 및 개강일 3월 1일(매주 화요일) 저녁 7시~ 9시30분

■ **명 리 학 과 정** • 담당교수 : 정수호 교수
▷약 력 : 서라벌대학 풍수명리학과 교수, (전)서울정화예술대학 외래교수, (전)청주대학교, 경북대학교, 대구한의대 평생교육원 명리학 교수
▷주요저서 : 『사주팔자진결(一)』, 『명리대정전』, 『복을 읽는 인상학』, 『수상과 손금의학』등
※ 기초완성반 : 5개월 과정 (매주 월요일) ※ 전문가반 : 5개월 과정 (매주 수요일)
※ 공개강의 및 개강일 3월 2일(수요일) 저녁7시~10시. 3월 7일(월요일) 저녁 7시 ~ 10시

■ **관상수상학 과정** (6개월과정) • 담당교수 : 정수호 교수
※공개강의 및 개강일 3월 4일(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 ~ 12시 30분

■ **타로카드 과정** (2개월과정) • 담당교수 : 장진산 교수
※공개강의 및 개강일 3월 4일(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10시

교육장소 : 대구시 지하철 1호선 성당못역 1번출구 세종역학아카데미
교육상담 : 정수호교수 011-246-3933 . 053)651-8596



天氣福
화제의 신간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가 않는다. 귀신도 꾀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 타블로이드판 257×364 / 536쪽 /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2)6015-6332/010-2002-6332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벳밀교와 일본 • 중국 • 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 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 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누군가 연수전 돌담 밑에 쌓아놓은 불상 모양의 돌탑.

❶ 의성 고운사(孤雲寺)

천재의 아쉬운 발자국 위를 걸으면 고개숙인 임금의 독백이 들려온다

구름이고 싶은 가운루(駕雲樓)가 차가운 바람 위에 서있다. 신라의 천재 최치원(崔致遠 · 857~?)은 이곳에서 '신라'를 생각했고, 실의에 빠진 고려의 임금 공민왕은 '고려'를 생각하며 현판을 썼다. 최치원의 발자국들과 공민왕의 독백이 남아있는 절 고운사. 고운사는 신라 신문왕 원년에 의상 스님이 창건한 절이다. 최치원이 여지(如智) · 여사(如事) 두 스님과 가운루 불사를 했고, 사찰 이름이 高雲寺(고운사)에서 그의 호를 따른 孤雲寺(고운사)가 됐다.

큰법당에서 주지 스님의 법문이 들려왔다. 달마 스님이 동쪽으로 간 까닭과 양무제의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이다. 앞의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진정한 공덕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 같다.

도량 위쪽엔 선원이 있다. 큰법당 그림자만큼 돌계단을 오르면 귀가 많이 떨어져나간 삼층석탑과 나한전이 있고, 그 옆이 선원이다. 산기슭에 닿아있는 마당 끝에 서면 햇살 쪽으로 목을 빼고 선 소나무들이 만져질 것만 같다. 동안거가 끝나간다. 한 겹 창호지 문살로 봉인된 공안들이 궁금하다. 며칠 뒤면 그 봉인을 뜯게 된다. 겨울바람이 문살을 두드리고, 나한전 마당의 낙엽들이 살금살금 선원으로 굴러간다. 갈 길을 정하지 못했던 낙엽들이 이제 갈 길을 정한 것 같다. 아래 큰법당의 법회가 끝났다.



신선이 되고 싶었던 최치원이 지은 가운루.

법당의 법회는 끝났지만 마당 한 쪽에선 돌부처님이 야단법석을 열고 계셨다. 누군가 연수전 돌담 밑에 돌부처님을 모셨다. 누군지 모르지만 큰 불사를 하고 갔다. 지나는 이마다 발걸음을 멈추었다. 불상의 모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고, 법회의 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다. 부처님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부처님이고, 그 앞에 서는 순간이 법회였다.

신라가 나은 천재는 기우는 신라를 어쩌지 못했고, 모든 시름을 던져버리고 싶었던 고려의 임금은 그 시름을 어쩌지 못했다. 하지만 고단했던 그들에게는 고운사가 있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꿈을 꿀 수 있었다. 구름을 타고 고단한 운명의 땅을 벗어날 수 있었다. 돌담 밑에 모신 부처님 앞에 서니 그들이 가운루를 찾았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다. 가운루는 그들에게 진정 구름이었던 것이다.

고운사에 간다면 가운루에 서볼 일이다. 천재의 아쉬운 발자국 위를 걷고 있으면 고개 숙인 임금의 독백이 들려온다. 고운사에 간다면 가운루에 서볼 일이다. 구름에 실려 어디론가 가볼 일이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아름다운 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팔각접등 만월등 종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윤장대 인등



용학사 목련관 위패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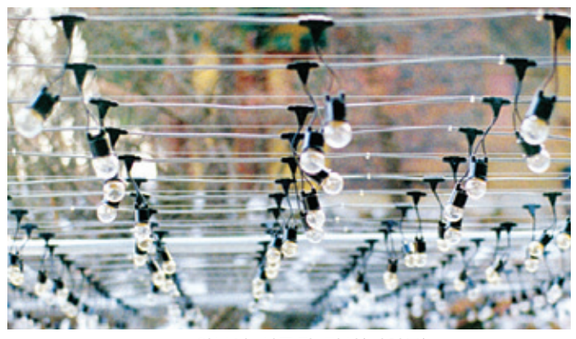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53〉

한 점 얼룩 없어도 굴에 빠진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합두(合頭)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것은 네가 합두하지 않는 거야."
학승이 말했다.
"무엇이 합두하지 않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앞의 말로 알아차려라."

問 如何是合頭
師云 是你不合頭
云 如何是不合頭
師云 前句辨取

합두(合頭)는 합치하다, 일치하다는 뜻이다. 학승은 부처님 사상과 합치되고 진실과 일치되는 것은 무엇인가 묻는 것이다. 진실은 말할 수 없다. 언어자체가 불완전한데 어떻게 말로써 진실을 다 표현한단 말인가? 그렇다고 해서 달리 어떤 행동으로 보인다고 해도 그 또한 완전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네가 합두하지 않는 거야"라는 이 뜻은 선(禪)의 백미(白眉)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선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바른 견해를 밝힌 내용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화상의 정확한 뜻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만 둬, 그만 둬. 설명할 필요 없어. 나의 법은 미묘하여 생각하기 어려워."

問 如何是和尚的的意
師云 止止不須說 我法妙難思

선사들의 법은 미묘하다. 그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선사의 의중을 파악하기 어렵다. 선사는 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만물의 근원과 통하기 때문에 그 미묘한 접화(接化)를 가히 짐작하기 힘들다. 선사는 나약한 풀잎 하나를 들고도 천하 대장정을 쓰러트릴 수 있고, 말 한 마디로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미묘법을 쓰기 때문이다.

깨끗함에 빠져도 편협한 삶
더러움에 빠져도 편협한 삶

혹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선사의 뜻을 깊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근원을 통한 한 차원 높은 이런 말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코 유치하고 허망되지 않음을 저 뒷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맑고 맑아서 한 점의 얼룩도 없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구덩이에 떨어지고 굴에 빠지고 말아."
학승이 말했다.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가 사람을 그르치고 있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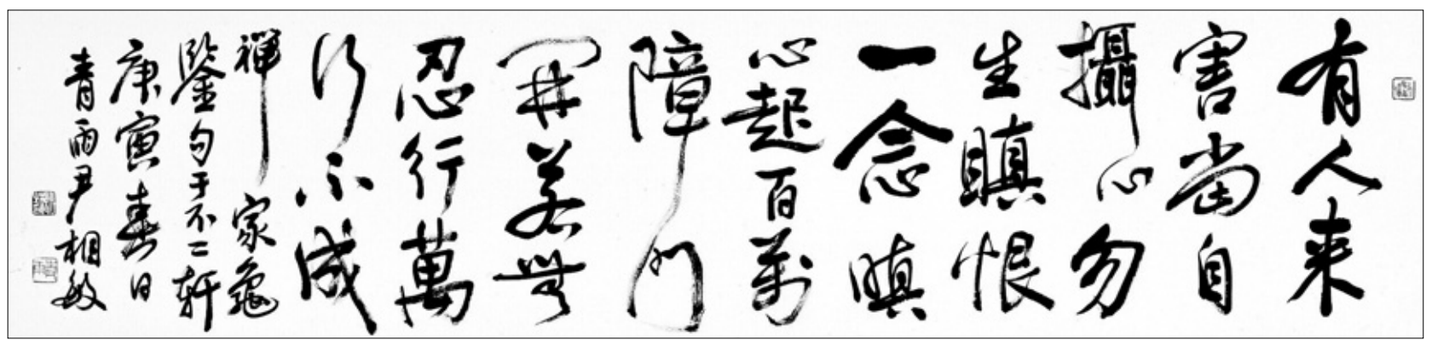
問 澄澄絶點時如何
師云 墮坑落塹
云 有什麽過
師云 你屈著與麽人

불구부정(不垢不淨)은 진리의 척도이다. 이 말에 대한 뜻을 관통하고 있다면 선과 도에 대한 핵심을 이미 꿰뚫은 것이다. 수행자들은 다만 이론뿐만 아니라, 불구부정대로 이 진리를 실현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라도 깨끗한 것에 빠져 있으면 그는 편협한 삶을 사는 것이다. 혹 더럽다는 개념에 빠져 있어도 편협한 삶을 사는 것이다. 게다가 깨끗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이 사람들을 그르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악이 중지되지 않고 흉흉하게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윤상민의 **서화산책**②



청경감선행인개장심일생섭해유
우인구가불행악문무 백진한물자래
윤춘우귀성만무 만
상일불
민 이
헌

禪家龜鑑 句(선가귀감 구)



有人來害 當自攝心 勿生瞋恨 一念瞋心起 百萬障門開 若無忍行 萬行不成(유인래해 당자섭심 물생진한 일념진심기 백만장문개 약무인행 만행불성)

어떤 사람이 해를 입히더라도 그 자리에서 마음을 잘 다스려 성을 내거나 원망하지 말지어다. 한 생각에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온갖 장애가 생기게 된다. 참는 마음이 없다면 어떤 수행도 이뤄지지 않는다.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작가)

선어록 해제 33 한국선과 선어록 4

수심결

한국의 선사상은 신라 말기부터 그 편린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다양한 불교사상이 있었지만 선사상에 대한 본격적인 수용은 나말 · 여초 구산선문의 형성과 관련시킬 수가 있다.

이후 고려 중기에 지눌의 등장과 함께 이전의 선법을 이어 그 바탕에서 한국적인 선사상 전개와 더불어 선사상을 수록한 어록 내지 저술의 형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점에서 보조의 어록은 한국의 선법에서 한국적인 선사상의 맹아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의 선사상을 살펴보는 일환으로 한국에서 저술되고 전승된 어록 내지 저술에 대해 한국의 본격적인 선전(禪典)으로는 최초이면서 널리 알려진 〈보조전서〉의 가치가 있다.

보조지눌(普照知訥: 1158~1210)은 호가 목우자(牧牛子)이고 시호는 불일보조국사(佛日普照國師)이다. 고려 제18대 의종황제 12년(1158)에 출생했다. 어려서 구산선문 가운데 사굴산문에 속하는 종휘(宗暉) 선사에게 출가했다. 25세 때 보제 선사(普濟禪寺)에서 시행된 승과에 급제했다. 그 후에 당시의 불교계가 명리와 출세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서 스스로 몇 명과 결사를 맺어 불조혜명(佛祖慧命)의 길을 지향하기로 맹세했다. 이후 〈단경(壇經)〉 〈신화엄경론(新華嚴經論)〉 〈서장(書狀)〉 등을 통해 세 차례의 깨침을 터득했다. 이후 조계산 길상사를 중심으로 크게 법화를 떨치다가 1210년 53세에 입적했다.

한국 선서 최다 저술한 보조지눌
간화선법과 돈오점수가 사상의 핵심

보조지눌은 우리나라의 선문에서는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인물로도 유명하다. 오늘날까지 전하는 것만 해도 〈권수정혜결산문〉 〈수심결〉 〈진심직설〉 〈원돈성불론〉 〈간화결의론〉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염불인유경〉 〈화엄론절요〉 〈계초심학인문〉 등이 전한다. 이 가운데 〈수심결(修心訣)〉은 '목우자수심결'이라는 제목으로서 지눌의 선법의 특색을 잘 보여주는 저술이다. 〈수심결〉은 '수심론'의 성격으로서 수행납자가 부처를 추구하는데 있어 자신의 마음[心]에 근거해야 할 점에 가장 역점을 두어 강조한 내용이다. 그 마음이란 본래적이고 주체적인 마음으로 설정돼 있다. 전체 내용은 모두 아홉 단락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총론적인 설명으로서 마음에 바탕해야 하는 근거로서 일체중생에게는 모두 본래부터 여래의 지혜와 덕상을 구비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 마음 내지 불성에 대한 깊은 신해를 통할 것을 피력하면서 구체적인 문답으로 설명해 나아간다.

첫째 문답에서는 불성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질문에 대해 불성의 의미와 견불성은 곧 자기의 주체자인 마음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둘째 문답에서는 신통변화에 대한 물음에 대해 입도의 인연으로서 돈오(頓悟)와 점수(漸修)의 의미로서 답변한다. 특히 돈오와 점수에 대해 모든 성인이 의지한 수행방식으로서 각각 개별적인 관계가 아니라 돈오한 이후에 점수할 것을 말해 돈오와 점수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접근한다. 셋째 문답에서는 마음을 밖에서 찾지 말 것에 대해 말한다. 그 방식으로 돈오한 이후에 점수를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한다. 돈오점수의 수증론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넷째의 문답에서는 자신에게 구비된 영지심(靈知心)에 대해 자각할 것을 설명한다. 다섯째 문답에서는 중하근기 사람이 행해야 하는 수행방식의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서 제법이 공적영지심이 곧 자신의 본래면목임을 자각할 것을 말한다. 여섯째 문답에서는 공적영지심의 구체적인 설명으로서 그것이 곧 중생의 각성(覺性)임을 일깨워주는 내용이다. 그것이야말로 성인과 중생이 다르지 않는 이유임을 말한다. 일곱째 문답은 다시 돈오점수의 구체적인 실천법에 대해 설명한다. 돈오한 이후에 점수해야 하는 이유로서 오랜 습기를 타파해야 할 것을 설명한다. 여덟째 문답은 선정과 지혜 곧 수행과 깨침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곧 선정은 본체이고 지혜는 작용이다. 본체에 즉한 작용이기 때문에 지혜는 선정을 벗어나지 않고, 작용에 즉한 본체이기 때문에 선정은 지혜를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 〈단경〉의 정혜일체(定慧一體)의 입장에서 설명을 가한다. 아홉째 문답은 자성정혜문과 수상정혜문이 결국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돈오점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증의 방식임을 말한다. 곧 수상정혜문은 깨치기 이전의 중하근기가 닦는 수행방식으로서 의혹을 단제하고 고요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고, 자성정혜문은 돈오의 수행방식으로서 자성을 터득하여 불도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지눌은 특히 간화선법을 수용해 나름대로 간화선의 체계를 확립했다. 이는 오늘날까지 돈오점수의 사상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선수행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업적이기도 하다. 곧 수행의 과정을 돈오한 이후의 점수로 정립했다. 또한 지눌은 〈수심결〉과 더불어 〈정혜결사문〉 및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등을 통한 성적등지문(惺寂等持門), 〈화엄론절요〉를 통한 원돈신해문(圓頓信解門), 〈간화결의론〉을 통한 간화경절문(看話徑截門) 등 삼종문의 수행체계를 완성하기도 했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대체의학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신화 같은 기적의 체험을 공개합니다

나 삼봉(三奉) 김영생(金永生) 승(僧)은 조부님 강요에 13세부터 육경신정신수련에 입신해서 81세가 된 오늘까지 병고없이 살다가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정신수련을 하면서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아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마음을 달래주는 낙으로 사는 노승입니다. 저는 46세때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이면서도 1977년 음력 1월 15일 경신 수련중에 천신으로부터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건강이 회복되어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천신의 메시지는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 터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책이 없으니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영능선사를 양성해서 천문을 열어주고 은(銀) 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먹이면 병고에서 살아난다 하시며 은용해기 만드는 법까지 가르쳐 주셔서 많은 분들께 천의선도를 전수시키면서 두통환자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위하수 전립선이상자 요실금으로 불편해 하시는 분들게 1주일에 한번씩 3,4회 기를 넣어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되고 내장기능에 이상이 있어 사경을 헤매는 환자에게는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100일씩 복용시켰더니 정상으로 회복되어 10년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고계신 암환자가 100여명이 넘는데 너무도 신기해서 나 혼자 흥분하면서 이것이 대체의학이야 라고 함성을 지르는 순간 천신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렌자 싸스병은 은용해수 농도를 조금 높여서 육각수로 만들어 뿌리고 먹이면 일순간에 소멸될 터인데 너무도 안타깝구나 하시기에 너무도 반가워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대례 3배를 올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실에 전화하고 동물방역담당관실에 전화해서 실험해 봐달라고 호소도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실에도 전화하고 은이 650여종의 균이나 바이러스를 6분내에 살균된다는 세계 박사님들의 실험논문을 발췌해서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님 친전에 속달등기로 보냈는데도 전화 한통도 없습니다. 구제역 뉴스를 보면서 안타깝다 못해 분통이 터질것 같습니다. 이 노승은 30년간 체험해 봤습니다. 아무리 심한 독감에도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서너잔 마시고 나면 편안해지고 알러지 비염이나 축농증에는 1일 2회씩 코속에 몇일간만 넣어주면 편안해지고 아토피성 소양증에는 먹고 바르면 개운해지고 류마치성 관절염은 2달안에 거뜬해지고 세균성하리는 1잔만 먹고나면 멈추는 걸 수백명에게 체험해 봤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손발이 터질듯이 부어있는 분에게 은용해수를 3일간 복용시켰더니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면서 부기가 빠지고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승이 이 세상에 알리고 싶은 대체의학입니다. 여러분 암은 균만 없어지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암을 진단 받으신 분들은 불안해 마시고 천의선도 수련을 하면서 은용해수를 당신이 직접 만들어 100일간만 드신 다음 제 진찰을 받아 보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할 분이 한분도 없을것입니다. 사찰에서 부처님앞에 은용해기 1대면 놓아두면 불자님들 건강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육각수를 만드는 비법은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환신을 받은 분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은용해기 1대 가격은 35만원인데 200명이 1달 먹을 수 있는 은용해수를 만들 수 있으며 은봉만 갈아 끼우면 무한정 쓸수 있습니다. 은이 유익하게 사용되는 사례와 세계박사님들의 입증내용을 보실려면 http://02-2216-6278kti114net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천의선도 태종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 배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천의선도 본원
연락처 010-4933-4528



사람은 날마다 꽃처럼 새롭게 태어나야



신경정신과 박사 피상순

"법정 어른스님이 오늘 오후 1시 51분 열반에 드셨습니다"고 입적 소식을 전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달 말이면 입적 1주기를 맞는다. 입적 1주기를 앞두고 안산 우리정신과 원장 피상순 박사(57)를 만났다. 피상순 박사는 의과대학 본과 1학년 때, 법정 스님이 쓰신 〈무소유〉, 〈영혼의 모음〉을 읽고 받은 감동을 어쩌지 못해 무작정 송광사를 찾았다. 눈이 많이 내려 차가 엉금엉금 기는 바람에 늦저녁에 도착했다. 늦었으니 내일 다시 오라고 해 산문 밖에서 옥신각신하는데 바깥나들이에서 돌아오던 스님 한 분이 딱한 사정 이야기를 듣고는 절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 덕분에 늦게나마 따순 저녁밥도 얻어먹고 후원에서 잠을 자고 난 피상순. 이튿날 아침 송광사 원주소임을 보던 청학 스님에게 법정 스님의 거처를 물었다. "처음엔 스님이 옻이 올라서 손님을 못 만난다고 그러더니 'ㅂ'자를 따라 올라가라고 일러주더군요. 그 말씀 따라 올라가니 마침 스님이 회색 털모자를 쓰고 물을 뜨러 나오셨어요. 처음 뵌 스님 눈이 샛별처럼 맑아서 너무 놀랐어요."

어머니가 상주 남장사에 가서 아들 하나 더 낳게 해달라고 치성을 드린 끝에 태어난 소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엄마도 함께 교회 가자!"며 엄마 팔을 잡아끌 만큼 열혈신도였다. 그러다 대학교회에서 김흥호 선생을 만나고 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불교를 잘못알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선생님은 기독교와 불교 그리고 동양철학을 구슬 꿰듯이 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듯이 석가모니는 부처님이시다. 너희도 그리스도가 되고 부처가 되려고 애써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대학교회 예배를 1부는 김동길 선생님이, 2부는 김흥호 선생님이 이끌어주셨거든요. 법정 스님을 처음 뵈었을 때 김동길 선생님과 김흥호 선생님 말씀을 드렸더니 잘 아시더라고요. 차를 마시면서 두 분 선생님이야기를 주로 나눴어요." 작은 예수라 불릴 만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피상순은 그 뒤로 아침에는 교회엘 가고 저녁때는 절에 다녔다. 절 나들이를 잦다 보니 송광사 스님들은 피상순을 다 알아보곤 "야소교 왔어?"하며 반갑게 맞았다.

– 마치 학부모라도 된 기분이요

"법정 스님은 늘 살아있는 사람은 날마다 꽃처럼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를 잃은 피상순은 스님을 아버지처럼 따랐다. "학교 다닐 때, 스님이 '편지다!' 하면서 봉투를 건네주세요. 나중에 꺼내보면 용돈이 들어 있어요." 그런 인연 때문이었을까? 첫 월급을 타자마자 스님께 드릴 선물부터 골랐다.

첫 월급 받아 보내준 선물과 용돈까지 받고 보니 마치 학부모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요.

山을 생각해준 뜻에 안으로 고마움이 가득 고이오.
…… 十二月 二十八日 合掌

"제가 전문의 따고난 다음핸가? 스님께 가서 밭도 매어드리고 친구가 도자기 굽는데도 다녀오고 학회준비도 하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리원광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스님이 여러 번 다녀가셨어요. 치료비하라고 돈도 주시고." 법정 스님은 조선일보 칼럼에 그 이야기를 썼다. "생사 갈림길이 어떤 것인지 전존재로 느꼈을 것이다.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 …만약 그때 사망했으면 재齋나 지내주며 슬퍼하다가 점점 기억에서 사라질 생각을 하니 우리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는 것인지 새삼스레 되새긴다."고.

전공을 신경정신과를 고른 동기는 뭘까? "사람들이 가진 문제가 그 사람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마음공부에도 도움이 되겠구나 싶었어요. 진료를 하면서 스님이 하신 말씀을 많이 써먹어요. 스님은 장미꽃은 저리 고운데 어떻게 저런 가시가 달렸느냐며 툴툴대기보다 보기 싫은 가시에서 어쩌면 저리도 고운 장미가 피어났을까? 좋은 방향으로 헤아리라고 하신 말씀이나, 스님이 봉은사에 사실 때 배를 타려고 열심히 뛰어왔는데 배를 놓치고 만 아쉬움에 마구 화를 낸다면 배도 못타고 화도 나니 두 가지 손해를 보는데, 뒤집어서 내가 좀 일찍 왔구나 생각하면 남보다 자리도 좋은데 잡을 수 있고 화낼 일도 없어진다고 했던 말씀을 환자들한테 들려줘요. 거꾸로 보기, 인지행동치료거든요."

– 에너자이저

인상에 남는 환자를 물었더니 전공의 시절이야기를 꺼낸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낮에는 집에 콕 틀어박혀 있다가 밤에만 살짝 나가서 술 한 잔 마시고 돌아오곤 하는 스무 살 난 청년을 부모가 정신분열증이라며 데리고 왔다. "교육자 집안이어서 형제들 모두 조신하게 제 길을 가는데, 이 청년만은 좀 특이했대요. 시를 쓰는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다니다가 학교가 썩었다며 느닷없이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버텨서 보다 못해서 데리고 왔대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피상순 박사 눈엔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는 청년이 아니었다. 그러나 식구들은 도통 믿으려 들지를 않았다. 여러 차례 부모를 만나 이 친구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어, 크게 벗어나는 일은 없을 테니 믿어주라고 끈덕지게 설득했다. 바깥나들이를 하고 싶어 하는 청년을 안타깝게 여긴 피상순 박사는 절대로 내보내면 안 된다는 보호자들 경고에 눈을 질근 감는 모험을 감행한다. "환자 보호 규칙을 아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내보냈어요. 너무 좋았나 봐요. 그때 병원에서는 환자들 정서에 도움이 되라고 토끼를 길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장에 갇혀있는 토끼가 마치 제 모습 같다면서 풀어줬어요. 그리곤 끼니를 굶지나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낑낑대면서 다시 찾아온 일도 있었어요." 청년은 병원에서도 꾸준히 시를 써서 MBC 청소년 문학상 공모전에 출품해 당선이 됐다. 그 사이에 어머니가 청년을 위해 굿을 했다. 청년은 질색을 하며 어머니를 대놓고 경멸했다. 피상순 박사는 청년에게 "굿도 우리나라 전통문화 가운데 한 줄기로 봐야 한다"며 굿에 관한 책도 구해주면서 너무 미신이라고 몰아붙이지 말고, 엄마는 엄마 세계를 살고 너는 네 세계를 살면 되지 않느냐며 설득했다. "큰 길 한 켠에 큰 바위가 놓여있는데 애써 치우려고 괜한 힘을 쏟지 말고 비켜 가면 앞길은 탄탄대로가 아닐까?" 끈질긴 노력에 힘입어 마침내 청년은 안정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퇴원하고 나서 100편이나 되는 시를 써서 제게 보내줬어요. 아마 지금도 시를 쓰고 있을 거예요." 올바로 보고 믿어주는 일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증명해주는 가슴이 찡해지는 이야기다.

아직도 처음 시작할 때 못지않게 열정 넘치는 피상순 박사. 환자를 돌보려고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할 때가 많아, 드문드문 들어가는 집이 마치 별장처럼 느껴진단다. 병원 일 말고도 간질 환자를 돕는 의사모임 장미회 활동을 18년째 꾸준히 하고, 사찰 진료봉사를 비롯해 노숙인들 슈바이처 선우경식 선생이 세운 요셉의원에도 꼬박꼬박 나가 나눔 활동을 한다. 그 가운데 짬을 내서 법원에서 이혼문제 상담도 했다. 또 경기도 부탁으로 교도소 수감자를 위한 상담 계획도 세우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종교를 뛰어넘은 여성 수도자들 모임 삼소회가 주관한 기아와 학대에 시달리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에티오피아 소녀들에게 염소 한 마리씩을 보내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을 둘레 분들한테 널리 알려 염소를 600마리나 보낸 피상순 박사, 바쁜 가운데도 세상을 맑히는 일에 적극 나서는 오지랖 넓은 에너자이저다.

– 삶 자체가 예술

법정 스님은 불일암 시절, 그곳에 늘 오는 이들을 불일권속이라고 부르며 식구들처럼 살갑고 도탑게 맞았다. "여름이면 우리는 늘 불일암 앞뜰에 멍석 깔아놓고 밥을 먹었어요. 밥 먹고 나면 인공위성 찾기를 하는데 스님이 아주 잘 찾으세요. '어? 저기다! 저기, 저기.' 하시면서…." 아스라한 오래전 일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1통, 갑근세 증명1통, 전세 계약서 사본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 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적취득신청
상 담 010-9955-9093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세히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유무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담당스님 **만 해** 합장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아쟈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 • 건선 • 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을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까페 **아토피체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여래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

을 마치 엊그제 일처럼 생생히 떠올리는 피상순 박사. 코끝이 금세 빨개진다.

"불일에 달맞이꽃이 많았어요. 한 여름 저녁이면 노란꽃잎이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시나브로 벙글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세상 시름이 다 사라지죠. 겨울 저녁 청매화가 필 때, 스님은 명상 음악을 한 곡 틀어주세요. 우리는 마루에 앉아 그 음악을 듣곤 했어요. 향긋한 청매 향기가 섞인 맑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음악을 듣다 보면 '이곳이 극락정토가 아닌가' 싶었어요. 그처럼 스님은 늘 분위기도 완벽하게 연출하세요. 나들이를 하셔도 어느 곳에 어떤 풍경이 좋다는 걸 아시곤 딱 그때 맞춰가세요. 유달산도 꼭 보름달이 뜨는 보름날 가셨어요. 인도 타지마할도 달이 뜨면 네 군데인가? 여섯 군데서 달이 보인다죠? 달 뜰 때 맞춰서 타지마할엘 가셨대요. 스님 삶 자체가 예술이잖아요. 스님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떴어요. 스님 덕분에 정말 좋은 추억들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스님 자취를 더듬어 다니면서 꼭 빠지지 않고 듣는 이야기가 스님이 지닌 절대미감 이야기다.

– 노벨소포상이 있다면

불일식구들 가운데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피상순 박사가 스님한테 크게 혼이 난 적이 있다. "제가 꽃을 좋아해서 꽃시장을 자주 다녔거든요. 유월이었나? 장미꽃이 너무 고와서 소포로 보냈어요. 스님한테. 그랬다가 산목숨을 소포로 보냈다고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숨 막히게 했다고." 그 일을 스님은 〈샘터〉 기고 글에 쓰셨다. "그는 엉뚱한 짓을 잘한다. 한번은 장미꽃을 한 아름 소포로 부쳐와 나한테 야단맞은 일도 있다. 살아있는 꽃을 소포로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생명을 지닌 꽃을 왜 그토록 학대하는가. 네덜란드나 영국 같은 나라라면 또 모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우편제도가 아직도 엉성한 곳에서는 꽃을 소포로 부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스님은 수선화도 좋아하세요. 학생 때, 친구 따라 제주도엘 갔는데 바닷가에 수선화 한 무더기가 피어있어요. 스님 생각이 나서 그냥 손으로 쑥 훑으니까 뿌리째 뽑히더라고요. '스님한테 갖다 드려야지' 마음먹고는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광주공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불일암까지 갔어요. 그때도 학생이 택시타고 왔다고 한 걱정을 들었어요. 스님은 도에서 약간이라도 벗어나면 걱정해주세요. 아버지처럼. 그 꽃이 금잔옥대 수선화에요. 하얀 꽃 안에 노란 '금잔'이 놓여있는 꽃인데 향긋하기 그지없어요. 스님은 그 씨를 받아 이듬해 수선화를 많이 심으셨어요." 스님은 그 내용도 글로 풀어내셨다. "수선은 의대생인 상순이가 제주도에 갔다가 친구 집에서 얻어온 것이다. 가져올 때 꽃망울이 맺힌 걸 화분에 옮겨 심고 날마다 한 차례씩 물을 주었다. 이름이 물을 좋아하는 수선이니까. 꽃은 50일도 넘게 질은 향기를 내뿜으면서 마냥 피어 있었다…. 눈 속에서 피는 꽃이라서 그런지 노래 가사처럼 '붙일 곳 없는 정열을 가슴 깊이 감추고 찬바람에 쓸쓸히 웃는 적막한 얼굴'이었다."

의대를 다니던 피상순 박사는 자연스럽게 스님 건강을 챙겨드렸다. "제가 의과대학엘 다니니까 스님은 어디가 아프면 제게 물어보곤 하셨어요. 또 스님이 몸이 불편하다시면 확인해 드리고 피나 소변을 받아다가 검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드렸어요. 그런 저를 스님은 홈닥터라고 부르셨지요. 그때 병원 검사실에선 어떤 분이신데 피와 소변이 이렇게 맑으냐고 묻더라고요. 불일에 가보면 가끔 스님이 빨려고 내놓은 옷을 보거든요. 그런데 그 옷이 마치 갓 빨아놓은 옷처럼 너무 깨끗해요. 몸이 아주 깔끔하신가 봐요."



'꽃을 꽃 같이 여겼던' 스님께 장미를 신문지에 싸 보냈다가 혼이 난 사람이 바로 피상순 박사다. 20대 때 일이니 30여 년 전 일이다. 스님은 꽃을 좋아하는 당신을 위해 보낸 그 마음을 알았겠지만 신문지에 싸여 며칠 동안 고초를 겪었을 꽃들이 안타까웠기에 불호령을 내렸을 것이다. 꽃을 보냈던 마음과 꽃을 안타까워했던 마음은 다르지 않았다. 꽃을 든 표정에는 그 시절 그 마음이 나타나는 것 같았다. 수선화를 들게 한 이유는 그 마음이 궁금해서 였다.

피상순 박사는 스님이 필요한 필기구도 늘 사다드리곤 했다. 스님은 문방구가 떨어지거나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피상순 박사에게 엽서를 보내 부탁했다. 그런 까닭에 스님이 붙여준 별호가 문방구담당 보좌관이다. 홈닥터로 문방구담당 보좌관으로 열심히 공무를 수행하다보니 스님께 소포를 많이 부쳤다. 스님은 노벨소포상이 있다면 상순이 차지라고 했다.

피상순 박사는 스님이 병원에 계실 때 몇 차례 현장 스님을 따라 갔다. 어느 날 그 날 따라 병실 분위기가 무거웠다. 마침 학회에서 받은 형광펜을 꺼내든 피상순 박사는 "스님, 문방구 담당보좌관 왔어요. 여기 형광펜이요" 하고는 스님에게 건넸다. 오래전 기억을 떠올린 스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고맙다는 말씀을 주셨다. 이어서 에티오피아 소녀에게 염소 한 마리 보내기 바자회에 원불교 교무님이 어른스님 글씨를 한 점 내놨는데 사람들이 서로 사가려고 덤빌 만큼 인기 짱이었다는 말씀드렸더니 스님이 껄껄 웃으셨다. "말씀 끝에 스님이 같은 시대에 함께 해주셔서 올곧게 살게 되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스님께 고마워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어디 피상순 박사뿐이랴. 구한말, 배우고 익힌 바를 몸소 실천(知行合一)한 선비 면암 최익현 선생과 함께 살았다 해서 천하동생(天下同生)이라 했고, 면암 선생이 세상을 떠난 뒤 천하동사(天下同死)라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랑

석길암의 한국불교 승려열전



민중의 삶·신앙에서 불교의 새 길을 찾다

상월원각(上月圓覺, 1911~1974)②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수행자, 그래서 기필코 중생의 고통을 함께 받아들이고자 하는 원력의 수행자를 불보살은 외면하지 않는다. 중생의 고통을 건지겠다는 그 원력이 바로 일체 불보살의 본원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의 중생을 모두 구제할 수 있는 그 길의 충만"을 향해 정진하는 태백산 석굴의 수행자에게도 그러했다. 1942년 가을의 어느 날, 수행자는 찬연하게 피어난 흰 연꽃 위에 서 계신 관세음보살을 친견한다. 오늘날 대한불교천태종의 본산이 자리하게 되는 백자동(栢子洞) 계곡의 연화지는 이 친견의 인연에서 비롯된다.

1945년 1월 보름, 그 연화지에 이르러 구인사를 창건하고 제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천수다라니를 합송하는 정진수행이 시작된다. 그 정진은 큰 깨달음(大覺)을 부르고, 큰 깨달음은 세상 속으로 다시 행자(行者)를 이끈다. 그 행자가 세상에 내놓은 길은 많은 부분에서 기존의 불교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선(禪)의 전통을 따르는 길도 아니었으며, 교학의 전통을 강조하는 길도 아니었다. 불교가 억압당하던 시절, 민중이 불교를 신앙하던 길이었다. 교학을 배우고 선(禪)을 닦을 수 없었던 시대에 불교가 민중들에게 제시했던 신행법은 염불을 통해 삼매에 이르는 길이었다. 그것은 일제의 침탈과 민족상잔을 거치면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민중들의 신앙을 불교로 이끌었던 또 다른 길이기도 했다.



2006년 단양 구인사에서 열린 상월원각 조사 열반 대재 모습.

그 길에 한 명 두 명 제자들이, 대중들이 조금씩 동참하기 시작했다. 천수다라니를 소리 높여 합송하는데, 저녁 무렵 시작해 다음 날 아침까지 철야정진하고, 다시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3시간씩 정진이 지속하는 생활이 이후의 여생 동안 잠시도 그치지 않았다. 대중의 테두리가 커지고 신행의 도량이 확장됐다.

지금의 시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민중들의 삶과 신앙을 적극적으로 불교에 수용함으로써 그 불교마저도 새로운 지향점을 가지게 된 독특한 결사운동이자 신행공동체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깨달음의 길은 산중에서 비롯됐지만, 교화의 길은 그 산중의 농투산이로부터 점차 새롭게 일구어지는 도시인들에게까지 이어졌다. 깨달음을 향한 길은 마음에서 비롯됐지만, 민중과 더불어 이루는 세상은 육체의 노동에서부터 시작됐다. 더불어 이루기 위한 세상의 울타리에는 출가와 재가가 따로 없어야 했고, 일상생활과 수행이 분리되지 않아야 했다. 자연 출가와 재가의 구분은 그리 엄격하지 않았고, 재가인 보다도 더 노동하고 더 생산하고 더 수행하는 것이 출가인임을 확연히 하는 증표임을 강조하는 삶이 일생동안 지속됐다.

1974년 6월 17일, 스님은 열반에 들었지만, 그 신행의 공동체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한 구도자의 원력으로부터 시작된 공동체가 공동체로서의 맥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 법이다. 지난 100여 년 동안 한국불교는 질곡과 진퇴를 거듭해왔다. 그리고 한국의 불교인들은 '전통'을 누누이 강조한다. 질곡과 진퇴 속에서, 급변하는 세상에서 그나마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지켜준 것이 또한 '전통'이었던 까닭이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전통이 '옛 것'으로만 그대로 머무르고 있다면, 전통은 굴레가 되기도 하다. 전통은 그것이 새롭게 되새겨지고, 새롭게 재해석될 때만 전통으로 살아남는 법이다.

강원도 외진 산골에서 시작된 '더불어 잘 사는 삶'에 대한 한 갈망이 세상을 돌아와 내 옆에 살았던 무지렁이 중생의 신앙을 새롭게 발견했다. 그리고 그 무지렁이에게 신앙만이 아닌 새로운 삶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알려주어야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그 원력이 찾아낸 길은 옛 출가자의 길이 아니었다. 무지렁이 중생보다 더한 무지렁이 중생이 되어 함께 염불하고, 함께 노동하고, 함께 생산하는 그런 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일찍이 동아시아의 승려들이 걸었던 길이었던 바, 절집을 벗어버리고 중생들과 함께 더 큰 절집을 만드는 새롭게 걷는 길이기도 했다.

우리는 그 새로운 길에서 발견해야 한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또한 불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는 이가 바로 불보살임을!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센터 교수

다라니수저

사찰공양실·불자용수저 "다라니"시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수저

불자가정에서 사용하게 품질은 최고! 디자인은 세련!



■ 사찰에는 보시·불자가정에는 선물!
■ 사찰명과 스님법명을 넣고도 제작

사찰 공양간에서 공양을 하다보면 처음 만나는 것이 수저인데 대부분 모양도 제각각으로 공양 일체감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수저는 만들 때 합금을 해서 제작하므로 오래 사용하면 긁히고 달아 보기도 싫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올 수 있어 유럽 선진국에서는 가정이나 식당에서 자주 교체를 한다. 다라니 수저는 기존 수저를 대폭 보완, 인체 친화형 디자인으로 잡았을 때 손이 편하고 부드러운 촉감이 특징이며 디자인에서 생산까지 전 공정을 국내 제작하여 재질도 최고급 스텐 27종을 사용 명품 수저로 만들었다. 수저 상단에는 건강장수를 기원하고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단청문양"과 "옴"자를 넣었다.

"다라니수저" 신제품 출시기념
공장도가 3,000원 시판

200set 이상 주문시 사찰명 또는 스님 법명, 원하시는 글씨를 새겨 제작해 드리며(실비), 선물 포교에 활용하게 수저 Set마다 고급 비닐로 포장 되어있다. 다라니 수저는 백화점에서 Set당 7,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나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공장도 가격 set당 3,000원에 사찰과 불자가정에 보급하고 있다. 포장단위는 가정용 20Set, 사찰용 50Set, 100Set 단위로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 (02)793-0023
농협 : 793-0023-1234-08 고기영

믿음과 신뢰 고영산업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불제새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건전지용 초(정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노랑·빨강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관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살아야 죽을 수 있어, 그냥 있어서는 어떤 구원도 있을 수 없지

수리아의 검-1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암흑 속의 두 소년⑤

"괴로움이 없는 연못."

무니는 창밖으로 내밀었던 머리를 다시 안으로 들이면서 조용히 그 이름을 발음해 보았다. 마음을 움직이는 이름이었다.

"왜? 저 연못물 한번 마셔보고 싶어?"

무니는 고개를 한번 갸웃하더니 "글쎄…."라고 말끝을 흐렸다. 칼키는 그런 그의 표정을 흘깃 쳐다보더니 어깨를 툭 쳤다.

"하여간 이 시원한 냄새 말이야. 어제보다 좀 더 강해진 거 같지 않아?"

"응. 사실 나도 아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 어젠 좀 더 멀리서부터 들어오는 냄새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아까부터 왜 자꾸 냄새 이야길 하는 거야?"

"네 말처럼, 나도 사실은 말이야. 처음부터 여기에 '있을' 생각 같은 건 없었어."

무니는 "그럼?"이라고 물으면서 자신도 창밖으로 다시 고개를 들이밀었다.

"그러자 여기서 영원을 살아야 했던 다른 많은 존재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운이 좋아서 청소가 되기는 했지만, 이 방에 살았을 누군가들 중에서도 그런 존재가 있을 거라고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 봤어. 너도 보다시피 여긴 책이나 음악도 없고, 물론 사람도 없어. 그런데 미치지도 못해. 죽고 싶어도 그럴 수 없지. 어쩌면 이 창문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어했을 지도 몰라. 하지만 보다시피 그것도 우리 같이 몸이 작은 애들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야. 그리고 설사 그게 가능하다고해도 그런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니까, 무의미한 일이지. 그럼 그들은 뭘 했을까."

무니는 문득 이 장소가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은 녹지 않는 얼음의 성, 변하지 않는 영원에 갇혀버린 것이다. 무니는 갑자기 답답해져오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때 칼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살·아·야 죽을 수 있어. 여기 그냥 있·어·서는 어떤 구원도 있을 수 없지. 그런데 아마 여기 있던 자들 중의 누군가도 그걸 생각했던 거 같아. 인간의 세계로 돌아가 '살 수만' 있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말이야.

"그래도 청소를 통한 소멸이 있다며? 그렇게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면야, 나쁘지 않잖아?"

여전히 가슴에 손을 얹고 있던 무니가 대꾸했다.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때를 기다리며 백 년, 천 년, 혹은 억 년을 하루 같이 그냥 '있어야' 한다고 해도?"

칼키가 반문했다. 그가 이곳에 붙잡혀 온 지 이제 겨우 몇 달이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도 자신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시간이라는 그림 속에 갇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숨을 쉬는 일 뿐이라는 느낌이었다. 몸과 마음에 무력감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희망 다음에 절망이 있다면, 절망 다음에 사람을 살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말이야."

그때 무니가 대답했다

"의지 아니야?"

칼키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다.

"맞아! 바로 그거야. 정말 살아야 한다는 의지 말이야. 그런데…."



삽화 · 김흥인

칼키는 말을 멈췄다. 무니는 의아한 듯 그를 쳐다봤다.

"얼마 전에 나는 여기서 그 의지를 발견했어. 그리고 오늘 밤에 그걸 실행할 생각이야."

"무슨 소리야?"

"너와 같이 여기서 나갈 생각이라고. 이 친구야."

무니는 칼키의 선언과도 같은 그 말투에 놀라 창틀에 턱을 부딪히고 말았다. 칼키는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시선을 다시 하늘로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에 저기 어디선가 까만 점 같은 것이 그들 쪽을 향해 날아오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칼키의 눈가에 가득했던 웃음기가 사라졌다. 무니도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을 따라가 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끝없이 펼쳐진 하늘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 아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해서 오히려 손에 닿을 것처럼 가깝게 느껴지기도 했다. 어쩌면 하늘색 벽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무니는 괜히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휘저어 보았다. 역시 허공이었다. 조금 더 팔을 뻗어볼까, 라는 생각에 무니는 몸을 한껏 창 쪽으로 붙여 다시 팔을 휘저었다.

"너 뭐해?"

무니는 흠칫 놀라 손을 거두고 괜히 헛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흠흠. 그러는 넌 뭘 그렇게 보고 있던 거야?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나간다는 건데?"

칼키는 창밖에서 몸을 살짝 떼더니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다.

"안보여, 저거? 잘 봐. 네가 벽일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텅 빈 하늘에 뭔가 나타났다고."

무니는 그 말에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해서 칼키가 바라보던 곳 쪽을 다시 바라봤다. 그러자 그의 말처럼 정말 뭔가 보이기 시작했다.

"아! 보인다, 보여! 저게 도대체 뭐야?"

"우리를 여기서 나가게 해줄 의지."

"여기서 나가게 해줄 의지?"

"응. 바로 향기의 나무야."

칼키는 창에서 내려와 탁자 위에 걸터앉은 채 천천히 다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의지는 뭐고, 향기의 나무는 또 뭐냐."

무니는 칼키를 내려다봤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알 수 없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포기했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무니는 역시 칼키처럼 베개 위에서 내려와 탁자에 걸터앉았다. 그리고 그의 흔들리는 다리를 툭하고 걷어찼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니까?"

칼키는 "역시 폭력적이군"이라며 소리 내 웃더니, 목소리를 가다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기 와서 처음 한 달 정도는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 말을 걸 수 있는 상대도 없었고, 할 수 있는 일도, 해야 할 일도 없는 하루하루였지. 그래서 잠만 잤어.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이 방 앞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 거야. 나는 얼른 뛰어나가 그에게 말을 걸었지. 바로 간수였어. 나중에 들은 건데 그가 얼음의 성을 한번 다 돌아보는데 18년이 걸린대. 그러니까 나는 운이 좋았던 셈이야. 그리고 내가 그에게 이곳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을때, 건너 방에 있던 어떤 정령도 우리의 대화에 끼어들게 됐어. 내가 이야기했던가. 얼마 전 소멸됐다는 그 정령 말이야. 그 정령이 거기에 있다는 것도 그 때 처음 알았지. 아무튼 둘은 이 감옥에 아주 오래 머물고 있던 존재들이라 여러 이야기를 들려줬어. 사실 이 감옥에선 간수 역시 또 다른 종류의 죄수이기도 하거든. 그 대신 그는 매일 매일을 새롭게 살 수가 있지. 물론 인간의 하루와는 다른 종류지만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하루가 지나가고 나면 나와의 대화 같은 건 모두 잊어버리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인지 오히려 쉽게 많은 걸 내게 들려줬어. 정령 아저씨와 함께 말이야. 눈의 산과 얼음의 성, 괴로움이 없는 연못과 소멸의 의미에 관해서. 그리고 향기의 나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도대체 그 향기의 나무라는 게 뭔데?"

"흠. 그건 파라지타라고도 하는데 말이지…."

간수는 칼키에게 향기의 나무 파라지타는 인간계와 천상계 사이에 수 천 그루 이상이 존재하며 각기 다른 향기를 내뿜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이 하늘을 돌아다니며 온 세계에 향을 퍼뜨린다는 것이다. 파라지타는 그 모양 역시 갖가지인데 공통적으로 뿌리가 하늘을 향해 있는 모습, 즉 거대한 나무가 거꾸로 서 있는 형태라고 했다. 이 아래를 향한 나뭇잎에서 향기의 씨앗들이 쏟아져 내려 세계 곳곳에 퍼지면, 지상의 인간들은 꽃과 풀이나 바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서 그 향기를 맡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여기서 나가게 해줄 의지라는 거야?"

긴 설명은 그만 듣고 싶었던 무니가 칼키의 말을 끊었다. 칼키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그게 말이지. 그 나무는 뿌리를 허공에 두고 하늘 위를 떠다니는데, 그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야. 그리고,"

칼키는 말을 하다 말고 갑자기 탁자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무니가 '뭐하냐?'라는 표정으로 그런 그를 바라보는데, 탁자 밑에서 칼키가 안 들어오고 뭐하냐는 듯 무니에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여기 와서 이것 좀 봐."

칼키는 자신 옆에 기어들어온 무니에게 탁자의 아랫부분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가 가리킨 것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그어져서 거의 하나의 도형처럼 보이는 빗금들과 그 사이에 드문드문 적혀있는 어떤 문자들이었다. 그러나 무니는 그 빗금들의 의미를 알 수 없었을 뿐더러 문자도 해석할 수 없었다.

"이게 뭐?"

"저 문자 말이야. 잠부 사람들의 고대 언어거든."

"고대 언어? 그걸로 여기다 뭐라고 써놓은 건데?"

무니는 손가락으로 탁자 아래에 새겨진 빗금들과 문자들을 더듬으며 물었다.

"향기의 나무에 대한 기록."

"뭐?"

무니의 눈이 동그래졌다.



2011년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최고의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로
불교인재 양성

배움이란 마라톤처럼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동산반야회 28년의 역사와 그 바탕으로 19년 전 설립된 본 대학은 불교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동산불교대학이 자성을 찾아 인격과 덕성을 함양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불교학과 (2년과정)

1년차 교과목	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법화사상,대승불교,화엄사상, 정토사상,밀교사상,불교사회복지론	무진장대종사(본대학학장), 정병조교수(금강대), 차차석교수(동방대학원),김상현교수(동국대), 박종교수(동산대), 주명철교수(동방대학원), 정엄스님(승가대), 법상스님(승가대), 종석스님(승가대), 보각스님(승가대)
2년차 교과목	불교학개론,불교미술,선학의이해,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근본불교,반야사상,유식사상,불교상담론	최종석교수(금강대), 김호귀교수(동국대), 윤열수교수(동국대), 활안스님(동산대), 최봉수교수(대원대), 김형준교수(동산대), 묘주스님(동국대)

불교학과 180명 : 목요반(오후2시), 토요반(오후 6시), 통신반

불교관련학과

학과 및 과정	교 과 목	교 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한문학과 (2년과정/정규반 · 통신반 각 20명)	천자문역해, 한문해석 금강경(1),(2), 중국고전(장자, 유마경(1), 초발심자경문, 삼국유사 등	이윤숙교수	3월 10일(매주-목) 오후 7시
불교다도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제다실習, 육대행다다류, 차의 미학, 티테이블세팅, 한국차, 중국차, 일본차, 홍차, 차명상	박희준교수	3월 8일(매주-화) 오후 2시
불교미술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불화기본, 사불, 단청, 여래초, 보살초, 사왕초 등	법인스님	3월 10일(매주-목) 오전 10시30분
사찰음식문화학과 (1년과정/정규반 20명)	사찰음식(봄, 여름, 가을, 겨울)	정산스님	3월 9일(매주-수) 오후 2시

불교대학원(법사과정)

학과 및 과정	교 과 목	교 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학과(3년과정/정규반 · 통신반 각 30명)	불교 포교론(2)	활안스님	3월 7일(매주-월) 오후 7시
	팔천송반야경(1)	김형준교수	3월 8일(매주-화) 오후 7시
	초기불교 수증론(3)	최봉수교수	3월 10일(매주-목) 오후 5시
불교다도학과(2년과정 20명)	다경, 다부, 대관다론, 다신전, 동다송	김진숙교수	3월 15일(매주-화) 오후 4시

동산불교의식교육원

학과 및 과정	교 과 목	교 수	개강 및 강의일시
한글의식반(1년과정 20명)	상주권공(이론,실습) 강좌, 한글의식기본,예불의식, 왕생의식 실습	만춘스님, 문종순법사	3월 5일(매주-토) 오후 2시
범패의식반(2년과정 20명)	범패 실기(관음시식, 상용영반, 천수바라, 요잡바라, 나비춤 등)	인각스님	3월 9일(매주-수) 오후 3시

원서문의 · 교부처

본대학 사무처 TEL (02)732-1206,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특전사항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출강 및 통신

2011학년도 제 20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20년 법사양성 연륜과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1학년도 제20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불교법사 자격과 기회
만족을 성취하여
보십시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④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02)733-1959
720-1836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교육기간	· 법 사 과 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교과목 및 범음 · 범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1년 2월 25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부산교육원 (☎ 051-466-1959) ·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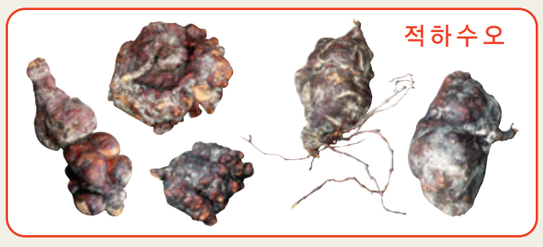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문 의 : 010-8442-4444(상담) / 010-3534-8366(농장)
■ 묘목 재배 농장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176번지

전국 사찰전문 공급업체

다영보이 茶瑩普珥



순수자연 야생보이차



1. 중국 운남성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북부 청정지역의 야생차엽을 현지인들이 채취하여 현지 공장에서 제품화하고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제품입니다.

2. 정식 수입통관 절차 및 부산세관 식약청의 무농약·중금속 검사를 모두 통과 하였고 2010년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무농약 입증검사 실시 통과한 제품입니다.

3. 다영보이는 1996년 약 12년 이상 정성을 다해 산차로 숙성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증기로 쐬어 숙차병차로 만들었으며 철저한 관리에 의해 보관하여 부드럽고 깊은 보이차만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 판매원 : 마하몰 02)732-1520
• 제조원 : 다 영 보 이 02)959-887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 토마토파르코오피스텔 1507호

www.dayoungtea.co.kr
www.다영보이.kr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16-823-0483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수행자들의 정성으로 만든 자연 발효 식품

100% 순수 국산콩 으로 만들었습니다.
(생산지 : 경북 영주)

우리 땅에서 자란 콩으로 빚은 복메주는,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얼이 베어있는 순수자연 발효식품입니다. 자연에 의존하여 만들어지는 전통 메주는 햇살과 바람의 숨결로 말려지고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 숙성되는, 하늘의 기운을 머금은 자연이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특징
· 국산콩을 가마솥에 장작불로 삶아 나무틀에 한장 한장 정성으로 넣어 만든 수공메주 입니다.
· 발효균을 인공적으로 주입하지 않고, 전통 방식 그대로 자연발효로 띄워서 깊고 깔끔한 맛이 납니다.

福 금강정사 복식품

서울법당: 02)742-0172 / 010-8651-3658
대구법당: 053)425-3063 포항금정사: 054)262-1213
울산법당: 052)211-2161 부산법당: 051)514-3566
대전법당: 042)862-5539

지리산 돼지감자로 만든 판매!

"지리산 야생국우차"



자연이 만든 인슐린 돼지감자란?
당뇨병, 류마티스, 골절, 타박상, 해열, 지열, 비만증, 다이어트, 변비에 효과가 있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우는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눌린'은 칼로리가 없으며,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 장으로 내려가므로 혈당이나 혈중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 단 음식을 먹을 때 신경쓰시고 조절하셔야 하는 분
• 식이섬유 섭취 및 몸매관리를 원하실 때
•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몸이 뜨끈뜨끈 해지시는 분
• 부모님 선물로 최고, 어린이 비만치료에 좋습니다.



돼지감자차 판매 문의 남원 선원사
TEL 063)631-0108 FAX 063)625-2946
농협 301-0041-7701-11(지리산 청소년 예술제)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신묘년 신축불사안내

신묘(辛卯)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을 맞이하여 귀댁에 뜻한바 꼭 이루시고 항상 즐겁고 행복한 웃음 꽃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시기를 빕니다.

삼가 입춘에 이르러 경남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 산 19-11번지에 해월사 신축 불사를 소승이 하게되어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요사채와 대웅전 기둥부터 기와까지 불사금을 접수하고 있으니 뜻이 있으신 불자님께서는

농협 351-0257-2084-93 해월사로 보내주시고
전화 010-6253-3107이나, 010-2503-3107 또는

bsm3107@네이브닷컴의 이메일로
주소와 집식구들 사주를 보내주시면
축원 카드를 작성하고 법당 완공시
다시 귀댁에 안내장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당 완공일은 (음력) 6월에서 8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4월8일전 완공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호가 항시 같이 하시길 빕니다.

해 월 사 주 지 하이 합장

원통 스님의 예불대참회문 DVD 특가 판매



원통스님
해인사 백련암으로 출가 성철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보성 스님을 전계사로 전계하였고, 1997년 정토원을 건립.



예불대참회문
대자비로 중생들을 어여삐보셔
대희대사 베푸시어 제도하시고
수승하신 지혜덕상 장엄하시니
저희들이 정성다해 예배합니다
자성귀명례 금강상사
귀의불 귀의법 귀의승

■ 원통스님 예불대참회문 1 S E T : DVD 26개 52장

원순 스님의 몽산법어 DVD



■ 원순스님 몽산법어 :
DVD 9장 100,000원

구 입 문의 : 불영TV 김봉환 010-8519-9279
02)2236-7209
http://www.bytv.kr 〈법보시用 할인가로 판매합니다〉

알 림

2010년 8월 11일 수요일자
현대불교신문 광고란에
(사)한국불교조계종 자화스님 제적공고
및 2010년 8월 25일 현대불교신문에
'자화스님은 문공부 등록 141호 및 모든
행정서류를 쓰지 못한다'는 글들은
본인이 잘못 알고 기재한 글이며,
이 글로 피해를 본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화스님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2월 16일

울산시 불구 대안동 439
천 수 사 월정 합장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분거리 국도 옆)
■ 면 적 : 사찰 전시관 2층(신축) 240평 외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대중공양실, 기념품판매장 총 2,200평 , 산 1만 5천평 포함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 좌불(목불), 국내최대 관음목불입상, 50여점 크리스탈개금불, 천여점 희귀불상 전시(국내최대전시장), 외관벽 일체 크리스탈 장실 만다라 액자로 장식
■ 연간 5만명 참배, 천도재 월 10건이상
■ 전시관에 전시중인 크리스탈 개금불은 주지스님이 10여년간에 걸쳐 조성한 창작개금불로서 일본으로부터 불교예술의 새 역사를 연 작품으로 호평 받고 있으며, 절대 모방이 불가능한 불상이며 참배하시는분께도 황홀함이 빠져드는 작품으로서 TV방송 등 총 18회 방영된 바 있습니다.
■ 양도가 : 35억 가능
■ 사찰내역은 인터넷상에 포항 성취관을 입력하십시오.
■ 연락처 : 054)249-1023
휴. 010-4504-0174
■ 자금력 있으신 대덕스님께서 운영하면 대 성공을 확신합니다.

무료 수강생 모집

"아는 것이 힘이요, 기술이 능력이다.
이것이 재력이다"

이 기술은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통증관리사 등 건강과 관련한 직종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술이다.

이 기술은 우리 인체의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이다.

(각종 두통, 목이나 허리 디스크, 척추 전만 후만 측만증, 척추 협착증, 오십견 각종 어깨의 통증, 팔을 들지 못하는 증, 팔의 회전이 어려운증 등 골반이 변위되어 각종 통증이 발생한 경우, 몸이 한편으로 기우는 경우, 장단족, 무릎이나 발목의 변위로 발생하는 각종 통증 등 1000여종이 넘는 수많은 외과적인 질병들이 즉석에서 회복하는 것을 직접 실기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여 드림)

■ 효과는 마약이나 진통제보다 빠르게 즉석에서 효력을 알 수 있음.
■ 부작용은 단 1%로도 없음.
■ 도구가 필요하지 않음.
■ 이 기술은 경락의 이름이나, 근육의 명칭이나, 골격의 명칭이나, 병명을 몰라도 치료되는 기술이라 배우기가 너무나 쉬워 배우면 즉석에서 활용하는 기술임.
■ 시술 시에 힘이 들지 않아 하루 수십명도 시술이 가능함.
■ 이 기술을 배운 후 취업이나 창업도 지원함.

원심한의원 051)802-0661
원심수기 보존회장 원공 019-305-9138

바른정법.바른인연

부처님의 정법 (경전 및 조사어록)만을 고집하는 수행 납자입니다. 이제 새로운 터를 마련하여 대웅전(법당)을 건립하고저 하오니 불사에 동참할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재, 부적, 철학, 조류방생, 인등, 합격의 등, 사업성취등의 일체 기복을 사절하오며, 시한부 암환자나 희귀병자, 신병등의 환자분들과 **인간 방생의 인연을 짓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타 종교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서울에서의 도량에서 소리 소문없이 정법의 기도로서 지난 십 수년간 책을 내고도 남을 만한 많은 분들이 병석에서 일어나 각자 새 삶을 얻어 생활 터전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 언제든지 확인 가능함 -

법회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합니다.
(현재는 천일기도 및 동안거 백일기도중)

불.법.승. 정법.실천도량
연 등 사 (선재불교대학) 대 중 일 동
주소 :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11-1
전화 : 055)633-6555

윤남진 REVIEW

문학은 허상이 아닌, 삶의 가르침


문학의 숲을 거닐다 | 장영희 지음 | 샘터사

"문학은 인간이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는가를 가르친다. 문학은 삶의 용기를, 사랑을, 인간다운 삶을 가르친다. 문학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치열한 삶을, 그들의 투쟁을, 그리고 그들의 승리를 나는 배우고 가르쳤다. 문학의 힘이 단지 허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도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본문 318쪽)

〈문학의 숲을 거닐다〉의 저자 장영희는 2001년 유방암, 2004년 척수암, 2008년 간암, 그리고 2009년 5월에 쓰러져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쓰러졌다고 해서 '문학의 힘은 허상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훼손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명제의 진실함은 강화됐다. 왜냐면 그의 죽음은 암과의 투쟁 속에서 이뤄졌을 것이지 결코 암에 굴복한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같이 확신하는 이유는 이 책을 위암 선고를 받고 위 전체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은 후에 읽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무한한 용기를 얻었으며, 그 용기로 다시 한 번 열정을 불태울 꿈을 막 실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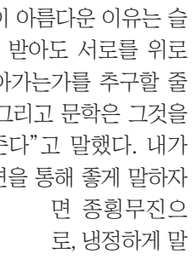
나는 2008년 11월 위암 진단을 받았다. 위를 모두 떼어내야 한다는 의사의 설명에 나는 담담했다. 그리고 수술 하루 전까지 18강으로 구성된 인터넷 강의 '제1기 사회적 기업가 양성과정'을 입원실 로비의 컴퓨터에 500원 동전을 넣어가며 모두 마쳤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병실을 나가면 바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 계획을 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1주일도 되기 전 의사는 퇴원해도 좋다고 했다. 그러나 의사가 아무리 밥통 역할 외에는 그다지 큰일을 하지 않는 장기라고 말했어도, 위없는 삶은 녹록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년 남짓의 세월을 흘려보냈다.

나는 수술 전에 품었던 꿈을 실행하기 위해 지난 설날, 영리기업 운영에 대한 48시간의 경영자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초보적인 책들도 보았으며, 영리조직에 단 한 순간도 몸담아보지 않은 내가 대차대조표니 손익계산서니 하는 것들의 원리를 초보자 국문 배우듯 익혔다. 이제 한 50억짜리 신 사업계획서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도 준비할 것이다.

나의 이 모든 도전과 열정의 바탕은 돌아가신 나의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르도록 불을 붙인 것은 이 한 권의 책이었다. 나는 퇴원 후, 비좁은 전세방에서 투병하기에 맞춤한 '라꾸라꾸 침대'를 하나 사놓고 그 위에서 이 책에 소개된 영미문학의 고전들을 밤새 읽었다. 비록 저자가 소개한 70여 편의 책은 절반도 읽지 못했지만, 이들 문학 고전들은 종교, 사상 혹은 사회과학 서적에 경도됐던 나에게 정서적 풍요와 균형감각을 갖게 해줬다.

저자는 "인간이 아름다운 이유는 슬퍼도, 또는 상처 받아도 서로를 위로하며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추구할 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학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말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지면을 통해 좋게 말하자면 종횡무진으로, 냉정하게 말하자면 번다한 종류의 책들을 소개해 왔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이 지면을 넘겨주고 싶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수백만 마리의 소와 돼지가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냉정하게 효율과 효과를 따지고 이윤을 따져야 하는 것이 사업가가 해야 할 기본적 업일 것이다.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길을 가야하는 모험을 감행해야 할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지면은 너무 무겁고 귀중하다. 그 대신 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먹고 살아갈 터전을 더 많이 만들고, 그것이 비록 기능적이고 도구적일지라도, 무임승차권으로 천안이나 춘천에 가는 것 말고 더 슬기롭고 보람되게 노년을 보낼 재주를 가르쳐 주는 그런 장을 개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다. 삶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 어떤 사람의 삶도 모두 장한 것이다. 그처럼 장한 사람의 삶을 노래할 사람이 나타나서 이 지면이 더욱 빛나기를 바란다. 〈끝〉

꿈을 실현케 해준 단 한권의 책
위암 수술 후, 꿈과 용기얻어
문학 통해 정서적 풍요와 균형 갖춰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연구위원장

화엄사상이 21세기 경영의 빛이 된다

저자 김형진, 〈화엄 경영전략〉 펴내
대기업 차장 선재의 新 구도기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 도요타는 60년 동안 최고의 명성을 날리며 세계인들에게 사랑받아왔다. 그러나 도요타는 현재 품질 안정상 문제를 비롯해 판매부진과 소송사태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 지금도 수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끝없는 불황과 위기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

그렇다면 21세기 기업의 경영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경영방침으로 기업을 운영해 나가야 하는 걸까. 〈화엄 경영전략〉은 21세기 기업들을 위해 경영이론을 〈화엄경〉을 통해 밝히고 있다. 저자 김형진은 화엄사상이 활기차고 진취적이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현대 경영에 맞는 경영철학이라고 주장한다. 책은 디즈니, 포드, GM, 크라이슬러, 혼다, 코카콜라, 그리고 구글을 비롯한 수많은 거대 기업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화엄 철학의 관점에서 자세히 분석하고 평가했다.

지금 세계는 1920년대 대공황이전부터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마치 윤회처럼 되풀이되는 경제위기는 세계 경제의 숙명인 것처럼 보인다. 저자는 자꾸만 되풀이 되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문제가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처럼 그 해법 또한 우리 스스로가 이미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산업혁명이후 거의 300년 동안 활발하게 확대 발전돼 온 서구의 기존 경영이론은 2008년의 금융위기이후 벽에 부딪혔고,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규모로 거대한 혼란과 무질서를 낳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접근법에 주목해야 하며, 그것은 전체적인 접근법과 사사무애를 강조하는 화엄사상이라 강조한다.

현재 경영학계에서도 단기적 혹은 대증적 방식으로 일관하는 지금의 해법으로는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고통을 해결할 수 없기에, 경제위기에 대한 전체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불교의 가르침에서 찾고 있다. 저자는 가상의 교수를 설정해 이들의 특징에 맞춰 그들의 전문 분야에서 바라보는 현대 경영학 이론을 분석해 설명하고 있다.

저자 김형진은 1990년대 미국 오하이오 주의 글로벌 기업의 전략기획실에서 유럽시장과 아시아시장 분석업무를 맡아 일했으며, 1998년 구국해 외교통상부에서 통상 전문관으로 대미 협상과 무역 분쟁을 맡아 소주 분쟁, 자동차 분쟁, 한미투자협정 등의 일을 처리했다.

화엄 경영전략 | 김형진 지음 | 메이문화 | 1만5000원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1~8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3	아침을 여는 365일 행복편지	법상	조계종출판사
4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5	생각 버리기 연습	코이케 류노스케	21세기북스
6	노자 도덕경, 그 선의 향기	감산	정우서적
7	정성 성이 부처입니다	우룡	효림
8	선방일기	지허	불광출판사
9	초기불교이해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10	입보리행론	샨티데바	하얀연꽃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차안과 피안을 잇는 희망의 무지개

불교의 숨은 뜻 찾기…
'사찰의 문과 다리'



산사를 방문할 때 우리는 대웅전을 먼저 찾고, 불상 앞에서 기도를 올린다. 하지만 대웅전에 들어서기 전에 무심히 지나친 사찰의 다리와 문은 이미 우리에게 불교의 깊은 진리와 불교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사찰의 문과 다리〉는 문과 다리의 외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분별과 경계를 허물고 소통과 화합을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쉽게 풀어내고 있다. 책은 대한불교진흥원이 불교문화의 가치를 되짚어보기 위해 출간한 '불교문화총서'의 네 번째 이야기다.

저자 권중서는 사찰의 다리를 '차안과 피안을 잇는 희망의 무지개'로 보고 있다. 불교에서 '다리'는 부처님과 중생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다. 중생은 부처님에게 깨달음을 구하고 부처님은 중생에게 깨달음을 전하는 연결고리이자 통로가 다리인 것이다.

고성 건봉사의 능파교는 세상의 파도를 뛰어넘어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능파는 '파도를 뛰어넘다' '능히 세상의 파도를 건너게 한다'는 뜻이다. 건봉사에서는 능파교를 건너야 대웅전 구역으로 들어설 수 있다.

경주 불국사의 청운교·백운교는 범부의 세계인 사바에서 피안의 세계인 불국의 세계로 진입하는 계단 형태의 다리다. 불교의 우주관을 나타내는 33개의 계단은 각 계단마다 중생세계 하나에 해당하는 의미를 담아 33종류의 중생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33종류의 중생세계를 지나 깨달음을 얻어야 불국의 세계에 다다를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다리가 이처럼 '차안과 피안을 잇는 희망의 무지개'라면 이 책에서 문은 '너와 나, 진과 속의 경계를 허무는 소통'의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다.

불교에서 문은 구분과 경계를 두지 않는다. 오히려 나와 남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를 이어주는 포용을 보여 준다. 사찰이란 곧 열린 공간이고, 사람들에게 익숙한 경계와 구분에서 나오는 차별을 소멸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보림사 일주문은 한국 선종의 첫 문으로 조계종이 시작됐던 문이다. 일주문 안쪽의 편액 '선종대가람(禪宗大伽藍)'은 보림사가 보조 체징 선사로부터 구산선문을 표방하는 선찰임을 나타내고 있다. 들어가는 앞면에는 '가지산 보림사'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가지산(迦智山)'은 범어로 음역하면 일체의 도리에 대해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잘 결정하고 판별해 번뇌를 끊는다는 뜻이다. 일주문에 붙어 있는 현판 하나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춘천 청평사의 사천왕문은 회전문이라고 불린다. 사천왕이 인간세계를 항상 돌며 살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회전문은 다른 사찰의 천왕문에 비해 작은 규모이며 마루를 깐 독특한 양식을 보인다.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대들보와 마루대공뿐인 간단한 조립이며 처마에는 부연도 달지 않았다. 윗부분에는 화살 모양의 나무를 나란히 세워 만든 홍살을 배열해 마음을 가다듬고 정결히 하도록 했다. 청평사 회전문은 사천왕이 지금도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있지 않은지 마음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를 던지고 있다.



사찰의 문과 다리 | 권중서 지음 | 대한불교진흥원 | 2만원 박기범 기자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요법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반신욕 을 하면 하체의 따뜻한 혈액과 상체의 차가운 혈액사이에 대류현상이 일어나 잘순환 된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 되기 때문에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휘나핫반신욕기는 3~4년전부터하루 200~250명씩 무료체험을 하였으며 지금은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체험방을 이용하는 체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휘림건강 (주)은 철,칼슘,마그네슘, 셀레늄,등이든 광물질 30여종 (특허획득 제10-096707 호 발명의 명칭 :세라믹 전기발열체 및그제조방법)을 혼합하여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디스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자사의 브랜드인 휘나핫 반신욕기에 내장하여 보건진료소, 노인정 경노당,한의원,산후조리원, 복지원,등에 납품 하고 있고 ,2011년에는 가정용을 개발하여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대씩 보급 될것이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기능성 반신욕기 어디까지 개발됐나
기술의 진보가 건강 혁명을 일으켰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한마디로 기술의 진보가 이룩한 건강혁명이다.

휘나핫 슈퍼블랙디스크 반신욕기는 일반제품과, 제조방식이 전혀 다르며 30여종의 광물질에서 방사되는 B.CP 슈퍼블랙디스크는 섭씨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특별한 온열이다. 여기서 나오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로 반신욕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면상 발열체 반신욕조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이 기능성을 갖는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기능성 외에도 친환경을 고려했다. 이동이 편리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설계됐으며 가구개념을 도입하여 고풍스런 분위기를 위하여 원목 (적삼목)으로 제작했다. 휘나핫B.C.P 반신욕기는 신개념의 발명품이랄 수 있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능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부림출판사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2월에 화랑으로 꽃놀이 한번 떠나볼까

이호신 화백, 순례길서 만난 사계절 꽃으로 인드라망 엮어내는 '화신' 展



이호신 화백은 '화신' 전을 통해 사계절 꽃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벌써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 꽃을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서울 삼성동 중아갤러리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사계절 꽃이 만연히 피어있다. 이호신 화백은 2010년 '진리의 숲 천불만다라'에 이어 올해 '화신'이란 제목으로 전시를 개최했다.

전시실 안은 금방이라도 꽃향기에 취할 버릴 것처럼 꽃 그림으로 가득하다. 매화는 물론이며, 수선화, 산수유, 찔레꽃, 차꽃, 호박꽃, 연꽃, 갈대, 민들레, 목화, 벚꽃까지 다양한 꽃들이 이호신 화백에 의해 온몸을 드러내며 태어났다. 이호신 화백은 순례 작가로 정평이 나있다. 순례 길에서 만난 자연을 통해 삶의 진리를 포착하고, 이를 그림으로 승화시킨다. 단순한 꽃 그림을 넘어 그 속에는 인간의 삶과 자연, 생명에 대한 경외가 인드라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전시는 중아갤러리에서 2월 16일~3월 7일, 서울 가양동 겸재정선기념관에서 3월 10일~4월 17일 열린다. (02)538-1271, (02)2659-2206

-작년에는 '천불만다라' 전시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천불만다라 전시가 이번 작업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번 전시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무엇인가?

천불만다라를 작업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 특히 기법이나 재료가 예전보다 훨씬 확대됐다. 이번 전시작품들은 천불만다라를 작업하면서 배웠던 기법과 재료들을 많이 응용했다. 특히 채색화 부분에서 그 방법들을 많이 활용했다. 나는 이 점을 이번 전시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작품 준비에 앞서 항상 순례를 떠난다고 들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보통사람들의 여행이 현장을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라면, 나는 그 현장에서 함께 숨 쉬려고 노력한다. 직접 그 곳에서 자고, 먹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느끼려 한다. 그렇게 함께 숨 쉬어야 비로소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벌써부터 봄이 느껴지는 것 같다. 특별히 꽃을 주제로 한 이유라도 있나?

대관소찰(大觀小察)이란 말이 있다. 크게 보고 작게 살핀다는 뜻이다. 큰 산이나 마을에는 항상 작은 생명들이 살고 있다. 들꽃이나 이름 모를 풀처럼 작은 것들이 모여 산을 이룬다. 여러 산들을 돌아다니면서 작은 생명의 귀중함을 알게 됐다. 이번 전시의 주제를 꽃으로 잡은 것은, 흔히들 봄에만 꽃이 많이 피는 줄 알지만 꽃은 계절과 관계없이 항상 피어있다. 사람들에게 꽃이 항상 곁에 피어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꽃 중에서 특히 매화가 많이 등장한다. 매화가 어떤 영감을 주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다.

-매화는 사군자(四君子)중 하나다. 옛 선비들도 매화를 사랑했다. 매화는 매서운 겨울이 지나야만 피는 꽃이다. 나의 삶도 매화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겠다는 마음에서 매화를 그렸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 활동계획에 대해 한마디 부탁한다.

지금 전시 준비 외에 하는 일이 지리산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일이다. 이미 1년 4개월 째 진행해 왔다. 하동, 구례, 남원, 함양, 산청을 오가며 그곳의 자연과 문화 유적의 흔적을 기록하는 일이다. 지금은 하동, 구례, 남원까지 작업을 마친 상태다. 이 일이 완성된다면 지리산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회화로 기록한 최초가 될 것이다.

글=이은정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보시의 장 문화의 장으로 거듭나다

통도사 박물관, '아산 정우 스님 기증유물 특별전'

문화포교의 장이자 대중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2011년을 맞아 '芽山 頂宇스님 기증유물 특별전'으로 문을 열었다.

이번 특별전에는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이 도처에서 수집해온 불교관련 성보들이 망라돼 있다. 정우 스님의 이번 기증유물은 국가 보물로 지정된 유물뿐만 아니라 공예, 서화, 민속품 등 다양한 장르로, 국내의 유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귀중한 유물 155여 점이 전시된다.

정우 스님은 평소에도 문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극단 '신시'의 후원과 문화·예술발전에 힘써왔다. 성보박물관 관장 현근 스님은 "이번 전시는 정우 스님의 보시 정신을 알리고 많은 불자 분들이 스님의 귀중한 기증품을 친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라며 "지금까지 야단법석의 문화포교와 달리 조용한 문화포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55)382-1001 이은정 기자



동자달마.

이은정 기자의 뻔뻔한 레시피② (Fun Fun)

곤드레나물밥

이제 나도 명절이면 어른들이 제법 일을 부려먹기 좋은 나이가 됐다. 그래서 어린 조카나 동생들과 함께 눈치 없이 TV나 보며 뒹굴 거리면 바로 엄마의 따가운 눈초리가 내 머리에 박혀버린다. 밤 하나 주워 먹고, 곶감 하나 물어뜯으며 주방 근처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시늉이라도 해야 그나마 미움을 덜 받는다. 그러다 우연히 엄마와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냉장고문을 뒤진다.

그렇게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냉장고 문을 번갈아 여는 순간 갑자기 무언가가 발등을 '쿵'하고 내려찍었다. "아!"하고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발아래를 보니 봉지에 쌓여있는 시커먼 물체가 굴러다녔다.

내 발등을 찍고 도망간 놈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작년 봄에 엄마랑 아빠가 온 산을 다 뒤집고 다니면서 캤던 곤드레 나물이었다. 아마도 엄마가 작년에 캐다 놓은 나물을 삶아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신 모양이다. 생각해 보니 항상 늦봄의 우리 집은 나물냄새로 가득했다. 나물이 너무 좋으신 건지, 두 분이 금실이 너무 좋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틈만 나면 엄마랑 아빠는 산을 다니면서 나물을 캐셨다.

배낭 한 가득 이름 모를 갖가지 나물을 캐 와서는 앉은 자리에서 다시 뜯고 다듬고, 씻고, 삶기를 반복했다. 뭐가 그리도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두 분은 젖은 옷을 짊어진 채 그렇게 나물 하나하나를 확인해 가면 정성스레 다듬으셨다. 나물을 따온 그날엔 항상 데친 나물과 고추장이 저녁밥상에 올라왔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식탁에 둘러 앉아 봄내음을 만끽하며 나물과 밥 고추장을 함께 맛있게 비벼 먹었다.

하지만 밥을 먹고 난 다음날이면, 항상 두 분 어깨와 다리에는 일명 파스라는 놈이 떡 하니 자리했다. 그땐 식탁에 올라온 나물이 부모님의 땀이었단 사실을 미처 몰랐었다. 이번 명절에도 여전히 엄마는 다리에 파스를 붙이신채 음식장만을 하셨다.



사진=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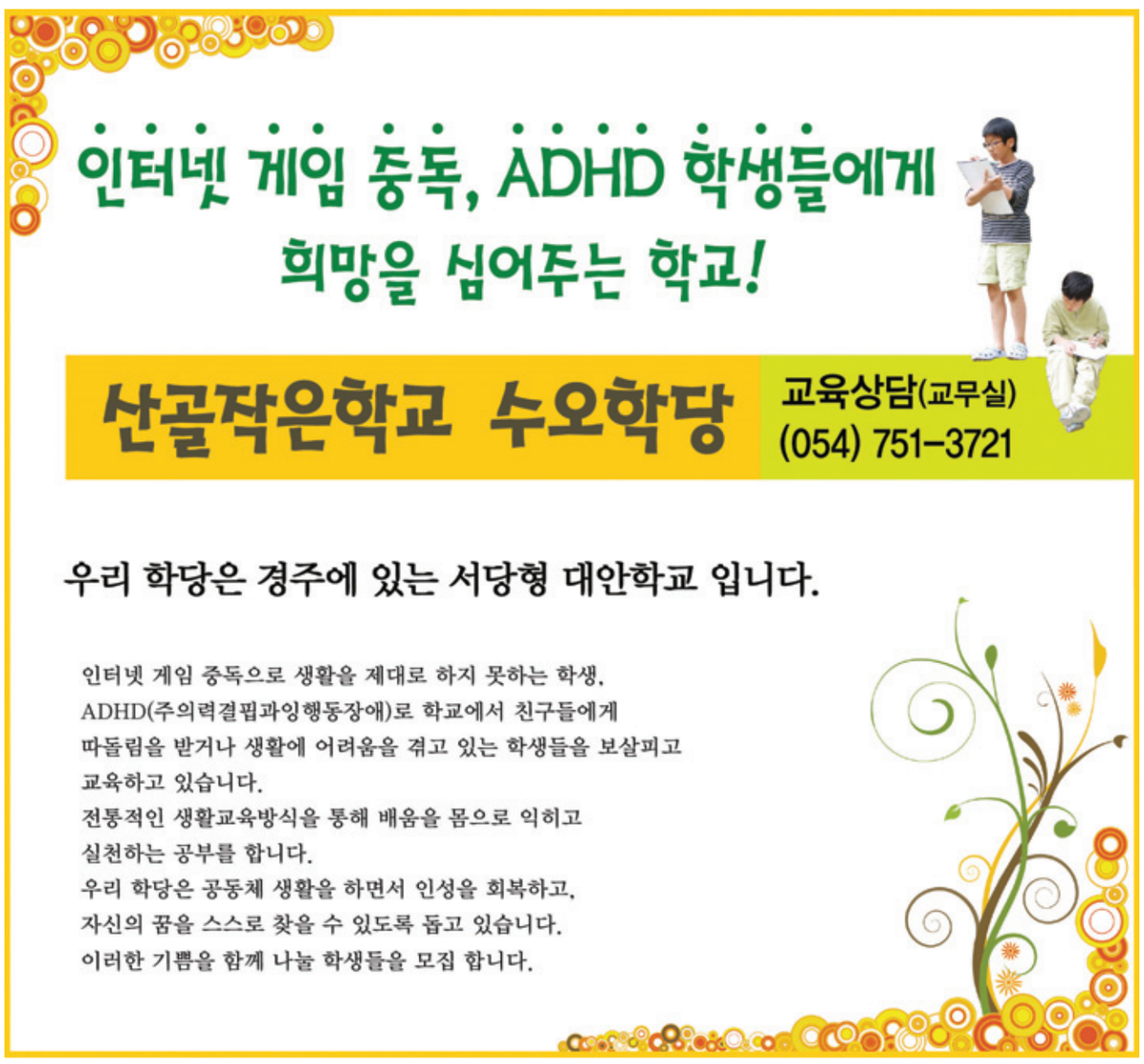
#알고가기 곤드레나물은 태백산 고지에 자생하는 산채다. 강원도 정선과 평창지역의 특산물로 매년 5월에 채취가 가능하다. 곤드레나물은 캐서 말린 후 저장하거나, 삶아서 냉동고에 보관하면 1년 내내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곤드레나물은 탄수화물, 칼슘, 비타민A 등이 풍부하며 지혈, 소염, 이뇨작용, 해열, 부인병 등에 약으로도 쓰인다.

재료는 이렇게 준비 하세요

곤드레나물 300g, 쌀 2컵, 들기름, 간장 3큰술, 깨 작은1큰술, 고춧가루 작은1큰술, 고추 반개

음식 만들기

① 쌀은 씻어서 적당히 불린다.
② 곤드레나물은 끓는 물에 살짝 삶은 후 건져내 물기를 빼고, 달구어진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볶는다.
③ 불린 쌀에 나물을 함께 넣어 밥을 한다.
④ 간장과 깨 고춧가루 고추 등을 함께 섞어 양념장을 만든 후, 밥과 함께 비벼 먹는다.





한마디 잘못하면 오백생 여우 몸을 받으리라

백장사(3)



우주 법계의 현관처럼 미묘하고 그윽한 백장사와 대웅산 자락.



백장선사가 들여우를 제도한 백장야호(百丈野狐) 공안의 현장인 야호암.

백장사 젊은 스님에게 '원즉견조사전(願即見祖師殿)'이라는 육두문자를 써서 보여 주자, 내 요구가 통했는지 앞장서 걷는다. '아미타불'을 중얼거리며 건들건들 걷는 모습을 보니 무슨 신나는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법당 바로 뒤에 자리한 조사전을 가까이서 보니 방치돼 있다는 느낌이 더욱 든다. 허술한 정도가 심하다. 전각 앞뒤로 잡초가 무성하고 벽면의 회칠은 덕지덕지 떨어져 있다. 문을 열어 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 퇴락한 조사전이지만 꼭 참배하고 싶었던 것은 신라 출신 선사들의 그림자라도 만나기 위해서였는데 발길을 돌리자니 사뭇 아쉽다. 백장사 역시 신라 출신 스님들의 구법도량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순례 왔던 것이다. 도의가 서당에게 인가 받은 뒤 백장을 찾아갔을 때 "강서의 선맥이 모두 동국의 승려에게 속하게 될 것이다"라고 치하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바, '동국의 승려'란 바로 신라의 구법승들이었던 것이다.

"무엇이 화상의 가풍입니까"
"수건은 한 치 반 헝겊이라네"

백장사 젊은 스님에게 대의석(大義石)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고개를 한번 갸웃하더니 뒷산으로 난 오솔길을 가리킨다. 뒷산은 온통 대숲이다. 대숲 사이로 난 오솔길은 오르기 쉽게 계단을 만들어 놓았다.

대의란 백장청규의 대의를 간절하게 지킨 열반(涅槃)선사의 별호라고 전한다. 열반선사의 가풍은 신라 땅까지 소문 나 있었던 모양이다. 어느 신라 스님이 열반선사를 흠모하여 물어물어 백장사를 찾았으나 선사가 이미 입적하고 없었으므로 스승을 친견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하여 자기 몸을 절벽 아래로 던졌다고 한다. 그런데 백장사 대중이 절벽 밑으로 가보니 그 신라 스님은 몸에 상처 하나 없이 좌선의 자세로 입적해 있었다고 한다. 그의 옷 속에서 나온 게송이 대중을 크게 감동시킨바 향을 사르고 재를 지낸 뒤 대의탑 곁에 임심정(臨深亭)을 세웠다는데 지금도 대의석과 정자가 있는지 궁금하다.

오솔길 계단을 오르는 백장사 젊은 스님은 여전히 노래하듯 '아미타불'을 흥얼거리고 있다. 나를 대하는 태도는 덤덤하지만 성격은 낙천적인 스님 같다. 저 위에 무엇이 있다는 듯 손을 들어 가리킨다. 좁고 가파른 오솔길이라 필담을 나눌 수도 없다. 나는 젊은 스님의 뒤꽁무니를 따라갈 뿐이다.

백장사에서 가장 유명한 신라 출신의 스님은 10세 주지를 지낸 안(安)선사일 것이다. 속성이 안씨(安氏)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신라 출신의 스님들에게는 중국 스님들과 구분하기 위해 관습적으로 법명 앞에 속성을 붙였던 것이다. 신라 왕자출신 무상선사를 사천성에서는 '김화상'이라고 불렀던 것과 같다.

안선사는 신라말에 입당하여 강서 무주(撫州, 현 臨川) 소산(疎山)의 광인(匡仁)선사를 은사로 득도한 뒤 백장산으로 가 자신의 법을 열었다고 한다. 소산은 동산의 제자이니 청원 행사의 손(孫)이 되고, 백장산에서 개법을 했으니 남악 회양의 손도 되는 셈이다. 어쨌든 안선사가 법을 드러내고 있는 선화가 〈전등록〉 '홍주 백장 안화상' 편에 보인다.

법호는 명조(明照)선사이다. 어떤 스님이 물었다.

"영롱한 둥근 광채 하나를 보았습니다. 무엇이 본체입니까."

"그대가 멀리 온 것을 위로하노라."

"그것은 하나의 영롱한 둥근 광체가 아닙니까."

아마도 스님의 질문은 좌선삼매 때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황홀한 경계를 얘기하고 있는 듯하다. 좌선삼매 중에 영롱한 둥근 광채를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본체가 아니냐는 질문인 것이다. 그러나 안선사는 그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차나 한 잔 더 마시게."

"무엇이 화상의 가풍입니까."

"수건은 한 치 반의 헝겊이라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도 묻지 않는 것이 없지."

"어떤 것이 극칙(極則)입니까."

"공왕전(空王殿)에서는 구오(九五, 황제의 지위)에 오르고 촌 늙은이 문 앞에서는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네."

"인연을 따라 인증해 알 때는 어떠합니까."

"인증해 알기 전에는 어떠하였는가."

대사는 본래 신라 사람이었는데 백장산에서 대중을 거느리기 시작한 뒤로 가르침을 받은 제자 도긍(道亘) 등 7인이 제각기 이어받은 바에 따라 한 지방에서 교화를 폈다. 대사가 입적한 뒤에 문인들이 진영을 그리니 법안(法眼)이 찬(贊)을 붙였다.

백장은 왜 황벽에게 뺨을 맞고도 박수치며 웃었을까

명조 안선사와 함께 소산 문하에서 득도하고 백장산으로 온 초(超)선사도 신라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선사의 생몰 연대도 안선사처럼 전해지지 않고 있다. 중국 땅에서 입적하여 행장이 사라져 버린 듯한데, 만약에 신라로 돌아와 제자를 두고 교화를 폈다면 분명한 행적이 전해지고 있지 않을까 싶다.

젊은 스님이 큰 바위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그가 가리키는 바위가 대의석인가 싶어 다가가 보니 붉은 글씨로 벽운(碧雲)이라고 음각돼 있다. 한 마디로 대의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벽운 왼쪽에는 천하청규(天下淸規)라는 붉은 글씨가 쓰여 있다.

그러고 보니 구름 문양들이 박힌 이 자연석이 '백장청규비'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백장선사가 선원청규를 제정하고 난 뒤 기념으로 천하청규를 새겼다는 얘기가 절에 구전되고 있단다. 글씨는 백장선사의 친필이라는 설과 당나라 명필 유공권(柳公權)의 글씨라는 설이 있는데, 젊은 스님은 잘 모르겠다고 한다.

백장청규비 조금 위에는 붓처럼 뾰족한 바위가 꽂혀 있다. 백장선사가 천하청규라는 글씨를 쓰고 난 뒤 붓을 던졌는데, 그 붓이 바위로 변해 석필(石筆)이 됐다는 전설 속의 바위다. 굴이 있는 야호암(野狐巖)은 올라왔던 오솔길 중간쯤에서 왼쪽으로 10여m쯤 걸어가자 보인다. 선어록에 나오는 대로 법당 바로 뒷산에 있는 굴이다. 〈사가어록〉의 선화를 보자.

백장이 상당할 때의 일이다. 한 노인이 대중과 함께 늘 법문을 듣고 가다가 하루는 물러가지 않으므로 백장이 물었다.

"무엇하는 사람인가."

노인이 말했다.

"저는 과거 가섭불 때 이 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한 학인이 묻기를 '수행을 많이 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하고 묻기에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因果不落)'고 대답하여 여우 몸을 받았습니다. 지금 스님께서 이 몸을 바꿀 만한 한 마디를 해주십시오."

"그럼 질문해 보게."

"많이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인과에 어둡지 않다(因果不昧)."

노인은 말끝에 크게 깨닫고 백장에게 하직을 고하면서 말했다.

"이제는 제가 여우 몸을 벗고 뒷산에 있을 것입니다. 불법대로 화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장은 유나에게 종을 쳐서 대중에게 점심 뒤에 죽은 스님을 장사지내겠다고 알리게 하였다. 점심 뒤 백장은 영문을 모르는 대중을 거느리고 뒷산 바위굴 아래로 가서 죽은 여우 한 마리를 지팡이로 꺼내더니 법도대로 화장하였다.

저녁이 되어 만참(晩參)법문 때 백장이 앞의 인연을 거론했더니 황벽이 대뜸 물었다.

"옛사람은 깨닫게 해주는 한마디(一轉語)를 잘못 대꾸하였기 때문에 여우 몸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한마디 한마디가 어긋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황벽이 말한 이 부분이 〈무문관〉에서는 오백생 동안 여우 몸을 받았다고 나온다.

"가까이 오게, 그대에게 말해주겠네."

이에 황벽이 백장에게 다가가 스님의 따귀를 한 대 쳤다. 그런데도 백장은 박수를 치고 웃으며 말했다.

"오랑캐의 수염이 붉다 하려 하였더니 여기도 붉은 수염이 난 오랑캐가 있었구나."

이와 같은 선화가 〈무문관〉 제2칙의 백장야호(百丈野狐)라는 공안이 되는데, 황벽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식의 말은 결코 선지식으로서 할 소리가 아니라고 스승인 백장에게 여쭙고 있다. 그런데 황벽은 왜 '인과에 어둡지 않다'라고 알려주어 노인을 제도한 스승 백장의 뺨을 한 대 후려쳤을까. 백장은 왜 제자 황벽에게 뺨을 한 대 맞고서도 박수를 치면서 웃었을까. 제자의 무례에도 걸리지 않는 경지가 바로 '인과에 어둡지 않다'라는 대답이었다는 것일까.

수불 스님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가 왜 잘못된 말이냐면 근본 실상자리에서는 떨어지고 말 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선지식 노릇을 잘못했기에 여우 몸을 받은 겁니다. 가혹한 벌을 받은 거지요. 근본 실상자리는 인과가 없지요. 인이라고 할 것도 없고 과라고 할 것도 없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만 인과가 출현해서 선악이라고 하는 어떤 원인을 짓고 거기에 따른 과보를 받아 나고 죽고 하는 생사가 출몰하는 겁니다. 중생은 누구나 그래요. 다만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은 예외라고 할 수 있고, 부처님은 우리에게 눈 뜨는 방편을 제시하고 있어요. 참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헤매고 있지요. 부처님이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한편, 여우 몸을 오백생 받았다고 하는 말에서도 우주법계의 시공이라는 개념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의 한 시간이 저 또 다른 세계에 가면 1년이 될지 10초가 될지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인과가 본래 없지만 홀연히 인연 따라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시공이 생겨난 것이니까요."

젊은 스님이 갑자기 서둘러 하산하려고 한다. 말이 통하지 않고 하던 일을 마저 마치려고 그런 것 같다. 뒤따라가면서 중국인 길잡이를 통해 "스님, 전설 같은 백장야호 고사를 믿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젊은 스님이 단호하게 "백장사 역사입니다."라고 답한다.



대웅산 산자락들과 백장사 뒷모습이 저녁 햇살에 그윽하다. 마치 우주 법계의 현관(玄關) 같은 미묘하고 아득한 분위기다. 〈계속〉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since 1999 행복한 禪여행 아제여행사
다음검색 "아제여행사" ☎ 02)730-4008
선사들의 서릿발 화두기가 지금도 강하게 흐르는 옛 선사들의 선적지 !!
최고의 노하우 아제아제바라아제 아제여행사 !!!!


초조달마대사 육조혜능선사 마조도일선사 백장회해선사 위산영우선사 양기방회선사 대혜종고선사 고봉원묘선사 무상선사

달마에서 혜능대사까지 8일
• 출 발 : 4월 7일 (1차), 5월 12일 (2차)
• 동참금 : 1,690,000원 / 1인

대혜종고 / 고봉원묘선사 천목산 4일
• 출 발 : 3월 29일 (1차), 5월 21일 (2차)
• 특 전 : 890,000원 / 1인

중국 강호선종사찰 8일 (11분선사)
남악회양 / 마조선사 / 백장선사 / 대우선사 / 황벽선사 / 위산선사 / 앙산선사석상선사 / 양기방회 / 석두희천 / 동산선사
• 출 발 : 2011년 3월 14일 [8일] (1차), 5월 23일 (2차)
• 동참금 : 1,590,000원 ~ / 1인
※ 뜰앞의 잣나무 (정찬주 작가) 증정

신라왕자 무상선사 5일
15년 두타행굴 어하굴
마조스님 고향 나한사
원오극근스님 주석사 소각사
• 출 발 : 4월 7일 (1차) 5월 12일 (2차)
• 동참금 : 990,000원 ~





* 캄보디아 앙코르왓트 5일 - 3월 11일
* 인도8대성지순례 11일 - 3월 8일 / 2,390,000
* 불탑의 나라 미얀마 6일 - 3월 15일 / 문의주세요
* 지장보살 구화산 / 보타산 6일 - 4월 10일 / 문의주세요

먹을수록 똑똑해지는 10가지 견과류

대보름에 먹는 견과류의 효능

액운을 쫓고 복을 비는 정월 대보름이 다가왔다. 쥐불놀이, 지신발기, 부럼 깨기를 하며 한해의 액운을 물리친다. 부럼은 정월대보름날 밤에 까먹는 날밤, 은행, 땅콩 잣 등을 말한다. 요즘은 우리에게 익숙한 호두, 밤, 잣, 땅콩 외에도 아몬드, 피스타치오, 브라질넛 등 해외파 견과류들도 함께 대보름에 즐기는 견과류가 되었다.

견과류와 건강한 뇌

뇌의 3분의 2는 지방으로 구성돼있다. 뇌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수 지방산이 필요하다. 오메가3로 잘 알려진 필수지방산은 체내에서 생성 할 수 없어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 필수 지방산은 태아의 뇌를 구성하는 일부터 퇴화하는 뇌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일까지 담당한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고 아이들의 학업성적을 향상시킨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 심장혈관질환의 발병률이 낮아지고, 심장이 튼튼해진다.

각 견과류의 특징, 효능

견과류는 호두, 땅콩, 밤, 잣 과 같은 겉이 딱딱한 과실을 말한다. 젊음을 유지해주는 식품이라고 불리는 견과류는 내적으로는 건강을 지켜주고 외적으로는 노화를 늦춰준다. 이는 필수지방산인 오메가6, 오메가9, 비타민 E등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필수 지방산은 두뇌를 활성화하고 정신을 맑게 하며 신경체계를 건강하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피부를 탄력 있게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필수다.

견과류에는 단백질도 다량으로 함유돼 있다. 한국영양학회는 2010년 견과류를 단백질로 재분류해 발표했다. 콩으로 대표되던 식물성 단백질에 견과류도 그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① 호두

뇌세포의 구성성분인 레시틴과 칼슘이 다른 견과류에 비해 많다. 두뇌 발달과 기억력 · 집중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호두에는 단백질, 비타민 B, 비타민 E, 칼륨, 마그네슘, 구리, 아연 등 젊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많이 함유돼있다. 비타민 B는 기억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아주고 심장을 보호한다. 비타민 E는 피부와 모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칼륨과 마그네슘은 심장에 좋고, 구리는 정맥류를 방지한다. 아연은 흉선을 젊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해준다. 피부와 심장의 건강 유지에 중요한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식품이다.



② 땅콩

땅콩은 견과류 가운데 가장 많은 단백질을 제공해 근육을 튼튼히 한다. 단일 불포화 지방 함량이 높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동맥경화나 심장병을 예방해준다. 또한 혈관 확장을 돕고 혈액이 응고 되는 것을 막아준다. 비타민 E 함량도 풍부하여 주름살을 방지하고 빛나는 머릿결을 유지해 준다. 혈중 포도당 수치를 낮게 유지해줘 당뇨병의 예방에도 효과가 좋다. 땅콩의 껍질은 섬유소가 풍부해 칼로리를 낮춰주니 가능하면 볶기보다는 갈색 껍질째 쪄서 먹는 것이 좋다.

③ 밤

탄수화물이 주성분이지만 단백질과 불포화지방, 칼슘, 비타민(A · B · C)도 풍부하여 발육과 성장에 좋다. 특히 생밤의 비타민 C는 피부미용과 피로회복 · 감기예방 등에 효능이 있으며 알코올의 산화를 도와 술안주로 좋다. 당분에는 위장 기능을 강화하는 효소가 들어 있으며 성인병 예방과 신장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

④ 잣

잣은 호두나 땅콩에 비해 철분100g당 5.6mg으로 많이 함유돼 빈혈 치료와 예방에 효과적이다. 잣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은 피부를 매끄럽게 하고 아연은 면역력을 강화 시킨다. 마그네슘은 알레르기 반응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⑤ 은행

은행은 혈액 순환을 돕고 피를 맑게 해 혈관 질환과 혈액의 노화를 방지한다. 은행에 들어있는 징코플라톤이 혈액 순환을 좋게 하고 혈전을 없애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의학에서는 진해와 거담을 다스리는데 쓰이고 위와 폐를 깨끗하게 하는데도 처방된다. 하지만 약간의 독성이 있어 불에 굽는 등 익혀 먹어야 한다. 성인은 하루에 10알 소아는 5알 미만이 적당하다.

⑥ 아몬드

아몬드는 비타민 E가 풍부하다. 비타민 E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노화방지에 탁월하다. 손상된 세포의 재생을 도와주어 피부 미인을 만들어줄 뿐 아니라 수술 후 상처 치유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아몬드에 들어있는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다른 어떤 견과류보다 섬유질이 풍부하여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가질 수 있다. 아몬드가 가진 단일불포화지방산과 식물성 콜레스테롤은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춰준다. 아몬드에는 아연,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도 풍부하다. 아연은 면역력을 길러주고, 마그네슘은 원기를 북돋으며,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병을 예방해준다.

⑦ 브라질넛

브라질 호두의 70%는 지방이다. 이중 절반은 오메가9 지방산을 만들어내는 올레산으로 피부미용에 좋고 항염작용을 한다. 나머지 절반은 오메가6와 오메가3인 필수지방산으로 건강한 피부와 윤기 나는 모발, 기억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 브라질 호두에 들어있는 다량의 비타민 E와 셀리늄은 면역체계를 강화해준다. 셀리늄은 유해한 활성산소를 파괴하는 글루타티온을 활성화한다.

⑧ 캐슈넛

브라질 '캐슈 애플'의 씨앗으로 심장질환 예방 효과가 있는 오메가6와 같은 필수 아미노산의 훌륭한 공급원이다.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심장 작동을 돕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칼슘의 대사를 활성화해준다. 신경계와 근육조직의 유지를 돕고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비타민 B도 풍부하다. 셀레늄이 들어있어서 주름을 예방해주고, 모발을 윤기 있게 한다. 빈혈을 예방하는 철분도 함유 하고 있다.

⑨ 헤이즐넛

헤이즐넛은 커피콩으로 오인하기 쉽다. 헤이즐넛은 본래 개암나무의 열매로 그 향기가 뛰어나 향이 날아가 못쓰게 된 커피 원두에 착향하여 만든 것이 헤이즐넛 커피이다. 흔히 초콜릿 안에서 오독오독하게 씹히는 작고 하얀 열매가 바로 헤이즐넛이다.

칼륨이 100g당 2000mg으로 풍부해 나트륨 배출에 탁월하다. 고혈압 환자들에게 칼륨이 많은 사과와 고구마가 권장되는데 헤이즐넛도 이와 같은 효능을 발휘한다.

주의사항

경희대 한의대 이종수 교수는 모든 식품이 건강에 이로운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며 편식을 삼갈 것을 강조한다. 어느 병에 뭐가 좋다더라하는 풍문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식품의 성질을 잘 알되 항상 골고루 먹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질병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한다.

칼로리

아무리 좋은 식품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한국영양학회는 견과류의 1일 적당 섭취량은 28g (한줌정도)이며 종류별로 다양하게 그리고 꾸준히 섭취 할 것을 권장한다.

견과류	권장량	칼로리	단백질
아몬드	28g	169	6
호두	28g	185	4.3
캐슈	28g	163	4
브라질 넛	4알	131	3

無 조미의 순수한 견과류 섭취

견과류는 어느 것이든 다 좋지만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무염 견과류를 구입해야한다. 한국인의 평소 식단만으로도 나트륨의 섭취가 많다. 소금과 설탕에 조미된 견과류는 감자튀김과 다를 바가 없어 고혈압과 비만의 원인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참고서적 〈두뇌건강 푸드 처방전〉(즐거운 상상刊)
〈먹으면 젊어지는 최고의 음식 100〉(아카데미북刊)

천진영기자 chun4q@gmail.com

건강한 마음, 행복한 人生

슈퍼우먼 나의 친구 H에게

나의 베프 중 한명인 그녀는 늘 일주일 내내 분주하다. 똑 부러지는 일처리 능력과 박학다식해 대기업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잘 나가고 있고, 그에 부응하기 위해 평일 날은 불철주야 회사 일에 매진한다. 그렇다고 그녀가 가정 일에 소홀하냐. 그것도 아니다. 주말은 아이들과 전시회다 공연이다 돌아다니기 바쁘고, 야외로 놀러 다니기를 좋아하는 남편의 취향을 고려하여 한 달에 두세 번 꼴은 지방으로 어디로 다니는 거 같다. 그 와중에도 정기적으로 꼬박 꼬박 시댁에도 빠지지 않고 다녀오니 그녀는 그야말로 어딜 가나 인정받는 직장 여성, 칭찬 받는 며느리, 사랑 받는 아내이자 착한 엄마이다.

이렇듯 여성이 아내, 어머니, 직업인 등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증후군을 슈퍼우먼신드롬 (super woman syndrome) 이라고 하는데, 그녀는 전형적인 슈퍼우먼신드롬 증세를 보여준다. 그녀는 매일 자신의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다 보니 늘 어딘가 골골거리며 아프다는 말을 달고 살고, 가끔씩 몰려드는 허탈함과 에너지 고갈에 허덕이다가도 그것조차 즐길 여유가 없어 금세 다시 슈퍼맘, 슈퍼우먼으로 복귀하곤 한다.

현재 행복에 감사하면 허상의 슈퍼우먼에서 평온한 '슈퍼자아'로

나는 그런 그녀를 끊임없이 자극하여 망가뜨리고자(?) 노력한다. 종교 생활을 빙자해 아이들과 남편도 가끔은 팽개쳐 두고 둘이 훌쩍 절에 가서 정진하고 오자고도 하고, 간혹 나의 모임에 그녀를 끌어들여 실컷 무너질 수 있도록 응원도 했다가, 자기 것은 대충 아무거나 사면서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돈을 쓰는 그녀에게 억지로라도 자신을 위한 투자에 쓰도록 꼬드긴다. 아무리 내가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나 이외의 부수적인 것들에 열심히 투자하고 희생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있어야 그러한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나에 대한 시간적, 물질적 투자 없이는 더 나은 건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정말로 내 자신에게 필요한 자세와 마인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각과 인지가 따라야 '멀티플레이어 슈퍼우먼'이라는 허상이 아닌 내 자신의 내공이 든든하고 평온한 '슈퍼자아'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하여 가족들을 위해 산 당신을 위한 신년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자. 난 그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과 선물을 선사해 주고 싶다.

첫 번째, 그녀가 현재 행복하고 감사한 이유에 대한 명목들을 줄줄이 읊어줄 것이다. 내가 지금 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지, 감사한지에 대해 집중하면서 엔돌핀을 풍요롭게 형성해보자. 지금 현재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 멀쩡하게 숨 쉬고 있는 나, 나의 여건들이 너무나 불만족스러운 것 같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감사하다는 사실이다. 감사하기 모드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한결 나의 기분을 풍요롭고 나아지게 만들어 줄 것이다.

둘째, 향산화 성분들로 가득한 비타민을 선물해 줄 것이다. 내가 건강해야 가정의 건강도 존재하는 것이다. 건강과 젊음은 내가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조건이 아니라 필수조건이다.

셋째, 산뜻하고 상쾌한 음악들로 가득 찬 CD와 향기로움이 가득한 향초를 선물해 줄 것이다. 우리의 뇌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오감을 밝고, 긍정적인 소리와 느낌, 그리고 기분 좋은 향으로, 촉감으로 채워준다면 그는 곧 생활에 그대로 직결된다.

넷째,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한적한 카페에서 위에 나열한 것들을 실천해 줄 것이다. 따뜻한 태양은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호르몬을 원활하게 분비시켜 줄 것이다.



"친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또 열심히 가봅시다!"

카루나마인드힐링연구소 박지숙 박사

승가학과 학인 모집요강

교 육 과 목		교 수
불 교 학	초기불교사상. 대승불교사상, 반야사상 법화사상 화엄사상.중관사상. 유식사상	마정 스님 한영애 교수
포 교 학	포교론. 불교경제사상	동국대 박경준 교수, 홍사성 교수
심리치료학	심리치료학. 기공치료학	혜조 스님. 도선 스님
상담심리학	상담심리	덕치 스님
선 학 과	임제록. 신심명. 증도가	마정 스님
법요수의과	제 법요 및 승가교육 특강(수강자 선택과목)	대허 스님. 원돈 스님

1. **모집대상 :** 승려. 출가예정자. 재가자 (누구나)
2. **모집인원 :** 약간 명
3. **개 강 :** 3월 4일 (매주 1일 5교시~6교시)
4. **특 전 :** • 장학금지급. 점심공양제공 • 재가자는 법사증 수여 • 출가 지원자는 수료 후 사미계 수계 • 각종 법요의식 지도
   • 사찰운영지도 및 행정지원 • 기숙사 입방가능 • 선원 (안거) 입방 자격 부여
5. **접 수 처 :** 서울 02) 496-3952~3 . 교무처 031) 676-0908
6. **행자모집 :** 고졸이상 남. 여 연령구분 없음. 무문총림 영평사

龍 鳳 學 林 중 앙 불 교 대 학 원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44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22 신라 불교 전래

이차돈의 흰피, 신라에 불교를 적시다



이차돈 순교비. 국립경주박물관 미술관 2층 금석실에 전시돼 있다.

신라에 불교가 수용된 과정은 고구려나 백제의 경우보다 더 극적이다. 모례, 순도, 아도, 묵호자, 이차돈의 순교에 이르기까지 신라불교의 수용과정에 관한 이야기들은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지금도 매우 보수적인 지역으로 알려진 경상도 지방에 위치했던 신라로서는 당시의 새로운 종교였던 불교를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사후의 세계, 윤회, 과보 등을 비롯해 공(空)이라는 개념은 구마라집이 중국에 정착한 이후에야 중국인들이 제대로 받아들였을 정도로, 동아시아인들에게 있어 불교는 매우 특이하면서도 매력적인 종교였다.

〈삼국유사〉 '흥법편' 에는 신라에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눌지왕(訥祗王: 417~456) 때에 사문 묵호자가 일선군(一善郡: 지금의 경북 구미시 선산군)에 이르렀는데 그 지역 사람인 모례(毛禮)의 집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다. 21대인 비처왕(毘處王: 479~499)에는 아도(阿道) 역시 선산군에서 머물렀다고 한다. 〈삼국유사〉에는 묵호자와 아도를 동일인으로 보고 있다. 동일인이든 아니든 간에 고구려를 통한 선산군 지역으로의 불교유입은 아마도 사실이었을 것이며, 5세기에 들어서면서 신라도 불교에 관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신라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보았을 때 불교를 국가적으로 인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며, 이러한 인정은 이차돈에 이르러서야 어느정도 안정됐다.

경주에는 금강산(金剛山)이 있다. 신라시대 오악(五嶽)의 하나로 북쪽에 있던 금강산을 대신하여 소금강산이라고 이름붙인 산이다. 이곳은 〈삼국유사〉에도 등장하는 이차돈과 연관됐다. 이차돈의 본래 이름은 염촉(厭髑, 삼국유사에는 성씨가 박 씨라고 돼있다)으로 법흥왕(法興王: 514~540)이 불교를 일으키려 할 때, 반대하는 중신들이 많았음에도 이를 본인의 순교로 신라 땅에 불교를 일으킨 인물이다.

순교의 순간 그의 목을 베자 흰 피가 한길이나 솟아올랐으며, 하늘은 어두워지고 땅이 울리고 사방에서 꽃비가 흩날렸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서 흰 피가 솟는다는 표현은 불교경전에서 유래한 이야기다. 〈현우경(賢愚經)〉 〈부법장인연경(付法藏因緣經)〉에는 피가 젖으로 변하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를 통해 신라의 보수적인 성향을 건너기 위해 흘린 불교의 노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엿볼 수 있다.

이차돈의 순교에 관한 유물은 백률사에 있었다. 이 유물은 원화12년(817년) 국통 혜륭(惠隆)과 법주 효원(孝圓), 김상랑(金相郎)등이 이차돈의 제일을 기려 건립했다는 비석이다. 비면은 마모가 심해 알아보기 힘들지만 이차돈 순교당시의 모습은 선명하게 조각되어 있다. 비는 지금은 백률사를 떠나 국립경주 박물관 안에 소장되어 있다. 정확한 명칭은 '백률가육면석당비'로 신라불교 초기의 모습을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그 흔적을 후세에 전하고 있다.

드라마 같았던 신라의 불교 수용
이차돈 순교 후, 신라불교 일취월장

〈해동고승전〉는 이차돈의 순교 당시 법흥왕은 "이 이후로 부처님을 받들고 스님께 귀의하겠습니다[自今以後 奉佛奉僧]"라는 말을 남겼으며, 이후 불교국가로 모습을 바꾸게 됐다. 신라불교는 이후 무수한 불사를 일으키며 일취월장했다. 흥륜사를 지어 신라에 법륜을 일으켰으며, 궁궐을 지으려던 자리가 황룡사로 바뀌고, 신라의 민간 신앙의 보고인 남산에도 불교로 채색되면서 무수한 불상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기존의 전통을 넘어 불교는 신라 땅에 마침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67 구업(口業)



미다스왕의 귀가 당나귀귀인 것을 안 이발사는 구덩이를 파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귀"라고 속삭이고는 흙을 덮고 후련해 했다. 구덩이를 덮었던 흙에 갈대가 피어나고 어느 날 갈대가 바람에 나부끼면서 그 비밀을 말해버렸다. -오비디우스(Ovidius)의 '변신 이야기' 중-

보은 법주사 가는 길에는 갈대숲이 있다. 차가운 땅을 딛고 선 갈대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겨울바람이 갈대숲을 지나갈 때마다 갈대는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비밀들을 바람에 실어 보내고 있었다. 갈대숲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세상의 비밀들이었다.

이 곳 저 곳에서 내가 흘린 세상의 이야기들도 언젠가는 갈대가 모두 말할 것이다. 어찌해야 할까. 갈대숲에 서서야 알았으니. 갈대가 쉴 새 없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어느 해 겨울, 법주사 가는 길에.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감상**①

진각국사 혜심 선사의 '국사원적일(國師圓寂日)'

'국사원적일(國師圓寂日)'
춘심원락정무애(春深院落淨無埃)
편편잔화점녹태(片片殘花點綠笞)
수도소림소식절(誰道少林消息絶)
만풍시송암향래(晩風時送暗香來)

깊은 봄 산사는 깨끗하여 티끌하나 없는데,
꽃잎이 가볍게 날아 푸르른 이끼 위에 떨어지누나.
그 누가 소림의 소식 끊겼다하리.
저녁 바람에 꽃향기 실려 오는데…

이 시는 고려 진각국사 혜심(眞覺國師慧諶; 1178~1234)이 쓴 추도시이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슬픔은 묻어나지 않는다. 시제(詩題)를 통해서 우리는 보조 스님이 원적하신 날을 기려 읊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때는 봄이 깊어가는 3월 그믐께, 절은 티끌하나 없이 유난히 청정함을 보인다. 이 시의 배경을 '정(淨)' 의 색깔로 입혔다. 이어 그 깨끗함 위에 가볍게 흩날리며 지는 꽃잎의 움직임을 포착하였다. 지는 꽃잎은 단순한 늦봄의 경치를 묘사한 것이기도 하겠거니와 떠나는 보조 스님을 형상화 한 것일 수도 있다. 여기서 사용된 '잔(殘)' 은 시의 분위기를 퇴색시키고 말 것 같다. 그러나 스님의 시선은 '푸르른 이끼' 로 전이되어 주체를 바꾸어 버렸다. '잔(殘)' 을 '연(綠)' 으로 살려낸 것이다. 이는 아래 두 구의 복선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보조 스님이 원적에 든 날 스님은 보조 스님의 견처(見處)가 육신의 사멸로 인하여 끊어졌다고 여길 수도 있는 미혹한 중생심에 한 할(喝)을 하신다. '저녁바람이 꽃향기를 실어준다' 는 것이 그것이다. 수선사(修禪社) 제2세인 스님의 할 치고는 너무 평범하고 자연스럽다. 불안(佛眼)이 갖추어지지 않은 육안으로도 맡을 수 있는 꽃향기가 실려 온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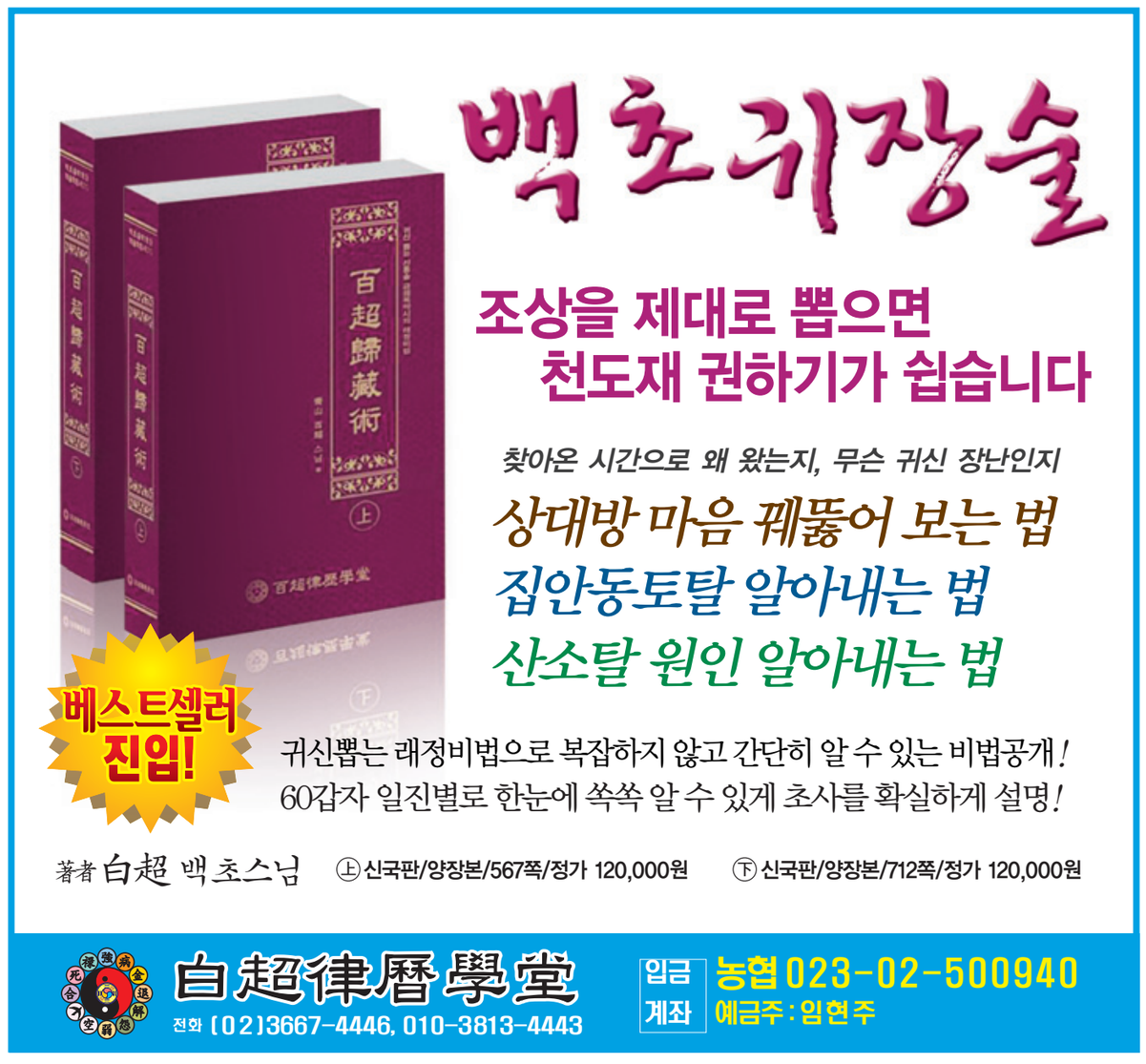
그런데 꽃향기는 저절로 향내를 풍길 수 없다. 우선 꽃이 있어야 하고 바람이 불어주어야 하고 우리의 후각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근(根)과 경(境)과 식(識)이 화합하여 이루는 것이다. 화합하여 생긴 것이니만큼 흩어지면 모두 공(空)이다. 자연의 이치 하나로써 진여(眞如)자리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어 사변적일 수도, 관념화 될 수도 있는 공의 도리를 현실에서 볼 수 있게 한 보살심과 자비심을 엿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육신은 갔으나 법신은 남아 우리를 법열의 세계에 무젖게 함을 비유한 것이기도 하다. 이것이 '잔화(殘花)' 로 비유되는 보조 스님의 원적과 '녹태(綠苔)' 로 비유되는 후인들 위에 떨어지는[點] 본래의 의미이다. 선미(禪味)와 자연미를 잘 조화시켜 읊은 이 시를 선시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다.



원법 스님(성균관대 문학박사)







대행 스님

아무리 속상하더라도 남 탓 말고 주처에 맡기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망상을 끊어라, 끊어라 하는데 끊는 것이 아닙니다. 저 물 흘러가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걸 아무리 끊은들 끊어지겠습니까? 망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자유인이 되는, 바로 사람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망상이 없다면 사람 될 수 있는 그 과정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목석일 것입니다. 그러니 망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망상은 망상이 아니라 바로 나를 성장시키는 길잡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편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대 성인의 가르침을 그렇게 헛되이 생각해서 우리 인간의 도리를 다 못해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어떤 신부님이 이렇게 묻더군요.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요. 그래서 "신부님이 귀신 노릇을 한다면 귀신이 있을 것이고 신부님이 귀신 노릇을 안 할 것 같으면 귀신이 없다." 그랬죠.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 부처님을 믿는 사람도 형상만 보고 거기다가 나를 잘되게 해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기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가톨릭교나 기독교나 고상을 걸어 놓고 거기다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형상이 나의 형상하고 둘이 아니요, 그 마음이 나하고 둘이 아니요, 그 생명이 나하고 둘이 아닌 까닭에 어디 가서 앉았든지 끊어짐이 없습니다. 믿어도 바로 믿고, 생각을 해도 바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도 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을 못 믿고 남을 원망하고 만날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이렇게 해서야 어찌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하며 어찌 우리가 이 세상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항상 다스려 나가면서 남편한테나 자식한테나 또는 형제간에나 친구간에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괴로움이 있더라도,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망했다 하더라도 내 탓으로 돌리세요. 만약에 내가 없다면 그 상대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탓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속상하더라도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자기 주처에, 한마음 주인공에 맡겨 놓고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럽게 행동해 준다면 아마 자식과 남편이 이탈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도 할 것이 없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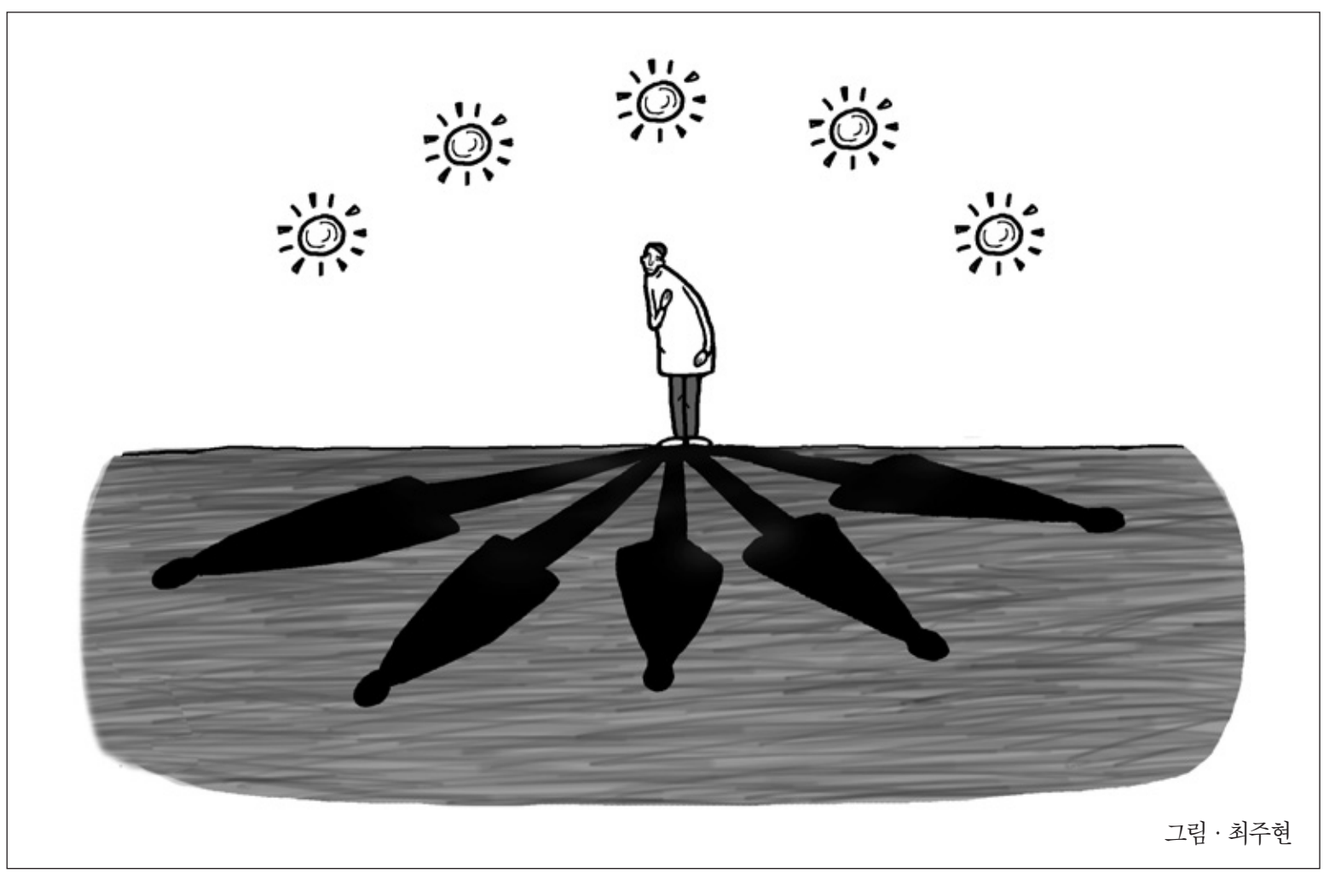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우리 이 몸뚱이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뜬구름과 같이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이는 것이 바로 이 몸뚱이입니다. 이 몸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의 집입니다. 집이고 종입니다. 불가에서는 시자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이 개별적인 마음이 아니라 몸속에 들어 있는 그 헤아릴 수 없는 마음들이 한데 합쳐서 한 그릇으로서 한마음으로서 돌아가게끔 할 수 있어야 이 종을 잘 부릴 수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이끌어 가고 또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라야만이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고 자기 가정을 잘 이끌어 줍니다. 이 주처의 주인공은 둘이 아닙니다. 전등은 이렇게 모두 따로 있지만 전력은 똑같듯이 둘이 아닙니다. 모습은 각각일지언정 어떻게 전력이 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동서가 둘이 아니요 또는 아미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요 아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요 지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요 관세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하고 그치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죠. 또 어린애로 태어났을 때 지어 준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남편이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사위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형이라는 이름이 또 있고 아우라는 이름이 또 있고…. 여러분, 어머니든 아버지든 다 그렇습니다.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고 부처라면 이렇게 서서 자기 이름을 떡하니 붙여 놓고는 거기다 기도하는 걸 볼 때에 마음이 좋겠습니까? 네? 자기 이름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쭈욱 붙여 놓고선 거기다 놓고 빌고, 거기다 놓고 '주여!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시여!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빈다면 좋겠습니까? 그럼 그 본인이 볼 때에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런 멍청이들 같으니….'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말하면, 우린 자동적입니다. "여보!" 하고 부르면서 들어오면 말과 행과 뜻이 똑같이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면서 들어오니까, 금방 남편이 됐었는데 고만 아버지가 돼 버리죠. 어때요? 틀립니까? 아버지가 됐다가 금방 "얘, 아무개야! 이리로 좀 건너오너라." 이러면 금방 아들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데 바깥에서 "형님!" 하고 들어오니까 금방 형이 된 거죠. 이건 자동적으로 행과 말과 뜻이 그대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컴퓨터보다 얼마나 더 빠릅니까. 어때요?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서 꺼내 쓰는 것보다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마음을 깨치고 마음의 병을 고쳐 주어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마음의 병만 고친다면 모든 육신의 병은 다 떨어질 것이니까요. 핵심을 떠나서 육신, 이론, 지식, 학식, 교양, 이런 것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걸 포함해야 되겠죠.

우리네 이름들이 많듯이 부처님의 마음도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음으로 동방에는 아촉이라는 이름을 지어 놓으시고 서방에는 아미타를 해 놓으시고 사바세계에는 관세음을 해 놓으시고 지천국에는 지장을 해 놓으셨어요. 자기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 놓은 겁니다. 왜, 여러분도 한 가정에서 살면서 이름이 그렇게 많지만 모두 동일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무개!" 그러면 빨리 올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 사는 도리이기 때문에 방편상 그 이름이 없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미륵이다' 이러는 것은 사람이 죽었으면 잠시 잠깐 없어졌다가 또다시 이 세상에 출현이 되는 것을, 찰나에 돌아오는 것을 미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부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법신이고 화신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내 님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내 님이라고 하지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천체, 한 그릇 할 때 한 그릇이듯이 하나로 이 세상 천체가 돌아간다 해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바깥에서 찾지 마십시오. 어떠한 종교를 막론해 놓고 말입니다. 나는 불교로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 불교 아닌 사람이 없는데, 불교로 오라 가라 그 말이 왜 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바로 그 이름에 끄달리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이름이 될 때는 이 이름으로 쓰고 저 이름이 될 때는 저 이름으로 쓰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 한생각에 의해서 생각을 내면 바로 문수가 되고, 몸이 움죽거렸다 하면 보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세 이름이 따로따로 있으면서도 따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부처님께서 '천백억화신이 나고 든다.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든다. 그리고 삼십이상이 구족하다.' 이러

☞ 26면으로 계속

(주)더나인 칼라 단청 사업단

옻칠단청

천년보장 옻칠이 꼭 필요한 곳 : 사찰단청. 기존 단청 보호. 사당. 문중재실. 일반한옥. 목조주택.

천년고찰을 꿈꾸는 스님에게만 옻칠 단청의 혜택을 드립니다.

현재까지의 단청은 밀풀, 아교, 포리졸을 사용한 화학 재료기법으로 공해는 물론 방충, 방습, 방염의 천적으로부터 보존 · 보호 능력이 전혀 없어 3년 단위로 방충제, 방염제를 살포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옻칠단청기법은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완전 해결해 줌으로 천년을 보장하는 친환경 천연 칠로서 목재보호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불화의 맥을 이은 금호, 보응, 일섭, 우일스님 문중의 수석맏제자

불광미술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178-4
단청,탱화,개금 3절장인
만성 조기환 010-6426-2563 (042)254-2567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 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l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울산교육원	052-260-1037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호남교육원	063-288-5623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441-0111	전북익산교육원	063-854-1060	제주교육원	064-755-7588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광주교육원	062-672-5432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근본을 바깥에서 찾지 마십시오

☞ 25면에서 계속

셨습니다. 그래 털구멍으로 들고 나니까 이 몸속에 드는 의식이 천백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숫자가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대기권을 정립해 가면서, 통신을 해 가면서 들고 나시기 때문에 '천백억화신이 들고 나니 바로 삼십이상이 구족하구나. 삼십이응신이 구족하구나!' 이러셨습니다. 들고 나면서 무의 세계 유의 세계, 생각이 없는 중생 생각이 있는 중생, 모든 중생들을 건져 주시기 위해서 모두 응해 주신다 해서 바로 응신이라고 했으니 그것도 부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많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름에 끄달리지 마시고 직접, 내가 목마르면 물 마실 것이고 가고 싶으면 갈 것이고 오고 싶으면 오는 거예요. '나쁘다 좋다' 이러한 것에 여념이 없고 '이게 옳다 그르다' 하면 벌써 이 마음의 도리, 부처님께서 진짜 한 찰나, 불이 번쩍할 때 '이것이 찰나다' 하신 그 공부는 못하십니다. 빛보다 더 빠른 한생각의 찰나는 여기 앉아서 저 문간을 나가는 그 시간이나, 지금 미국을 가서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니는 시간이나 똑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생각에 갔다 올 데를 지금 모두 갔다 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여기 앉아서 집에 한 번 갔다 와 보세요, 안 갔다 와지나? 고거와 똑같다 이겁니다.

우리들은 다 '불자' 입니다. 승복을 입고 머리 깎은 사람만 불자가 아닙니다. 불은 생명의 근본이요 자는 여러분의 몸이니까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전부 불자입니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 내 집 네 집 찾지 말고 사랑합시다. 사랑이란 두 글자를 한데 떨어뜨리지 말고요. 모두가 사랑이라는 그 두 글자를 너무 쉽게 그냥 땅에 떨어뜨리고 있어요, 지금.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를 않나, 요만한 걸 가지고도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싸우지를 않나, 지금 모두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질 않나.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아쉬운 것은 대학이나 모든 학교의 문을 좀 넓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그 돈으로 학교를 지어서 학교 문을 좀 넓히고 나가는 문은 좀 좁히고 그렇게 한다면 학생들이 죽을 일도 없고 고민할 일도 없고 병들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뿐입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공부 못해서, 마음의 병을 고치지 못해서 모두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고 바로 행동하지 못해서, 늙은이든 젊은이든 정치인이든 누구든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모두, 앞으로 대학을 가야만 산다는 그 욕구 때문에 애를 쓰고 있고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기술 방면으로 나가더라도 실력만 있으면 취직도 잘되고 봉급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방된 시대가 되도록 좀 넓게 보시고 행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가난해서 그런 걸 못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좀더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또 젊은이들을 키워 나가는 데도 핵심적인 문제를 가르쳐야 합니다. 교과서도 마음의 핵심으로부터 나가야 하고요. 유치원생부터 마음의 교과서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너를 낳아서 기르고 이렇게 애를 쓰고 벌어다 공부를 시키는데 감사하지 않으냐?" 하고 가르쳐서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감사합니다." 하고 먹게 하고 어른들은 자기 부모에게 또 감사하면서 먹게 하고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건 일체제불과 우리 육의 조상들의 마음이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의 마음도 둘이 아니요 부처의 마음도 둘이 아니요, 우리 전체의 마음도 부모들의 마음도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식이 죽는 것을 볼 때 자기가 대신 죽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되길 바라고, 부모는 언짢은 걸 먹더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를 먹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선지식의 마음이요, 그것이 바로 큰마음의 부처님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마음만 됩니까? 머리 깎은 스님이 아니더라도 사대 성인들의 그 마음들이 전부 한마음이니 어찌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둘이 아닌 것이 바로 한마음 주인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부처님을 찾지 않고 한마음 주인공을 찾게 하느냐?" 그럽니다. 그런데 부처님 전에 가서, 칠성한테 빌면 명이 길다고 했으니까 명을 빌고, 또는 산신각에 가서 빌면 무슨 일이 잘된다고 해서 빕니다. 재판이 걸렸을 때나 무슨 일이 터졌을 때는 신중단에 가서 또 신중 기도를 드립니다. 또는 좋은 데로 가게 해 달라고 지장한테 빕니다. 우리 불교가 조선 시대 때에 그렇게 탄압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에는 그런 기복적인 것을 개선하고 자력 신앙을 정립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정신계의 훌륭한 역군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컴퓨터보다도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거죠. 차를 움직이더라도 그것을 굴릴 게 아니라 마음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할 수 있는, 바로 우리를 살리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정신력이 돼야 불국토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불국토라는 것은 불교인만의 불국토가 아니라 정신계에 바로 공생·공용·공체·공식화하며 조화를 이루고 평화를 얻는 것을 불국토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나 이름에 속아 모두 그냥 배타적이 되어서야 어디…. 현재 우리 국민은 반쪽짜리 셋방에 들어서 사는 거와 같은 실정인데 온전한 한 집을 마련하려면 그 아리따운 마음, 둘이 아닌 도리가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우환 재료가 있거나 안되는 재료가 있다면
바로 실험을 해보세요
그게 전부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거죽으로만,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몸 떨어지고 말 떨어지고 입 떨어지면 그 사랑은 아주 없어지는 거죠. 한데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깊은 속으로 '네가 잘돼라.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하고 돌아갈 때 그 마음도 같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어지지 않는 거 같지만 바로 전력이 전달이 되듯이 마음도 전달 아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할 것은, 지금 병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의 병을 먼저 고치기 위해서 한마음 주인공에 맡겨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음 주인공이라는 것은 바로 본래자성불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음 주인공이라고 말했던 것은 자성불을 가르치기 위해 이 몸뚱이 안에 모든 생명, 의식들을 한마음으로 몰아서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지배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병이 나더라도 '거기서 병이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병이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해라.' 이렇게 맡겨 놓으란 말입니다. 기독교나 가톨릭교나 불교나 모두 타의에다가 그걸 맡겨 놓고 야단들을 하는데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 주처에 맡겨 놓으십시오. 컴퓨터에 입력된 것은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거기다가 입력을 다시 하기 위해서 맡겨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병이 났으면 바로 약사가 되시라 이겁니다. 병이 났으면 바로 '아하,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해!' 이러면 그게 한마음으로 뭉쳐서 약사가 됩니다. 아버지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 하듯이 그렇게 바뀌진다, 화한단 말입니다. 그게 천백억화신 보살들이 다 행하는 바로 중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몰라서 못해!" 하지 마시고, 실험을 하고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힘을 기르시고, 여러분도 힘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모르는 게 죄지 누가 죄가 있겠습니까? 업보가 붙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병고가 어디 붙을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병고를 일으킨 거죠. 회사만 망해도 병이 듭디다. 회사만 망해도 뭐, 간이 나빠졌느니 당뇨병이 걸렸느니 백혈병이 걸렸느니 온통 야단이 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으로 자기 몸뚱이 의식 하나 이끌어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사람이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느 종교든 나는 배척을 안 합니다. "여기로 오너라. 불교로 오너라." 이러지도 않고 "거기로 가거라." 이러지도 않습니다. 자유입니다! 거길 가더라도 좋고 여길 오더라도 좋고, 오직 "주처를 안으로, 내면에 둬라." 이것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름을 가지고, 꼬리표를 가지고 분별을 하고 탓을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저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자기 인체 내의 모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깥으로 끄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체 속에도 광력이 있고 전력이 있고 통신력이 있고 자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치료할 수 있다니까요. 속에서 병이 난 거를 바깥에서 치료를 해 봐야 그게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다 속에도 태양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파도가 이는 겁니다. 그래야 고기들이 다 살 수 있으니까요. 괜히 파도가 이는 줄 아십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흙 속에도 다 지수화풍이, 공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습기가 있기 때문에, 온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보석이 생기기도 하고 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땅속에서 석탄, 기름이 다 생길 수 있듯이 우리가 그것을 잘 연구한다면…, 연구하는 게 어렵지도 않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아픈 재료가 있다면, 가난한 재료가 있다면, 안되는 재료가 있다면, 또 우환 재료가 있다면 바로 실험을 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전부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재료!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이고요. 그러니 그 재료를 가지고 실험을 해 보세요. '바로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이 알아서 해라! 거기서 고칠 수밖에 없다.' 그러고 믿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의 근본도 슬며시 찾을 겁니다. 근본은 바깥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것이 바로 근본이에요. 허허허…. 끌고 다니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데도 그걸 몰라요, 너무 가까워서. 요 위 속눈썹하고 요 아래 속눈썹하고 똑같이 그렇게 가깝게 있으니 그 눈썹을 볼 수가 있나요? 에유!

그러니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핵심을 실험하는 멋진 인간으로서, 즉 말하자면 타력 신앙을 믿지 말고 자력 신앙으로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단전호흡이다 뭐다 하고 가는데, 운동을 한다 뭘 한다 하는데, 더 쉬운 운동이 있어요! 내가 내 몸뚱이 속에 있는 그 의식들을 다 지배할 수만 있다면 다 운동을 해 줘요! 어때요?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앉아서 세계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이 소리가 어폐가 있다면 요다음에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럽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병원에 가도 30%, 40%밖에는 충당할 수가 없어요. 70%나 60%는 여러분이 충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도리를 모른다면 충당할 수가 없어요. 병뿐인가? 가난도 그럴 테지요. '아이구! 나는 왜 이렇게….' 이러죠? 또 어떤 애들은 시집을 못 가고 장가를 못 든다고 그러는 사람도 많은데 '주인공이 알아서 너 시집 보낼 거 시집 보내고, 장가 들일 거 장가 들여!' 하고 거기다 맡겨 놓으면 마음이 가고 오는 사이 없이 다 마음으로 조절해서 오게 만들어 가지고는 다 장가 들고 시집 가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얼마 안 있으면 "아이구, 스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맛에 사는 거지요, 뭐. 하하하…. 그럼 이걸로써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91년 2월 23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 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행템플스테이
(깨달은 다이어트)

진짜쉼 머리의 번뇌를 쉬고 입을 쉬고 내장을 쉬는 지혜로운 템플스테이

※절, 염불, 독경, 참선, 와선, 행선, 부처님호흡법, 알아차림을 완벽하게 배우고 점검을 받으며 실천수행

청견스님 직접 수행교육지도
잠을깨고 혼침 졸음 이기며 피로풀고
스트레스 날리고 삼매 깨달음 100% 이해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챙김 알아차림

◉대상(누구나): 출가예정자 행자 사미 사미니는 미래불공덕회에서 수련회비 전액 후원

◈ 수행일정(예약신청)
6차 : 3월 12 ~ 13일, 7차 : 3월 19일 ~ 20일
8차 : 4월 2 ~ 3일, 9차 : 4월 16일 ~ 17일
10차 : 5월 7 ~ 8일, 11차 : 5월 14일 ~ 15일

법왕정사 부산법당
전화 : 051)583-7886
www.법왕정사.kr(수행템플스테이)참조

기문명리학강의안내
www.gimun.net
(사주.작명.택일.관상.풍수.단시)

교육장소
•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 문의 02)961-0871
매주 수요일 오후7시~9시 : 기문명리학 (기초과정)
매주 목요일 오후7시~9시 : 기문정명학 (인사해단및 택일과정)
개강일시 2011년 3월 첫주부터 (2월말까지 선착순)
원서접수 경희대학교 방문접수및 인터넷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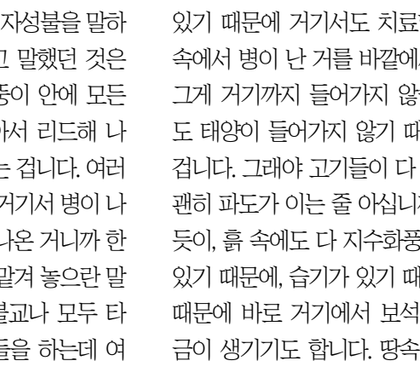


◎담당 교수 : 손 혜림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 6기)
손혜림 기문넷 대표
02)3476-3433

기문명리학이란?
일반명리학이 단지 운명을 추측하여 추정하는 추명학이라면, 기문명리학은 정해진 운명의 바코드를 정확히 읽어내는 정명학입니다. 전맥에 의해 내려오는 정통학문인 만큼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기문학을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관건이 됩니다. 카운슬링이나 심리요법을 하는 분, 종교단체를 운영하는 분, 특히 혼미한 세상의 등불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필요한 진리의 학문입니다.

작명프로그램 및 기문프로그램 (대법원 인명용 한자 5,000자 이상 수록) 구입문의 02)3476-3433

청정 청풍골 참다슬기 농축액
"간"이 피로 하십니까?
예로부터 맑은 물에서 자란 참다슬기는 그 효능이 토종 웅담에 비길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동강청정원에서는 강원도 동강과 남한강 상류 지역에서만 채취한 구슬알 다슬기와 참 다슬기만으로 다슬기 기름과 다슬기 농축액을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

▶다슬기 농축액 : 다슬기 10kg을 껍질까지 분쇄하여 마늘과 생강만을 넣고 가마솥에서 3일간 달여 10㎖ 60봉지로 포장하여 판매합니다.

▶다슬기 기름 : 다슬기만 15kg을 항아리에 넣고 불가마속에 5일간 껍질까지 녹여 내린 것으로 900㎖병에 담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냉장상태로 포장하여 택배 배송하고 있으며 후불제로 판매합니다.

문의 : 043)652-2121 동강청정원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불자 세상보기

이집트 민주화 혁명과 이슬람원리주의



정상률
명지대 중동연구소 연구교수

작년 12월 17일 튀니지 대졸 청년 실업자 모하메드 부아지지의 분신자살 시도로 촉발된 민주화 시위는 올해 1월 14일 23년 장기독재자 벤 알 리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하면서 끝이 나는 듯 보였다. 그러나 1월 17일자 〈뉴욕 타임즈〉는 이집트, 알제리, 모리타니아 등에서도 부아지지의 영향을 받아 분신을 시도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보도했고, 이후 민주화 시위는 예멘, 요르단, 이란, 쿠웨이트 등으로 사막의 모래폭풍처럼 확산됐다. 그 중에서도 이집트 민중의 민주화 혁명은 1980년 광주 시민혁명이나 1987년 한국의 민주화 혁명을 떠올리게 했다.

이집트 민주화 혁명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세력이 무슬림형제단(Muslim Brotherhood, MB)이다. MB는 나세르, 사다트, 무바라크로 이어져온 60년 군사독재 정권에서 가장 탄압을 받은 세력이고, 특히 정치이슬람 또는 이슬람원리주의 세력이기 때문이다.

이집트 현대 이슬람원리주의는 1928년 알 반나가 창설한 MB에서 시작됐다. 이집트 민주화 혁명 과정에서 MB가 가장 주목을 받는 이유는 MB이념 때문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슬람은 종교이자 국가이고 예배이자 지하드이며, 복종이자 통치이고 책이자 칼이다. 즉 이슬람의 포괄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이슬람은 초기(원래)의 가르침, 즉 코란과 순나로부터 이슬람 규율을 채택하고, 예언자의 교우들이나 제자들의 방식으로 이슬람을 이해해야 한다. 셋째, 이슬람 세계의 보편성, 즉 범 이슬람주의를 강조한다. 즉 이슬람의 단일성을 강조한다. 넷째, 무슬림형제단은 칼리파제를 이슬람 단합과 통합의 상징으로 믿으며, 이슬람정부, 즉 이슬람국가 수립을 기본 목표로 한다. 이 강령의 최종 목표는 이슬람국가, 이슬람사회, 이슬람세계 건설이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강령에도 불구하고 MB는 수차례 온건한 방법으로 이슬람세계를 건설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예를 들면, 2003년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확대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구상'를 통해 중동 국가들의 개혁을 촉구했을 때, 2004년 3월 13일 무바라크 정부의 개혁을 강조하면서 '무슬림형제단의 개혁안'으로 반응했다. 그 주요 내용은 '이슬람 원칙 내에서의 민주적 입헌공화국' 건설을 주장함과 동시에 보통선거, 대통령 임기 제한, 여성의 의회진출, 정치생활로부터의 군 철수와 긴급조치법 폐지, 정치 구금 해제, 고문 종식 등을 강조했다. 이슬람원리와 현대 민주주의 원리를 조화 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60년간의 군부정권에서 가장 큰 견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한 방법, 의회나 정치권에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건실용주의를 수용한 것이다.

이집트 민주화 혁명이 어떠한 방향으로 귀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세 가지로 예측할 수 있다. 무바라크, 친무바라크 군부, 현 국민민주당(NDP) 등 기득권 세력의 재기 가능성, 엘 바라데이, 무슬림형제단, 야권 및 재야 세력들의 연합세력(NCC)의 집권 가능성, 무슬림형제단 등 이슬람원리주의 세력의 집권 가능성이 그것이다. 대부분의 중동전문가들은 무슬림형제단 등 이슬람원리주의 세력의 단독 집권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60년 군사정권 기간 동안 무슬림형제단은 지속적인 탄압으로 인해 분열돼 있어서 단일 대오를 형성하기 힘들 뿐 아니라 미국, 이스라엘과 세속화됐거나 왕정인 주변 아랍국가들이 이슬람원리주의 세력의 집권을 하나의 위기로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 혁명에는 과도기간이 존재했다. 한국의 민주화가 많은 희생과 시간을 필요로 했듯이 이집트 민주화도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는 하나의 커다란 인류사적 추세이다. 이집트 민주화 과정에서 이슬람원리주의 세력인 무슬림형제단도 이러한 추세를 잘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민주적 가치를 수용하는 수준에서 자신들의 지분을 차지하려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슬람 사회에서 민주화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것'이라는 문화적·문명적 편견은 버려야 할 것이다.

사부대중 칼럼

거룩한 삼보의 언덕



현각 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필자가 몸담아 온 동국대학교 교가는 '거룩한 삼보의 언덕위에…'로 시작된다. 이 삼보의 언덕에서 강의를 시작한지 어언한 세대가 되었다. 흔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들 말한다. 그렇다면 최소한 세 번 쯤은 강산이 변했음직한 긴긴 시간의 흐름이다.

사람도 변하고 교정도 변했고 수종도 변했으며 나무의 굵기도 여간 변한게 아니다.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제일 먼저 접하는 말이 무상이라는 말이다. 어느 동자승은 '왜 절에 왔어요'라고 물으니 '무상해서요'라고 대답했다니 질문자의 간담을 써늘하게 할 말이다. 동자가 그 엄청난 무상을 터득했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무상의 이치를 수로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마주치고 지나치기 일쑤다. 계절의 변화가 그렇고, 별들의 공전과 자전이 그러하며 계절의 순환작용 또한 그렇다. 식물의 한 살이도 어김없는 무상의 도리를 드러내고 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오가는 감정의 농도 또한 변화무쌍하다.

이 엄청난 변화 속에 제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묘약이 없을까. 있다.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이 있기 마련이다. 변화에 순응하는 것이다. 순응은 굴종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순응은 어느 환경이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고 굴종은 제 뜻을 굽혀 남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필자가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말하는 일성이 있다. 강의라는 말이다. 강의는 '의로운 것을 논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앞에서 읽는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독일어로 die vorlesung을 말한 것이다. vor는 앞이라는 전치사이고 lesung은 lesen이라는 읽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다. 교수가 수십년 울궈먹은 너덜너덜한 노트를 읽으며 책임시간이나 땜질하는 경우는 곤란하겠지만 말이다. 요즘 세태에 이런 교수는 찾아 보기 어렵다. 제도가 그들을 그냥 두지 않고 퇴출시키고 말터이니 말이다. 참신한 내용, 농익은 학문, 깊은 사유의 축출물을 열정을 다하여 강의한다면 자신도 흡족하고 고객(?)도 만족해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동양적 의미의 강의는 예절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로움이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이다. 학생이라면 누구나 정의로움에 찬사를 보낸다. 또한 정의의 수호신이라고 자처하기도 한다. 의롭게 살라 배웠으니 그도 그럴만 하다. 학문 분야가 어떠하든 공히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는다. 인간을 재는 척도는 문과니 이과니로 구분되지 않고 의로움에 맞춰지기 마련이다.

강의실에서 의로운 마음은 어디로 가고 교정만 벗어나면 망각이란 이름 모를 강에 풍덩 던져버리고 만다. 권력 앞에 굴종하고 금력 앞에 고귀한 양심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만다. 마침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기사거리는 몽땅 배운 자의 소행일 뿐이다.

작은 것에 현혹되어 큰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 소탐대실이라 했던가. 옛 스승들은 내 고귀한 생명을 버려서라도 의로움을 택하겠다고 하였다. 현대인의 초상을 본다. 왜 이리 어설픈가. 왜 이리 초라한가. 의로움도 시대에 따라 카멜레온이 되고 마는 것일까. 주위의 환경이나 광선 또는 온도 등에 따라 쉽게 변하여 주위의 상태에 적응하는 카멜레온 말이다.

의로움은 탈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고선(至高善)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휘청거리는 듯 해도 유지되고 발전하는 원동력이 있다. 인간의 심저에 있는 양심의 고동소리를 경청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작은 것이나 적은 것은 볼품도 없고 나약한 듯 하지만 순수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다.

불보와 법보와 승보를 삼보라 일컫는다. 거룩한 삼보의 언덕에서 그 소명을 다 했을까. 반추해 보는 시간이 되고 말았다. 불보는 생존 인물인 싯다르타 태자를 말한다. 도를 이룬 모든 이를 말하기도 한다. 법보는 부처님 가르침인 팔만대장경을 이른다. 승보는 출가 수행자를 말한다.

필자는 부처님 교설을 가르치는 스승의 길을 걷고자 발원하고 교단에 섰다. 세사(細沙)마냥 무궁한 법의 바다에서 노닐다 보니 숱한 세월이 흘렀다. 가히 시난고난한 세월이었다. 육신의 병이라기보다 정신세계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데서 온 결과라 생각한다. 앞으로 주어진 시간 모두 연소시키고자 한다. 삼보의 언덕이 찬란히 빛나게.

社說

불교환경연대도 자성과 쇄신을

불교환경연대는 대중적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삼보일배와 천성산 살리기 단식 등을 주도하던 불교계를 대표하는 NGO단체 중 하나이다. 이 단체가 지금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

이 같은 위기는 지난해 6월 상임대표 수경 스님의 급작스런 잠적에서 비롯됐다. 수경 스님이 잠적하자 도미노처럼 실무진들이 불교환경연대를 떠났다. 선장이 떠난 배에 선원이라고 남아 있을 리 없던 것일까. 4개월 여 표류 끝에 신임 상임대표로 현고 스님을 선출했지만 이마저도 잠시. 현고 스님마저 1월 17일 사퇴했다. 이에 앞선 13일에는 불교환경연대를 혼자 지키다시피 했던 명계환 조직국장이 떠났다. 잠적, 사퇴·사퇴·사퇴…, 사임이 줄 잇는 동안 불교환경연대는 신규사업을 벌였다. 숲 명상 유아학교가 그것. 하지만 인재가 빠져나가기 시작한 조직의 사업이 제대로 될 리 없었다. 신규사업 진입 실패는 불교환경연대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졌다.

수경 스님이 떠난 불교환경연대는 더 이상 불교환경연대가 아니었다. 현고 스님은 '슈퍼스타의 빈자리'라고 표현했다. 수경 스님이 불교환경연대의 조직관리는 물론 재정까지 도맡았다고 하니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민주주의에 어긋난 독단적인 시스템을 감시·질타해오던 불교환경연대가 1인 체제의 덫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들면서 유훈으로 '자등명법등명(自燈明法燈明)'을 남겼다. 다른 것에 귀의하거나 의지 말고 오로지 자신과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말씀이다. 불교환경연대에 필요한 것은 수경 스님을 대신할 새 지도자가 아니라 구성원 각자의 자성과 쇄신이다.

의혹 규명보다 태도부터 분명히

4대강사업이 진행 중인 낙단보에서 발견된 마애불을 두고 조계종이 정부와 전쟁을 선포했다. 조계종은 2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마애불에 드릴로 뚫린 천공이 4대강 사업 강행으로 빚어진 의도적 훼손이라는데 초점을 맞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해 10월 낙동강 낙단보 마애불이 발견된 지 4개월 여만의 일이다. 100일도 지나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정부 측 대응이 불교계 우롱에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문화재청은 조계종 관계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며 사실 은폐를 시도했다.

주지해야 할 사실은 조계종의 바뀐 태도이다. 조계종은 지난해 마애불 발견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의 날선 질문에 "마애불이 고의적 훼손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 측을 대변했다.

조계종은 정부·여당 인사와 소통을 단절하는 등 민족문화수호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마애불 논란의 재점화가 민족문화수호운동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민족문화수호운동이 전국적·범종단적 지지는커녕 총무원 인근에서 근근히 이어지는 가운데, 불자들을 가장 분노케 하는 훼불로 이슈화해 민족문화수호운동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런 의혹이 계속되면 민족문화수호운동은 더더욱 구심점을 잃고 만다. 조계종은 민족문화수호운동을 원점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海月 金文華의 魂이 담긴 스피커의, 힘 있고 우렁찬 소리는 스님의 건강과 절 전체에 氣를 불어넣어 줍니다.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ital Echo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범당 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뒤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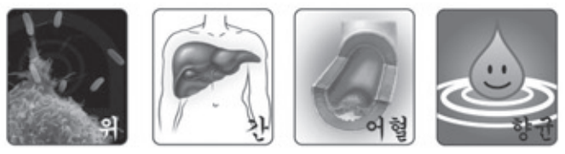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절대 옻이 타지 않는 옻의 원조
농업법인 (주)옻가네

2010년 대한민국식품 발명대상 "최우수상 수상" (12월 17일)

헐은 위, 지친 간 토종참옻으로 다스린다!!

위와 장을 편안하게 속을 따뜻하게





토종참옻은 우리 체질에 잘 맞으며, 뛰어난 효능이 입증되어 아주 오래된 산삼의 효과를 능가한다고 하여 옛부터 한방과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십년묵은 체증도 녹이는 참옻

옛부터 옻은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보다 좋은 명약이라 하였습니다.

20세기의 기인으로 인산죽염의 창시자 김일훈선생은 저서 『구세심방』과 『신약』에서 "옻은 산삼과 비견할 만큼 중요하고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동양에서는 옻이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되어 왔고 어혈제거, 위장질환, 여성의 생리불순 등 민간요법에 이를 이용한 처방이 전래되었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보면 옻의 우루시올 성분이 항암, 항산화(노화방지) 및 항균활성이 강하며, 옻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형성 억제작용으로 암세포의 증식, 전이를 억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를 유도하는 항암 효과가 확인되는 등 옻은 옛부터 한방과 민간요법에서 혈액순환 촉진, 위산과다, 생리통 등에 널리 쓰여 왔습니다.

"뭉친 어혈을 풀어주고 근육의 힘을 길러줘" (상지대 한의대 김명동교수)

수술중 마취에서 생긴 어혈을 풀어주고 근육의 힘을 강하게 해 주는데 옻을 사용하여 많은 효과를 보았다. 근육과 뼈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선수와 체육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체력증진 효과도 경험하였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의 숙취, 두통, 피로와 설사에 사용하였고, 중년남성의 스트레스와 과음으로 인한 양기부족에 참옻을 사용하여 발기부전의 치료효과가 매우 좋았다. 또한 30대 후반의 한 남성의 경우 여름에도 난로를 켜고 지내야 될 정도로 무릎이 시렸는데 참옻을 2개월 반정도 복용시키자 회복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임산부의 산후관절 시림증상을 치료하는데 응용하여 많은 효과를 보았다.

손발이 차고, 저리고, 추위를 많이 타십니까?

뼈속이나 무릎이 시린 통증을...

본래 옻은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가을걷이가 끝난 초겨울에 옻닭을 해먹고 부유한 층에서는 개 또는 흑염소를 넣어서 탕으로 먹었다. 왜냐하면 옻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손발이 시리고 저린 증상을 없애주며 뼈속이나 무릎이 시린 통증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토종참옻을 민간비법으로 활용하여 겨울을 건강하게 지내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다.

또한 시장이나 야외에서 장시간 활동 하시는분들이 겨울에 옻을 복용하면 몸이 따뜻하고 손발이 따뜻하게 되어 내의를 한벌 덧입은 것 같이 몸이 훈훈하여 추위를 타지 않게 되어 한 겨울에도 감기몸살 걱정없이 건강하게 지낼수 있다.

농업법인 옻가네는 국내산 토종 참옻을 이용하여 누구나 옻이 타지 않고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참옻식품을 개발하여,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 2010년 제천국제 한방바이오 엑스포 공식지정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국내에서는 식약청(KFD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그 까다롭기 유명한 미국의 FDA에서도 안전성을 인정한 **검증받은 제품**입니다.

발효기술을 접목한 "발효참옻제조" 특허기술

콩을 그냥 먹어도 좋지만 발효시켜서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좋듯이 토종참옻도 발효시키면 몸에 이로운 효과가 훨씬 많아집니다. 옻을 식품에 첨가하여 요리하면 독특한 효과가 있는데, 모든 육류에 첨가하면 고기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기름기를 녹여 고기맛을 부드럽게 하여 고기맛을 더욱 좋게하며, 건강에 매우 좋고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아주 좋다.
옻은 천연항균, 살균력이 있어 심한 발냄새, 무좀,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좋다.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피부 질환, 아토피	부인병, 자궁근종, 생리통	어혈제거, 혈액순환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利小將(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療咳樹(료해수) : 가래, 기침병	女子疝瘕(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除風(제풍) : 중풍을 다스림.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 고침.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통증.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消瘀血痛結腰痛(소어혈비결요통) :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削年深堅結之積滯(삭년심견결지적체) : 병영어리를 없애줌.	九服經身耐老(구복경신내노) :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破日九凝結之瘀血(파일구응결지어혈) : 피를 맑게 함.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릿속골을 채워줌, 골다골증 치료.

옻이절대 타지(오르지)않는 가족건강 지킴이 토종참옻

- MBC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12월 2일)

금상-옻안타는 옻을이용한 숙취해소 음료개발

은상-옻안타는 참옻발효진액 제조 방법 개발



FDA 미국식품안전청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지정상품

2010년 대한민국 식품발명대전 (12월 17일)

최우수상 수상





▲방송협찬중인 옻가네참옻제품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체험수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효과를 보신 것에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폐경 10년만에 생리가 다시 시작 박○○ 1949년생 1월생 61세

저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살고있는 61세 여성 입니다. 2010년 초쯤 지인으로부터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참옻진액 파우치 60봉을 구입하여 복용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소화기능이 약해서 잘 체하고 고기나 일가족 음식과 찬음식도 잘먹지 못하고 손.발과 아랫배도 차가워 변비가 심했고 신경이 예민해서 깊은잠을 이루지 못하여 신경외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약 10년동안 약을 먹으로 잠을 잤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3일정도 복용 했을때 아랫배가 빵빵해 지더니 3일째 아침에 숙변이 신형상에 많은양이 나오더니 속이 후련한 정도로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되고 속이 아주 편안해지고 일주일정도 복용하고 나니까 뱃속에 항상 체했던 증상이 내려가고 아프던 허리가 좋아지고 3일정도 복용 했을때 폐경된지 10년만에 생리를 5일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0봉을 다먹고 나니까 10년동안 꺽인 수면제도 먹지 않고 잘 잘수있고 이제는 고기나 일가족 음식을 아무데로 가리지 않고 먹을수 있고 소화도 잘되고 변도 매일 잘볼수 있고 체도 확 좋아져서 몸이 가벼워 진것 같습니다. 또다시 60봉을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는중입니다. 나와 옻가네제품을 만나게되어 모든건강이 다 좋아져서 정말 진심으로 옻가네 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담당의사도 놀란 간경화 수치의 정상화 최○○ 경기도 분당 60세/전직 아나운서

간경화 수치 1280 으로 서울대병원에서 1개월을 치료하니 간수치가 900으로 떨어졌다며 더 이상은 심정이 없어 퇴원 후 오주아다 통원치료를 했지만 간수치 700인 상태에서 더 이상은 심정이 좋았습니다. 8월경 TV 방송을 보고 제품을 구입했지만 별 효과는 없었지만 실망해 줄 몰라 실의로 방황하기 시작했다. (0일정도 지나면서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3개월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간수치가 120으로 떨어졌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담당의사조차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오주아다 거의 먹던 병원을 3개월에 1병으로는 양을 줄게 되었으며 현재의 간수치는 54.2로 들어왔으며 혈당도 4에서 3.5로 유지됨.
더욱이나 상기한 것은 10년동안 지로 복용을 했던 바톨우종이 없지 되었으며 명약효과로 감염되었던 대상포진 흔적 사라졌다.

전신에 어혈이 돌아 무척 고생했었으나 김○○ 55세/주부

저는 동네이웃분에게 아토피가 많이 좋아졌다는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2010년 8월 구입하여 먹게 시작하였습니다.
기관지 염병으로 4번째. 1년전 심하게 넘어져 왼쪽 옆구리 갈비뼈와 엉치에 금 간 부상을 입어 전신에 어혈이 돌아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옻가네 참옻진액을 마시면서 몸에 서서히 열이 나고 서서히 엉덩 뚜고 소리가 나서요 자리고 아래에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주사가 없었는데 주사를 맞은 것과 같이 나타났다.
주사 맞지않고 한약이 없었는데 주사를 맞은 것과 같이 나타났다.
처음 3일째 되어 종기 같은 것이 터져 나왔고 소화도 잘되고 변도 매일 잘볼수 있고 체도 확 좋아져서 몸이 가벼워 진것 같습니다. 또다시 60봉을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는중입니다. 나와 옻가네제품을 만나게되어 모든건강이 다 좋아져서 정말 진심으로 옻가네 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혈액순환 장애의 초기증상

① 손, 발이 차고 저리며, 쥐가 잘나고 경련이 자주 일어난다.
② 옆구리, 등, 허리에 담이 잘 걸린다.
③ 피로감이 심하고 눈이 충혈된다.
④ 어지러움, 두통, 불면증이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다.
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흥분을 잘 하고 초조감을 느낀다.

농업법인 (주)옻가네

는 산업자원부 지정 전통의약산업센터 한국건강기능 식품협회 정회원, 한방클러스터 회원업체, 농협과 제약회사에서 '옻 안타는 옻, 옻잔액기술'을 이용한 옻원액을 공급하며 간편한 포장의 참옻잔액을 제조합니다. 믿음이 있는 기업, 믿음을 주는 기업, 옻가네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구셰심방, 향약집성방, 방약합편등 전통의약서적에서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에 비견된다는 토종참옻을 누구나 안전하게 염려없이 드시고, 진가는 예전 옻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독성은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토종참옻 100% 국내산

옻가네 참옻제품 불만족시 100% 환불보장제 실시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3~4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패트병 = 1.5L)
6병 93,000원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 민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0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고급형구입시 100명 선착순 한정으로 사은품 토종참옻환을 드립니다.



토종참옻환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

옻가네 제천약초특구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 080-838-25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